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池 在 元

<月刊 服裝>에 나타난 男性服

‘靑磁線’ 變遷에 관한 研究

- 1990년부터 1999년까지 -

A Study on Changes of Men's Wear 'Celadon Line'

described in <Monthly Costume>

- From 1990 until 1999 -

2 0 0 3 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패션저널리즘專攻

金 恩 璟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池在元

<月刊 服裝>에 나타난 男性服

‘靑磁線’ 變遷에 關한 研究

- 1990년부터 1999년까지 -

A Study on Changes of Men's Wear 'Celadon Line'
described in <Monthly Costume>

- From 1990 until 1999 -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패션저널리즘專攻

金 恩 璟

金恩璟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3 年 12 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국 문 초 록

영국의 사상가이며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19세기에 발표된 그의 평론 <의상 철학>에서 옷의 정신성을 일찌감치 강조했다. “옷이란 영혼의 가장 바깥을 덮는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몸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며, 정신을 담는 그릇인 몸을 싸는 옷 또한 정신을 표현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패션문화 의식을 바탕으로 청자선의 생성 및 발전과정을 연구했다.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면만 고려해왔던 우리의 맞춤 양복계에, 청자선 제정을 계기로 문화로서의 의상 개념의 도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즉 청자선 제정의 취지는 신사복의 수준을 의상문화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있었다.

청자선이란 우리의 고유한 라인인 고려청자의 유연한 곡선을 신사복에 도입한 한국남성 맞춤양복의 표준지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청자선을 제정하고 있는 한국맞춤양복기술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복장>을 중심으로 1990년대 청자선의 변천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청자선이 한국 남성복의 독창적인 권역 실루엣을 이룩하기 위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990년대는 우리나라 맞춤 양복이 기성복과의 경쟁으로 변화 요구를 받았던 시대였다. 또한 당시는 한국 남성복이 세계패션의 다양화 및 코디네이션 노하우의 발달에 따라, 개성화·합리화된 시대라는 점에서 연구시기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0년대 청자선의 큰 흐름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초반에는 에콜로지 영향에 의한 내추럴 스타일이 강세를 보였으며, 중반 직전에 등장한 슬림 스타일은 이후 90년대 청자선의 큰 흐름을 이루었다. 중반이후부터 엘레강스 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엘레강스 스타일은 댄디적인 요소와 조화되어 청자 라인의 간결한 리듬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이같은 큰 흐름 이외에 청자선에서는 레트로·캐주얼화·페미니즘·믹스 스타일도 제시했다. 특히 믹스 스타일은 90년대 특징 가운데 하나인 복합성의 표현이다. 청자선에서의 믹스 스타일로는 빅 실루엣과 스몰 실루엣간의 혼합이라든가, 전통미와 현대감각의 혼합, 즉 모던 엘레강스 룩을 꼽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인 빅 실루엣과 스몰 실루엣간의 혼합은, 역삼각형 실루엣으로 나타나 강한 남성상을 추구했다. 후자인 모던 엘레강스 룩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란 점에서 청자선의 정신과도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90년대 청자선 분석을 토대로, 청자선이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구책은 첫째, 치밀한 정보 파악. 둘째, 역량 있는 남성 맞춤복 디자이너의 배출이다.

한편 청자선이 한국 남성복의 확실한 권역 실루엣을 갖고, 세계패션에 동참하기 위한 지향책으로는 첫째, 정보 교환 및 디자인 제휴를 통한 기성복 분야와의 긴밀한 교류. 둘째, 매스컴 특히 TV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노력을 통해, 청자선의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완성시켜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함으로써 청자선 본연의 취지대로 세계패션과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독창적인 권역 실루엣을 창조하여, 21세기 지구촌 패션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써, 세계패션과의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가운데 청자선이라는 한국의 독창적인 권역 실루엣을 완성, 21세기 지구촌 패션으로서의 새 면모도 갖추어나갈 수 있으리라 전망되는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의의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5
1. 청자선 제정의 역사	5
2. 청자선의 의미와 가치	10
III. 1990년대의 청자선 변천 분석	13
1. 청자선에 반영된 90년대 세계 남성복의 경향	14
2. '90 청자 기준선	41
3. '91 청자 기준선	49
4. '92 청자 기준선	56
5. '93 청자 기준선	60
6. '94 청자 기준선	65
7. '95 청자 기준선	71
8. '96 청자 기준선	76
9. '97 청자 기준선	81
10. '98 청자 기준선	87
11. '99 청자 기준선	93

IV. 청자선의 역할 및 제한점	101
1. 청자선의 역할	101
2. 제한점	101
V. 결론 및 제언	105
1. 요약 및 결론	105
2. 제언	107
용어해설	109
참고문헌	111
ABSTRACT	115

사 진 목 차

<사진 1> 북장 월보 '76청자선 작품	8
<사진 2> 북장 월보 '76청자선 작품	9
<사진 3> 안젤로 타를라치, 맨즈 컬렉션즈, '90S/S 파리 컬렉션	15
<사진 4> 크리스티앙 디올, 맨즈 컬렉션즈, '90 · '91A/W 파리 컬렉션	16
<사진 5> 프라다, 맨즈 컬렉션즈, '99S/S 밀라노 컬렉션	16
<사진 6> 크리스치아 우모, 맨즈 컬렉션즈, '99S/S 밀라노 컬렉션	17
<사진 7> 크리스티앙 디올, 맨즈 컬렉션즈, '95 · '96A/W 파리 컬렉션	19
<사진 8> 에르메스, 맨즈 컬렉션즈, '94S/S 파리 컬렉션	21
<사진 9> 도리스 반 노팅, 맨즈 컬렉션즈, '95 · '96A/W 파리 컬렉션	21
<사진10> 피에르 발망, 맨즈 컬렉션즈, '90S/S 파리 컬렉션	22
<사진11> 조르지오 아르마니, 맨즈 컬렉션즈, '92S/S 밀라노 컬렉션 ·	23
<사진12> 올리비에 스트렐리, 맨즈 컬렉션즈, '95 · '96A/W 파리 컬렉션	24
<사진13> 콘케이브 라인으로 표현한 극단적인 볼드 룩, '97S/S 밀라노 컬렉션	25
<사진14> 오즈월드 보팅, 맨즈 컬렉션즈, '96 · '97A/W 파리 컬렉션 ·	26
<사진15> 돌체&가바나, 맨즈 컬렉션즈, '93S/S 밀라노 컬렉션	27
<사진16> 돌체&가바나, 맨즈 컬렉션즈, '96S/S 밀라노 컬렉션	28
<사진17> 오스카 드 라 렌타, 우모 플레지오니, '95 · '96A/W 밀라노 컬렉션	28
<사진18> 생 로랑 리브 고쉬, 맨즈 컬렉션즈, '90 · '91A/W 파리 컬렉션	30

<사진19> 존 로샤, 맨즈 컬렉션즈, '96·'97A/W 파리 컬렉션	31
<사진20> 오즈월드 보팅, 맨즈 컬렉션즈, '96·'97A/W 파리 컬렉션 ..	32
<사진21> 카나리, 맨즈 컬렉션즈, '92·'93A/W 밀라노 컬렉션	34
<사진22> 장마르코 벤투리, 맨즈 컬렉션즈, '90·'91A/W 밀라노 컬렉션	35
<사진23> 피에르 발망, 맨즈 컬렉션즈, '90S/S 파리 컬렉션	35
<사진24> S.T 듀퐁, 맨즈 컬렉션즈, '97·'98A/W 파리 컬렉션	36
<사진25> 로메오 질리, 맨즈 컬렉션즈, '94·'95A/W 밀라노 컬렉션 ..	37
<사진26> 니콜 파리, 맨즈 컬렉션즈, '99·2000A/W 뉴욕 컬렉션	37
<사진27> 돌체&가바나, 맨즈 컬렉션즈, '97·'98A/W 밀라노 컬렉션	39
<사진28> 폴 스미스, 맨즈 컬렉션즈, '93·'94A/W 밀라노 컬렉션	40
<사진29> 월간 복장, '90청자 기준선	41
<사진30> 월간 복장, '90청자선	42
<사진31> 월간 복장, '90청자선	43
<사진32> 월간 복장, '90청자선	45
<사진33> 월간 복장, '90청자선	46
<사진34> 월간 복장, '90청자선	47
<사진35> 월간 복장, '91청자 기준선	49
<사진36> 월간 복장, '91청자선	50
<사진37> 월간 복장, '91청자선	50
<사진38> 월간 복장, '91청자선	51
<사진39> 월간 복장, '91청자선	52
<사진40> 월간 복장, '91청자선	53
<사진41> 월간 복장, '91청자선	54
<사진42> 월간 복장, '91청자선	55
<사진43> 월간 복장, '92청자 기준선	56
<사진44> 월간 복장, '92청자선	58

<사진45> 월간 복장, '92청자선	59
<사진46> 월간 복장, '92청자선	59
<사진47> 월간 복장, '93청자 기준선	60
<사진48> 월간 복장, '93청자선	62
<사진49> 월간 복장, '93청자선	62
<사진50> 월간 복장, '93청자선	64
<사진51> 월간 복장, '94청자 기준선	65
<사진52> 월간 복장, '94청자선	66
<사진53> 월간 복장, '94청자선	66
<사진54> 월간 복장, '94청자선	67
<사진55> 월간 복장, '94청자선	68
<사진56> 월간 복장, '94청자선	69
<사진57> 월간 복장, '94청자선	70
<사진58> 월간 복장, '94청자선	70
<사진59> 월간 복장, '95청자 기준선	71
<사진60> 월간 복장, '95청자선	71
<사진61> 월간 복장, '95청자선	72
<사진62> 월간 복장, '95청자선	72
<사진63> 월간 복장, '95청자선	73
<사진64> 월간 복장, '95청자선	75
<사진65> 월간 복장, '96청자 기준선	76
<사진66> 월간 복장, '96청자선	76
<사진67> 월간 복장, '96청자선	77
<사진68> 월간 복장, '96청자선	78
<사진69> 월간 복장, '96청자선	78
<사진70> 월간 복장, '96청자선	79
<사진71> 월간 복장, '96청자선	80

<사진72> 월간 복장, '97청자 기준선	81
<사진73> 월간 복장, '97청자선	81
<사진74> 월간 복장, '97청자선	82
<사진75> 월간 복장, '97청자선	83
<사진76> 월간 복장, '97청자선	83
<사진77> 월간 복장, '97청자선	85
<사진78> 월간 복장, '97청자선	86
<사진79> 월간 복장, '97청자선	86
<사진80> 월간 복장, '98청자 기준선	87
<사진81> 월간 복장, '98청자선	88
<사진82> 월간 복장, '98청자선	88
<사진83> 월간 복장, '98청자선	90
<사진84> 월간 복장, '98청자선	91
<사진85> 월간 복장, '98청자선	92
<사진86> 월간 복장, '99청자 기준선	93
<사진87> 월간 복장, '99청자선	94
<사진88> 월간 복장, '99청자선	94
<사진89> 월간 복장, '99청자선	95
<사진90> 월간 복장, '99청자선	95
<사진91> 월간 복장, '99청자선	97

표 목 차

<표 1> '89청자선과 '90청자선 기준 실루엣 비교	48
<표 2> '90청자선부터 '99청자선까지의 기준 실루엣 변천 추이	98
<표 3> 90년대 기준 치수	99
<표 4> 90년대의 청자선 및 세계 남성복 경향 비교	100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복식은 문화 현상의 하나다라는 명제는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21세기에는 패션과 문화가 좀더 자연스럽게 대중적으로 연결되어가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풍요로움과 함께, 패션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의식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즉 패션문화를 생활 패션이란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덕분이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국내 남성복 관련 연구가 적으나마 있었으며, 청자선 관련 사항이 한국 남성복식사의 한 단면으로 인용되어왔으나, 청자선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패션문화 붐을 제대로 받아들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자선의 생성 및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청자선 제정의 취지가 우리 신사복의 수준을 패션문화의 정신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청자선은 우리나라 패션문화 형성의 원조격이라는 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 스타일의 표준을 제시하면서, 점진적으로 패션이라는 생활문화를 뿌리내려 갔던 것이다.¹⁾

청자선이란 고려청자의 유연한 곡선을 신사복에 도입한 한국남성 맞춤양복의 표준지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청자선을 제정하고 있는 한국맞춤양복기술협회가 발행하는 <월

1) 김진식, 『한국양복 100년사』, 미리내, 1990, p.256.

간 복장>은, 생활문화로서의 맞춤 양복 패션을 반영해온 유일한 매체다. 또한 매년 발표하는 청자선 제정 내용과 작품 사진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월간 복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월간 복장>을 청자선 연구의 기본 텍스트로 삼았다.

본 연구는 <월간 복장>의 1990년대 청자선 변천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자선이 한국 남성복의 독창적인 권역 실루엣을 이룩하기 위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월간 복장> 1990년 1월호부터 1999년 12월호까지의 10년간으로 설정하였다.

90년대를 연구 대상으로 한 이유는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90년대는 맞춤 양복이 기성복과의 경쟁으로 인해 변화를 요구 받았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청자선이 주도하는 맞춤 양복에 있어서 위기의 시대였던 동시에, 전환점이 된 기회의 시대였다. 둘째, 90년대는 우리나라 패션이 한 단계 그레이드 업된 시기라는 점 역시 이유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8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계기가 되었다. 즉, 1987년에 한국 섬유업계는 100억 달러 수출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후 관계당국은 섬유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패션 주간'을 설정하는 등, 패션감각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했다.²⁾ 또

2) 『동아연감』, 동아일보사, 1988, p.220.

한 1989년 해외 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는 패션의 국제화 및 자유화를 가속화시켰다는 점³⁾ 등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90년대에는 엘르(ELLE) 한국판·보그(Vouge) 한국판·마리끌레르(Marie claire) 한국판 등 패션 전문잡지가 발행되어 대중들의 패션 인지도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또한 1994년 A/W파리 남성복 박람회(SEHM)에 장광효가 참가하는 등 한국남성복의 세계화를 위한 시도가 나타났다는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연구 방법

본 논문은 문헌 연구를 통한 통시적(通時的)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자 한다. 즉 <월간 복장>에 게재된 청자선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90년대 청자선 실루엣의 변천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1차 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위한 기초 연구로 청자선 제정의 역사 및 90년대 세계 남성복 경향 분석이 선행될 것이다. 2차 단계에서는, 1차 단계의 90년대 청자선 실루엣 변천 분석을 토대로 청자선의 발전 방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90년대를 각 연도별로 분석할 때, 경향·수트·코트·예복으로 세분화시켰으며, 수트는 상의 및 하의로 나누어 좀더 정밀하게 분석을 했다.

또한 청자선의 제정 내용을 도표로 작성하여, 10년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연도별로 세계패션의 경향 및 청자선 경향의 비교 역시 표로 작성하여 참고 자료로 삼았다.

연구에 사용될 사진 자료는 <월간 복장> 및 <복장 월보>를 비롯하여, <MEN'S COLLECTIONS>와 <UOMO COLLEZIONI> 등이다. 이

3) 박순양, 「한국 남성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92, p.45.

같은 사진 자료를 통해 논문 내용을 시각적으로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자선 제정의 역사

한국 남성복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청자선의 제정은 '70스타일 한국 디벨롭 라인'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1969년 대한복장기술협회의 발족과 더불어 탄생했다. 복장인들의 창의력 고양을 목적으로 발족한 대한복장기술협회는 그 첫 사업으로 '70스타일 한국 디벨롭 라인'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대한복장기술협회의 역사는 1946년 창설된 전선복장연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전선복장연구회는 38선으로 남북이 분단되자, 1947년 후반 이남의 복장인만으로 구성된 전국복장연구회로 개편되었다. 이후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연구회의 기능이 정지되었으나, 1952년 피난 수도 부산에서 대한복장연구회가 재건되었다. 이같은 연구회의 역사적인 기반 위에 1969년 대한복장기술협회(현재 한국맞춤양복기술협회)가 법인으로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전국복장연구회는 기술 보급 및 양복인들의 결속을 위해 1949년 12월 10일 <새옷>⁴⁾을 창간했는데, 대한복장기술협회도 1971년 7월 <복장 월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타블로이드판으로 나오다가 1975년 6월부터 4·6배판 잡지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1988년 4월

4) 회지. 문화복장총서 1편으로 나왔다. 우리의 복장 문화를 향상시키고 옷감의 기술적 문제 및 국산품 장려 관련 사항 등을 연구 발전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했다. 창간호 발간 후 7년 만인 1956년에 속간호를 냈으나, 1958년 4호를 끝으로 더 이상 발간되지 못했다.

호부터 지금의 <월간 복장>으로 제호가 바뀌게 되었다.

<월간 복장>의 창간과 청자선 제정은, 모두 대한복장기술협회가 한국 남성복 발전을 위해 주관한 사업이었다. 그러므로 <월간 복장>과 청자선은 맞춤 남성복의 발전 과정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된다.

스타일 한국 디벨롭 라인이란 이름은, 당시 제정위원 가운데 한사람인 강윤식의 제안으로 붙여졌으며, '72스타일 한국 디벨롭 라인 발표 때까지 사용되었다. 70년 당시 정부의 활발한 개발정책 분위기에 부응하려는 취지하에 '개발' 또는 '발전'의 의미를 지닌 '디벨롭(develop)'이란 명칭을 빌려와 이름 지은 것이다. 즉 남성복에서도 기술을 향상시키고 개방 물결을 받아들이며, 단지 옷을 입기만 하는 시대에서 연출하는 시대로의 진입을 시도하려 한 것이다.⁵⁾

'72스타일 한국 디벨롭 라인의 제정 때, 우리 고유의 선을 신사복에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마침내 '73스타일 한국 디벨롭 라인의 제정 때, 고려 청자의 아름다운 선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74스타일 한국 청자선 제정 당시 청자선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었으며, 작품 발표회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청자선이란 명칭이 양복점 이름으로 활용되거나, 안내서 등에 오르내리게 되었다.⁶⁾ 이후, 1974년 4월 23일에 제정된 '75스타일 한국 청자선 때부터 청자선이란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본격적으로 청자선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우리 고유의 선을 신사복에 응용하게 된 배경을 분석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5) 김진식, 『한국양복 100년사』, 미리내, 1990, pp.250~252.

6) '스타일 한국제정 그 안팎', 『복장 월보』, 1975년 6월호, p.34.

첫째, 세계적인 흐름의 반영이었다. 즉 196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서는 곡선의 도입과 함께 중국 붐이 일어나면서 모든 복장 분야에 중국 송나라 시대의 선이 도입되어 인기를 끌었다.⁷⁾

둘째, 1960년대 후반 기존의 미국 아이비 스타일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럽의 콘티넨탈 룩이 국내에 소개됨으로써, 신사복의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콘티넨탈 룩은 넓고 완만한 라인의 어깨, 들어간 허리로 몸의 곡선을 강조⁸⁾했기 때문이다. 콘티넨탈(conti- nental)이란 ‘대륙의’, ‘대륙풍의’란 의미로 영국의 입장에서 유럽 대륙풍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콘티넨탈 룩은 이탈리아·프랑스·독일 등지에서 선호되는 남성 상의의 스타일을 지칭한다.⁹⁾

셋째, 1960년대 후반 우리 복장업계의 불황 타개책의 일환이란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맞춤 양복계가 이미 시도하고 있었던 비스포크 라인에서 힌트를 얻어, 우리의 독특한 신사복 라인을 만들므로써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배경을 토대로 우리의 특성에 맞고 신사복에 조화가 되는 선을 찾은 결과, 고려청자의 곡선과 만나게 되었다. 청자선이란 이름은 당시 제정위원이었으며, 대한복장기술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이순신에 의해 제안되었다. 고려청자의 유연하고 세련된 곡선이 신사복의 선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형태미에는 볼륨의 아름다움과 리듬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고려자기에는 리듬의 아름다움이 있다.¹⁰⁾ 이 리듬의 아름다움은 흐르는 듯한 선의

7) 김진식, ‘청자선이 제정되기까지’, 앞의 잡지, 1973년 7월호, p.9.

8) 田中千代, 『新·田中千代服飾事典』, 同文書院, 1991, p.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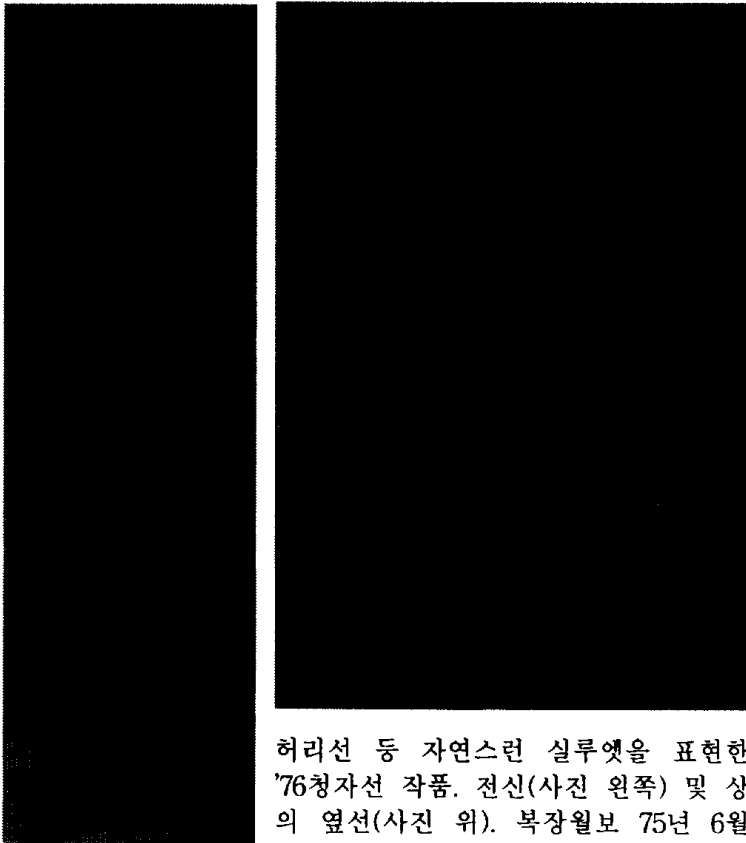
9) 조규화 외, 『복식사전』, 경춘사, 1995, p.531.

10) 고유섭, 진홍섭 편역, 『고려청자』, 삼성문화재단, 1977, p.112.

움동감으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실루엣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신사복에서의 청자선은 고려청자의 매끈하고 유연한 곡선을 상의의 거드랑이로부터 허리선을 거쳐 힙으로 내려오는 사이드 라인에 살리려 했다. 다시 말해 콘티넨탈 룩과 같이 허리선을 과장되게 강조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선을 표현했던 것이다. 어깨선 역시 자연스러우며, 앞 도련선 및 라펠의 선도 직선적인 감각보다는 청자의 유연한 곡선이 활용되었다(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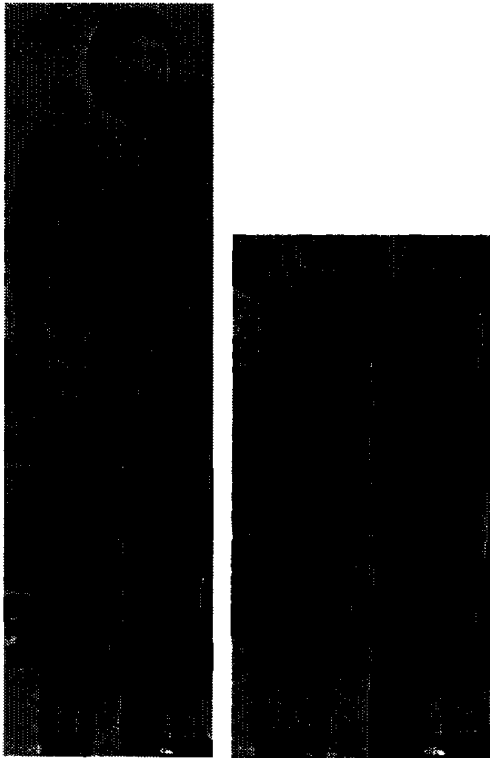
<사진 1>



허리선 등 자연스런 실루엣을 표현한 '76청자선 작품.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 옆선(사진 위). 복장월보 75년 6월호.

바지의 실루엣 또한 흐르는 듯한 청자선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사진2).

<사진 2>



바지에도 흐르는 듯한 청자선의 유연한 실루엣을 표현한 '76청자선 작품. 전신(사진 왼쪽) 및 바지 옆선(사진 오른쪽). 복장월보 75년 7월호.

요컨대, 청자선의 제정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개성과 체형에 맞춰 남성의 멋과 품위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즉 세계 경향을 바탕으로 하되, 유행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우리 고유한 선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려 한 것이다. 따라서 창의성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사실 우리에게는 독특한 선(線)이 있다. 버선이나 곡옥(曲玉)¹¹⁾ 또는 기와의 곡선이라든가, 춤사위 등이다. 고려청자의 우아한 라인 역시 그 중의 하나이다. 이같은 개성적인 선(線)의 미학이 존재하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신사복 라인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타이페이와 홍콩에서 해외 패션쇼를 통해 청자

11) 우리나라 고대에 장신구로 쓰인 굽은 구슬.

선이라는 우리 실루엣의 확산을 시도하기도 했다.¹²⁾ 86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 주문양복연맹총회 행사 때 '87청자선 패션쇼를 함께 개최하기도 했다. 87년에는 88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88올림픽 옷잔치 행사를 통해 '88청자선 작품을 발표했다. 또한 올림픽 기간 중에는 발표회를 올림픽 공원에서 가져 한국 양복의 멋을 알렸다. 이와같이 80년대에는 큰 이벤트 때마다 적극적으로 청자선 발표회를 갖는 등, 청자선의 국내외 홍보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90년대에는, 91년 8월에 서울에서 열린 세계주문복업자연맹총회 행사 때 '92청자선 발표회를 열었다. 이것은 80년대에 아시아에 청자선을 소개한 데 이어 세계 속에 한국 맞춤 양복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95년의 '96청자선 발표회는 한국 양복 100주년 기념 패션쇼란 이름으로 성대히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양복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소화 흡수하려는 청자선 제정의 정신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그러나 '93청자선 때부터 청자선 발표회란 이름이 한국맞춤양복 패션쇼란 명칭으로 바뀌었다. 맞춤 양복 확산을 위한 취지 하에 이루어진 결과였다. 그러나 긍지를 갖고 제정되었던 청자선의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행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다.¹³⁾

2. 청자선의 의미와 가치

‘스타일한국청자선’의 제정 및 작품 발표회는, 영국의 ‘브리티시 스

12) 김진식, 앞의 책, p.356.

13) 김진식, ‘청자선과 맞춤양복’, 『월간 복장』, 1993년 1월호, pp.56~57.

타일'이라든가, 미국의 '아이비 스타일'과 같이 한국의 개성적인 권역(圈域) 실루엣을 만들어 정착시키겠다는 취지 하에 탄생되었다. 이것은 한국 남성복의 세계화를 위해 기본 요건을 갖추려는 시도였다고 평가된다. 이에 앞서 '스타일한국청자선'의 제정은 양복업계의 지역간 차이를 좁히는데 기여했다. 즉 지방 신사복의 발전 및 향상을 가져온 것이다. 서울의 명동과 충무로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중식 경향에서 벗어나, 청자선이란 하나의 표준지침에 의해 전국이 고르게 상향 평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우리 미의식의 상징인 고려청자의 우아한 곡선을 신사복 실루엣에 응용하려 했던 점은, 양복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려는 자율의식의 표현이었다.

영국의 사상가인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은, “옷이란 영혼의 가장 바깥을 덮는 것이다”¹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몸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며, 정신을 담는 그릇인 몸을 싸는 옷 또한 정신을 표현하는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청자선의 제정 역시 옷이 지니는 정신성을 강조했다고 판단된다.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면만 고려해왔던 우리 양복계에, 청자선 제정을 계기로 문화로서의 의상 개념의 도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의상이란 실용적인 기능성과 창의적인 작품성이 조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식과 사상의 완전한 합일을 주장하는 청자선은, 우리나라 신사복을 패션문화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21세기는 문화 산업의 시대로, 문화의 가치가 한층 강조되고 있다.

14) 토마스 칼라일, 『의상 철학』, 을유문화사, 1963, p.113.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30여년 전에 이미 패션문화의 비전을 예견했던 청자선의 미래지향성은 그 가치를 더한다고 평가된다.

패션이란 문명의 전통성과 첨단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문화현상¹⁵⁾이라는 말에 비추어 볼 때, 전통과 비전을 갖고 시작한 청자선의 제정은 진정한 패션의 가치와 의미를 통찰했다고 분석된다.

15) 김진석, '패션문화의 수준과 과제', 앞의 잡지, 1988년 7월호, p.44.

Ⅲ. 1990년대의 청자선 변천 분석

청자선 변천 분석에 앞서, <월간 복장>에 게재된 청자선 관련 기사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월간복장>의 창간과 청자선 제정은 모두 대한복장기술협회가 한국 남성복 발전을 위해 주관한 사업으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월간복장>이 청자선 제정 내용 및 작품사진을 현재까지 상세히 게재하고 있는 유일한 문헌이기 때문이다.

‘청자선 기준 실루엣’ 제정내용은 매년 4월호 또는 5월호에 1페이지 내지 2페이지에 걸쳐 실렸다. 이같은 내용이 이후 거의 매월 반복 게재되었다.

청자선 패션쇼 작품 화보는 주로 11월호·12월호 및 1월호·2월호에 보여주었다. 그러나 제 24차 세계 주문복업자 연맹총회 패션쇼를 함께 개최했던 '92청자선 패션쇼와, 한국 양복 100주년 기념 패션쇼를 겸했던 '96 청자선 패션쇼는 10월호부터 12월호까지 게재되거나, 1월호부터 5월호까지 실리기도 했다. 작품 화보에 대한 배당은 평균 11페이지 정도였지만, 최소 5페이지에서 최대 17페이지까지 할애하는 때도 있었다.

청자선 관련 칼럼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에 걸쳐 실렸으며, 90년대 10년간 총 8건에 불과했다.

‘업계소식’에서는 ‘청자선 기준 실루엣’ 제정 내용을 게재하는 첫 달에, 제정 소식과 함께 제정 방향 등을 1페이지 정도로 간단히 언급하기도 했다. 80년대에는 거의 매번 이 기사를 실은 데 비해, 90년대에는 '91·'92·'94·'95·'98청자선의 5회에 그쳤다.

‘특선제도’ 코너에서는, 청자선 저고리의 제도를 90년에서 94년까지의 기간 동안 2~3페이지씩 게재하기도 했다.

이외에, 청자선 기준 실루엣을 과제로 실시했던, ‘이용화 제도상 및 스타일화 그리기’와 ‘한국 남성복 기술 경진대회’ 관련 공모안내 및 수상 작품도 게재했다. 이용화 제도상 및 스타일화 그리기 행사의 경우, 90년까지는 스타일화 대신에 사진 콘테스트였으나, 91년도부터 스타일화로 바뀌었다. 이 행사의 공모 기사는 93년까지는 4월호 또는 5월호에 실렸으나, 94년부터는 9월호 또는 10월호에 실렸다. 심사발표 및 수상작 제도는 다음해 1월호에 게재되었다. 수상작 제도의 게재 분량은 최소 3페이지에서 최대 12페이지까지 차지했다. 한국 남성복 기술 경진대회의 행사 안내 역시 4월호 또는 5월호에 실렸다. 수상작 화보는 8월호 또는 9월호에 실렸으며, 기사 분량은 최소 6페이지에서 최대 9페이지까지 할당되었다.

<월간 복장>의 전체 페이지 수는 90년대 초반에는 평균 158페이지로, 최대 206페이지까지 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조금씩 줄어들어 92·93·94년에는 142페이지·134페이지·126페이지 정도를 유지하다가, 90년 중반 이후부터는 110페이지 내지 102페이지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청자선 관련 기사는, 잡지 전체 페이지가 158페이지일 경우 최대 24페이지, 142페이지일 경우 최대 32페이지까지 차지할 때도 있었다.

1. 청자선에 반영된 90년대 세계 남성복 경향

1) 스타일

(1) 내추럴리즘

90년대의 자연주의 패션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90년대 초 관심이 높아졌던 에콜로지(환경 친화)에 의한 내추럴리즘이며, 또 하나는 90년대 말 남성의 해방이란 관점에서 받아들인 내추럴리즘이다. 즉 90년대에는 내추럴&소프트라는 자연스러우며 부드러운 실루엣이 주류를 이루었다.

'90S/S 파리 컬렉션에서는 세련된 에콜로지 내추럴리즘을 선보였다. 안젤로 타를라치(Angelo Tarlazzi)의 부드럽고 여유로운 실루엣의 수트가 대표적인 예이다(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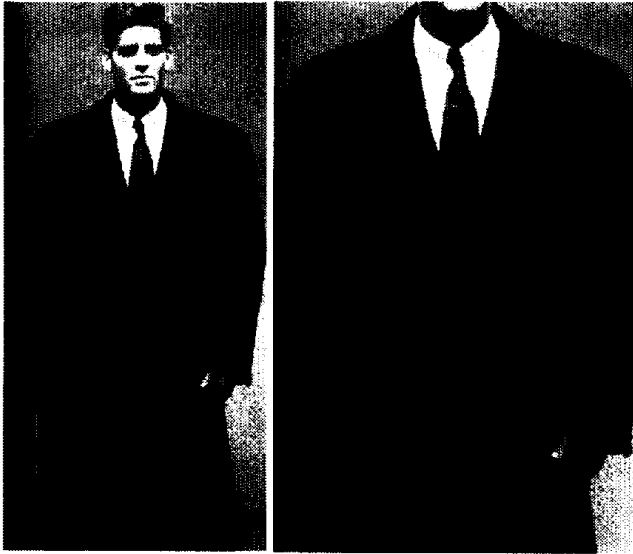
<사진 3>



부드럽고 여유를 준 내추럴리즘 수트. 전체(사진 왼쪽) 및 부분(사진 오른쪽). '90S/S 파리 컬렉션의 안젤로 타를라치 작품.

또한 '90·'91A/W 파리 컬렉션의 크리스티앙 디올(Christian Dior)(사진 4)과 밀라노 컬렉션의 돌체&가바나(Dolce&Gabbana)가 선보인 유연한 라인의 코트라든가, '91S/S 밀라노 컬렉션에 등장한 크리치아 우모(Krizia Uomo)의 재킷 등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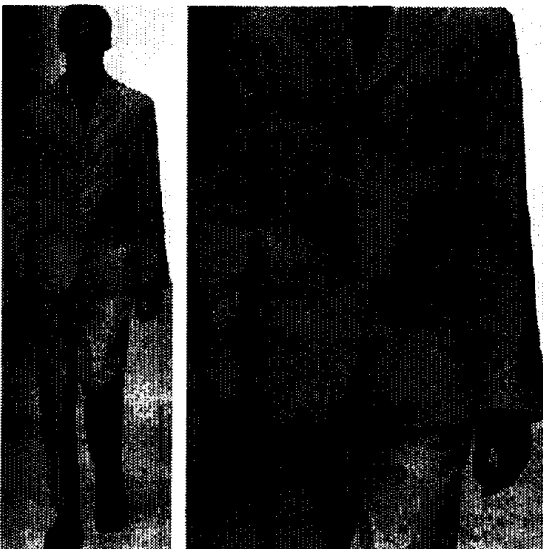
<사진 4>



유연한 라인의 내추럴리즘 코트. 전체(사진 왼쪽) 및 어깨선 등(사진 오른쪽). '90' 91A/W 파리 컬렉션의 크리스티앙 디올 작품.

'99S/S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남성의 해방이란 관점에서 내추럴리즘을 표현하고 있다. 안감이나 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수트의 형태를 유지하려 했다. 특히 가벼운 소재를 통한 자연주의의 표현이 주목을 끌었으며(사진 5), 커팅에 있어서 편안한 자연주의를 추구한 경우도 있다(사진 6).

<사진 5>



가벼운 소재를 통해 표현한 내추럴리즘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부분(사진 오른쪽). '99S/S 밀라노 컬렉션의 프라다(Prada) 작품.

<사진 6>



부드러운 컷팅을 통해 표현한 내추럴리즘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 옆선 등(사진 오른쪽). '99S/S 밀라노 컬렉션의 크리스치아 우모 작품.

자연주의 패션은, 본래 1954년부터 1955년에 걸쳐 발표되었던 아메리칸 내추럴 룩¹⁶⁾이 대표적이다. 어깨 패드를 적게 넣어 어깨선이 자연스러우며, 넓지 않은 어깨와 재킷의 옆선에 여유가 있는 헐렁한 모양새다. 이같은 스타일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유행했었다.¹⁷⁾

1950년대 내추럴 룩의 유행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밀리터리 룩 등 경직된 차림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의상심리가 깔려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자선에서는 에콜로지에 의한 내추럴리즘이 반영되었다. 특히 상의의 자연스런 어깨선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90 및 '91 청자선에 잘 나타났다. 이후 어깨가 올라간 빌드 업 스타일의 강세로 내추럴리즘이 주춤했지만, '96청자선에서 자연스런 어깨선이 다시 부활했다. 또

16) 青木英夫, 『西洋男子服流行史』, 原流社, 1994, p.152.

17) 박영철, 「한국의 양복변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pp.55~56.

한 '97청자선에서는 엘레강스 스타일에 내추럴리즘을 가미하여 청자선 본연의 유연한 곡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2) 클래시시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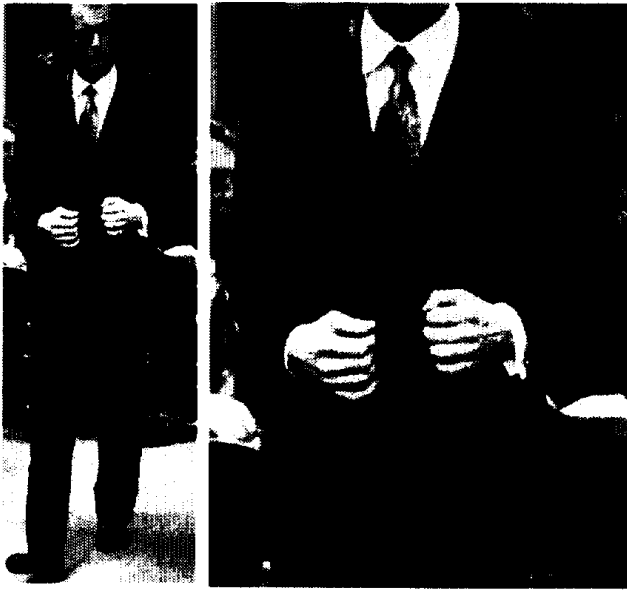
클래시시즘은 고전적 또는 전통적인 스타일로, 시대를 넘어선 가치 및 보편성을 지닌다. 하나의 유행이 정점에 이르러 포화상태가 된 후, 쇠퇴의 조짐이 보일 때 나타나는 스타일이다.¹⁸⁾ 8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유행한 빅 실루엣 스타일이 쇠퇴하면서, 심플하고 과장되지 않은 클래식 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국의 트레이디셔널 룩은 클래시시즘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영국풍 스타일은 90년대 내내 세계패션을 지배했다. '90·'91A/W 파리 컬렉션에서 겐조(Kenzo)가 선보인 영국 정통 스타일이라든가, '93S/S 파리 컬렉션에서 폴 스미스(Paul Smith)가 제안한 영국 세빌로¹⁹⁾의 비스포크(주문복)풍 스타일, 007 제임스 본드 이미지를 부상시킨 '95·'96A/W 밀라노 및 파리 컬렉션의 슬림하고 스마트한 수트 등을 꼽을 수 있다(사진 7).

18) 『服飾辭典』, 文化出版局, 1979, p.228.

19) 세빌로(Savile Row)는 영국 런던 리첸트가(街)의 최고급 주문 신사복점이 모여있는 거리다. 영국풍 스타일을 통칭 세빌로라고도 부른다. 지금의 세빌로 거리는 18세기 벌링턴 백작의 사유지였던 곳이다. 그는 자신의 땅에 집을 여러 채 지었는데, 1732년에 현재의 세빌로가 형성되었다. 세빌로란 이름은 그의 아내인 해리팩스 도로시 세빌로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우아하며 귀족 취향의 이 거리는 1733년 3월 12일자 데일리 포스트지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귀족들의 낙원이었던 이곳에 양복점이 등장한 것은 1810년부터다.

<사진 7>



007 제임스 본드 이미지
의 스마트한 클래식 수
트.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사진 오른쪽). '95
·'96A/W 파리 컬렉션
의 크리스티앙 디올 작
품.

영국 스타일인 브리티시 모델은 에드워드 7세 시대가 끝난 1910년 이후의 세빌로 옷에서 시작되었다. 이같은 브리티시 모델의 탄생은, 남성 신사복이 빅토리아 왕조 때의 화려한 차림에서 활동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의 브리티시 모델의 완성은 1925년에서부터 1935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스타일의 특징은 어깨폭이 넓고 두꺼운 실을 넣어 영국 특유의 부드러운 라인을 살리며 가슴 부분에 여유를 준다. 허리는 가슴을 살리기 위해 들어가게 하며, 힙에 걸쳐 흐르는 듯한 실루엣을 만든다. 깊은 사이드 벤트 및 3단추 싱글과 6단추 더블이 대표적이다. 바지는 여유를 준 상의의 실루엣과 연결된 라인으로, 우아하면서도 남성적인 실루엣을 형성했다.²⁰⁾

청자선에서의 클래시시즘은 영국풍의 날씬한 3단추 수트로 잘 나

20) 出石尙三, 『THE BUSINESS WEAR』, MEN'S CLUB BOOKS · 22, 婦人畫報社, 1989, p.96.

타났다. '93청자선이 대표적인 예이며, '95청자선에서는 더욱 피트된 영국풍 스타일 및 베스트를 갖춰 입는 정통 스타일이 정착되었다.

'91청자선에서 선보였던 덜 처진 깃 처짐선 역시 전형적인 클래식 스타일이다.

한편, 80년대 후반 출현한 네오 클래식(신고전주의) 스타일은 '92청자선에서 절제된 복고풍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3) 캐주얼 경향

90년대 초부터 스포티 감각을 가미한 패션 등 캐주얼화 경향이 진행되었으며, 90년대 중반이후에는 70년대에 유행했던 헤비듀티²¹⁾ 지향의 캐주얼 스타일이 다시 등장했다. 90년대식 헤비 듀티풍 캐주얼 의상은, '96S/S 파리 컬렉션에서 방수 소재 및 하이테크 가공의 신소재 사용으로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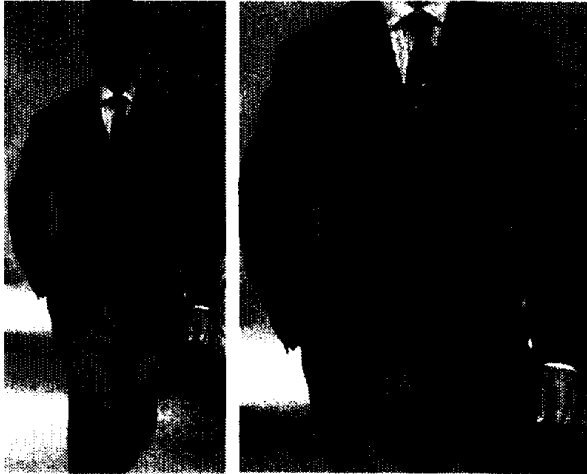
캐주얼 스타일의 강세는 수트 차림에도 영향을 미쳤다. 캐주얼풍은 우선 옷의 연출에서 나타났다. 즉 상의와 하의를 다르게 입는 세퍼레이트 스타일이라든가(사진 8), 노타이 차림을 꼽을 수 있다.

한편, '95·'96A/W 파리 컬렉션에서는 캐주얼 바지의 정형인 슬림한 스타일 팬츠가 등장했다(사진 9).

또한 조제 레비 아 파리(José Levy à Paris) 등이 선보인 아웃 포켓이 달린 재킷 역시 수트의 캐주얼화 경향이 반영된 스타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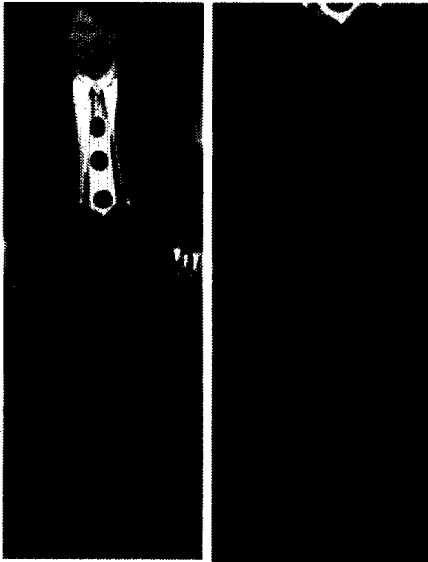
21) 헤비 듀티란 원래 '격무', '과로한 노동' 등의 뜻을 가지므로, 의상에서는 이같은 일에 견뎌낼 수 있는 튼실한 옷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다운 베스트·다운 파카·헌팅 부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진 8>



세퍼레이트 스타일. 전체(사진 왼쪽) 및 부분(사진 오른쪽). '94S/S 파리 컬렉션의 에르메스(Hermès) 작품.

<사진 9>



슬림한 바지 스타일. 전신(사진 왼쪽) 및 바지(사진 오른쪽). '95' 96A/W 파리 컬렉션의 도리스 반 노텐 (Dries Van Noten)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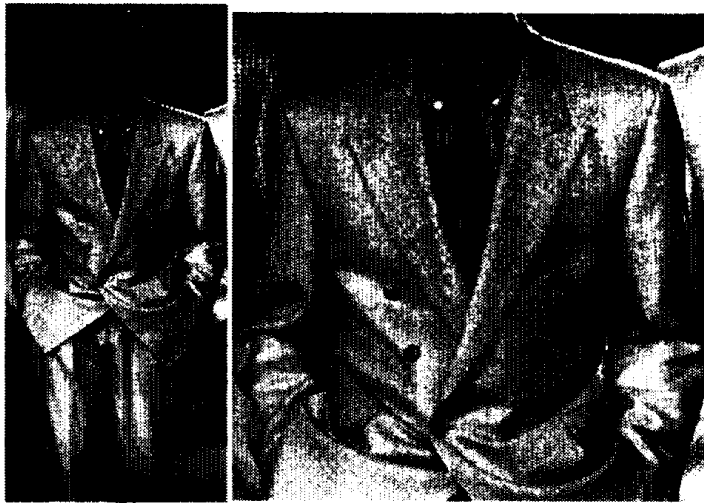
청자선에서 캐주얼 경향의 반영은 짧은 감각 차림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얇아진 V존 재킷이라든가, '93청자선에서의 짧은 길이의 재킷 및 '96청자선에서의 체인지 포켓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95 · '96청자선에서 세퍼레이트 스타일의 증가 역시 캐주얼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레트로 스타일

복고 스타일은 주로 세기말에 나타나는 현상²²⁾으로, 21세기를 앞둔 1990년대에도 강세를 보였다.

1940~50년대 스타일이 전반적으로 많이 선보였다. 40년대 룩은 넓은 어깨 및 라펠과 더블 여밈이 특징이다(사진 10).

<사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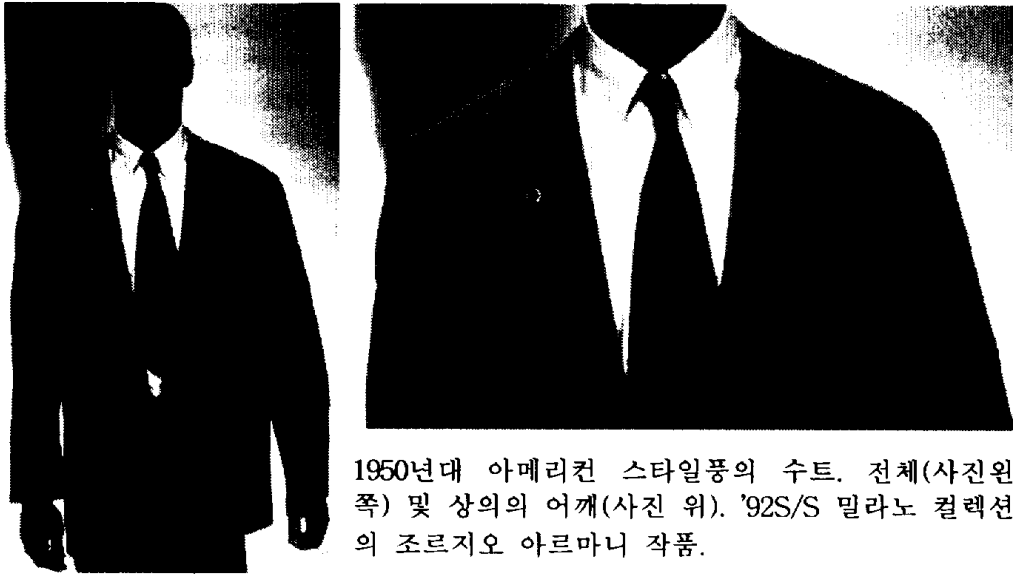
1940년대 복고풍 수트.전체(사진 왼쪽) 및 상의 어깨 및 여밈(사진 오른쪽). '90S/S 파리 컬렉션의 피에르 발망(Pierre Balmain) 작품.

1940년대에는 더블 턱시도가 등장²³⁾하는 등 더블 여밈이 강세를 보였다. 50년대 룩은 어깨선이 자연스러우며, 허리선의 액센트가 거의 없는 박스 스타일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아이비 룩이 대표적이다. '92S/S 밀라노 컬렉션은 50년대 아메리칸 스타일이 주요 테마로,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사진 11)와 바질(Basile)의 수트가 대표적이다.

22) 정연자, 「모즈룩(Mods Look)에 관한 연구」, 복식 제33호, 한국복식학회, 1996, p.197.

23) くろすとしゆき監修, 「THE FORMAL WEAR」, MEN'S CLUB BOOKS · 7, 婦人書報社, 1985, p.11.

<사진 11>



1950년대 아메리칸 스타일풍의 수트. 전체(사진 왼쪽) 및 상의의 어깨(사진 위). '92S/S 밀라노 컬렉션의 조르지오 아르마니 작품.

1920~30년대 스타일은 90년대 중반에 나타났다. 1920년대(에드워드 8세 시대)는 옷 잘입는 남성이었던 원저공이 활약한 시기로서, 현대 수트의 원형이 완성되었다²⁴⁾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년대 록은 1910년대에 이어 슬림 라인 수트가 주류를 이루었다. 좁은 것에 어깨 및 바지 너비가 그다지 넓지 않은 날씬한 모양새다. 앞 시대의 에드워드 록(에드워드 7세 시대의 스타일)을 좀더 현대적으로 만든 것이라 하겠다.

'95·'96A/W 파리 컬렉션에서는 재킷의 길이가 긴 에드워드 록이 나타났다(사진 12).

이와같이 에드워드 록을 포함한 1920년대 스타일은 90년대에 주류를 이루었던 슬림한 실루엣의 원조격으로 분석된다.

24) 落合正勝, 『ファッションは政治である』, はまの出版, 1999, p.84.

<사진 12>



에드워드인 풍의 수트. '95·'96A/W 파리 컬렉션의 올리비에 스트렐리(Olivier Strelli) 작품.

30년대 룩은 과장된 어깨 등 볼드 룩의 남성적인 라인이 강조되었다. 이같은 경향은 당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회복시키려했던²⁵⁾ 복고 바람이 패션에 미친 영향이라고 분석된다. 앞서 언급한 1940년대 룩은 1930년대 볼드 룩의 연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97S/S 밀라노 컬렉션에서 극단적인 볼드 룩을 선보였다. 즉, 어깨가 과장되게 넓고 허리선도 많이 들어간 콘케이브 라인의 재킷에, 폭과 접단 역시 매우 넓은 바지의 한 세트였다(사진 13). 콘케이브 라인이란 가운데가 움푹하게 패인 모양새로 어깨선이나 V존선 또는 허리선 등에 활용된다.

25) 이숙희, 「20세기 남성패션의 변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19권, 제3호, 1995, p.406.

<사진 13>



콘케이브 라인으로 표현된 극단적인 볼드룩. 전신(사진 왼쪽) 및 어깨와 허리선(사진 가운데) 및 바지 폭과 접단(사진 오른쪽). '97S/S 밀라노 컬렉션의 비비안 웨스트우드 작품.

이같은 콘케이브 솔더는 예전 '72청자선과 '74청자선의 영스타일에서 나타나기도 했었다. 또한 70년대 청자선 때 많이 반영되었던 콘티넨탈 룩인 넓은 어깨와 허리가 들어간 스타일 역시 '92청자선에서 절제된 90년대식 복고풍으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넓은 어깨와 웨이프 시킨 허리선, 밀단으로 갈수록 몸에 붙는 콘티넨탈 룩을 좀더 부드러운 커팅으로 완성시킨 작품들을 꼽을 수 있다.

90년대 초반의 청자선에서는 겹자락의 우세라든가, 깃 너비가 넓어지는 등 빅 실루엣계의 복고풍이 나타났다. 이같은 흐름은 '94청자선에서 30~40년대 스타일인 볼드 룩으로 그 정점을 이루었다.

한편, 90년대 후반부로 갈수록 스몰 실루엣계의 복고풍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97청자선에서 슬림&롱 스타일의 에드워드디언 룩의 완전한 정착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5) 페미니즘

90년대의 패션은 젠더리스(genderless)의 시대로, 남녀복의 성차(性差)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남성복에서는 여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91S/S 밀라노 컬렉션에서 대담한 빛깔의 수트가 선보이는가 하면, 꽃무늬 재킷도 종종 눈에 띄었다. 또한 '94S/S 밀라노 컬렉션에 선보인 지아니 베르사체의 레이스 소재 의상은, 남성복의 기존관념을 깨뜨리는 스타일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같은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은 실루엣에서 가장 많이 표출되었다.²⁶⁾ 딱붙는 실루엣이나 작고 가는 실루엣 등이 바로 그것이다(사진 14).

<사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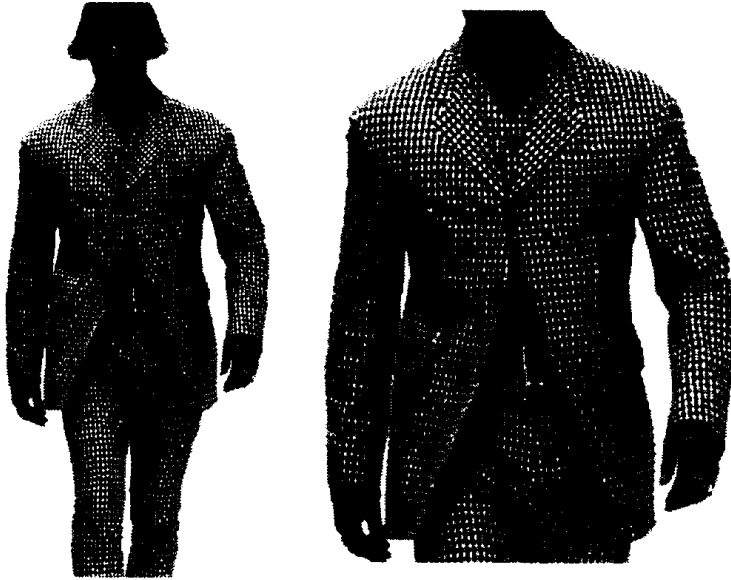
딱붙고 가느다란 실루엣의 여성적인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의 피트된 허리선 및 바지통(사진 오른쪽). '96·'97A/W 파리 컬렉션의 오즈왈드 보팅(Ozward Boateng) 작품.

26) 모현선, 「1990년대 남성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24.

이같은 실루엣은 모즈룩²⁷⁾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같은 모즈룩이 90년대에 자주 등장한 것은, 페미니즘이란 큰 흐름 때문이라고 판단된다(사진 15).

<사진 15>



모즈룩 풍의 수트.
전체(사진 왼쪽)
및 상의(사진 오른쪽). '93S/S 밀라노 컬렉션의 돌체 & 가바나 작품.

'98청자선에서 좁은 어깨 및 좁은 바지 부리 등 모즈룩의 경향을 내포한 페미니즘 스타일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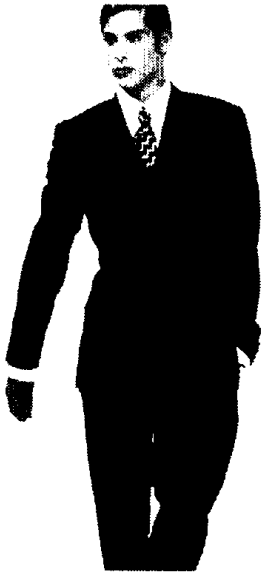
(6) 엘레강스

'95시즌과 '96시즌의 밀라노 및 파리 컬렉션에서는 주로 엘레강스 스타일이 많이 선보였다. 특히 '96S/S 밀라노 컬렉션에 선보인 돌체 & 가바나의 마피아를 연상시키는 검정 수트가 대표적이다. 쉬크하면

27) 모즈(Mods)는 모던즈의 약어인 동시에, 1960년대 모던 재즈를 좋아하는 영국 청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모즈룩은 높은 허리 라인에 피트된 긴 재킷 및 매우 좁은 바지, 꽃무늬 셔츠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다양한 색채 사용으로 여성적인 분위기를 더욱 강조한다.

서도 섹시한 이탈리아풍 엘레강스를 표현했다(사진 16).

<사진 16>



마피아를 연상시키는 엘레강스 수트. '96S/S 밀라노 컬렉션의 돌체&가바나 작품.

또한 '95·'96A/W 밀라노 컬렉션에 등장한 오스카 드 라 렌타 (Oscar De La Renta)가 보여준 솔 칼라의 수트 차림은 우아한 댄디를 연상시킨다(사진 17).

<사진 17>



우아한 댄디 스타일. 전체(사진 왼쪽) 및 상의 깃(사진 오른쪽). '95·'96A/W 밀라노 컬렉션의 오스카 드 라 렌타 작품.

한편,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흐르는 듯한 라인의 코트 역시 우아한 실루엣을 연출했다.

이외에도 '97S/S 뉴욕 컬렉션에서 휴고 보스(Hugo Boss)가 선보인 V존이 깊게 패인 1단추 재킷 및 힙과 허벅지 부분에 여유를 준 바지의 한 세트도 꼽을 수 있다. 같은 시즌 파리 컬렉션에서 프란시스코 스말토(Francesco Smalto)가 보여준 작품 역시 우아함을 잘 표현했다. 긴 재킷의 예복풍 흰색 수트가 바로 그것이다.

쉬크(chic)는 엘레강스, 스마트 등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 시기는 1830년대이다.²⁸⁾ 이 당시는 프랑스의 왕정 복고시대로, 화려한 장식의 로맨틱 패션이 유행했다. 남성복도 귀족풍이 부활하여, 어깨를 반듯하게 올렸으며 허리를 타이트하게 조인 모양새가 봄을 일으켰다. 한마디로 말쑥하게 다듬어진 스타일이었다. 이때부터 현대 코트의 모습을 갖추었던 르덴고트²⁹⁾ 역시 아래 부분에 자연스런 주름을 잡아 아름다운 실루엣을 표현했다. 이와같은 우아한 스타일이 유행하므로써, 멋의 개념은 엘레강스와 일치하게 되었다고 분석된다.

청자선에서의 엘레강스 경향은 '97청자선에 잘 나타났다. 코트의 흐르는 듯한 우아한 모양새 등을 통해 청자선의 유연한 곡선을 표현하려 했다. 또한 '98청자선에서는 댄디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세련된 엘레강스 룩을 반영했다.

28)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2, pp.33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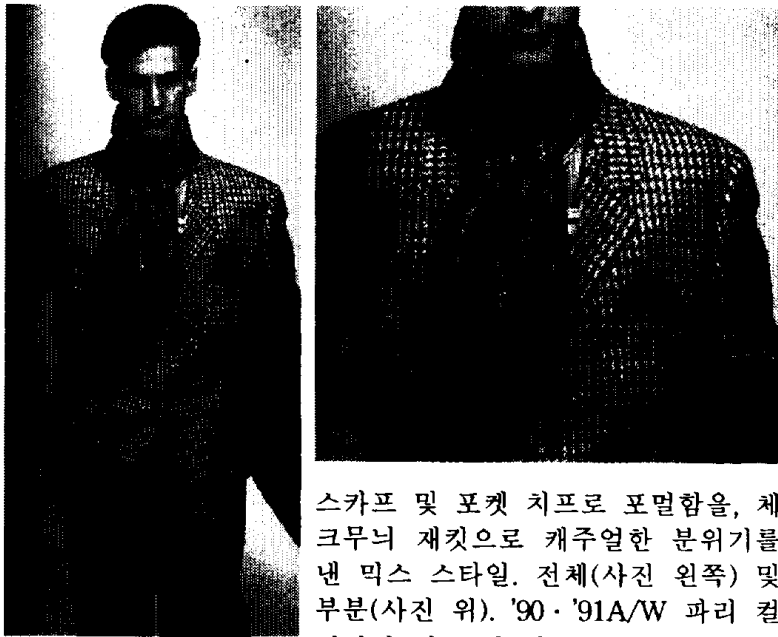
29) 르덴고트(Redingote)는 1725년경 영국에서 프랑스로 전래되어 유행한 코트다. 영국의 승마용 라이딩 코트(riding coat)가 프랑스에서 여행용 의상으로 애용되면서 명칭이 바뀐 것이다.

(7) 믹스 스타일

90년대 패션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의 요소들을 혼합시킨 융합 스타일이 새로운 아름다움의 가치로 부상했다.

'90·'91A/W 파리 컬렉션에서 생 로랑 리브 고쉬(Saint Laurent Rive Gauche)가 제안한 포멀함과 캐주얼함의 혼합 스타일이라든가 (사진 18), '93S/S 파리 컬렉션에서 폴 스미스가 선보인 모즈룩 및 세빌로풍의 주문복 스타일을 융합시킨 차림, 또는 '95·'96A/W 파리 컬렉션에서 겐조가 보여준 우아함과 스포티함을 혼합시킨 스타일이 대표적이다.

<사진 18>



스카프 및 포켓 치프로 포멀함을, 체크무늬 재킷으로 캐주얼한 분위기를 낸 믹스 스타일. 전체(사진 왼쪽) 및 부분(사진 위). '90·'91A/W 파리 컬렉션의 생 로랑 리브 고쉬 작품.

그런가하면 '96S/S 파리 컬렉션의 콤므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이라든가, '96·'97A/W 파리 컬렉션의 존 로샤(John Rocha)가 제시한 융합스타일도 파격적이었다. 특히 존 로샤는 미래 파 사이버 핑크에 비스포크 테일러드를 결합했다(사진 19).

'96·'97A/W 파리 컬렉션에서는 오즈왈드 보팅이 선보인 작품도 주목을 받았다. 캐주얼한 소재인 코듀로이로 표현한 우아한 분위기의 코트가 바로 그것이다(사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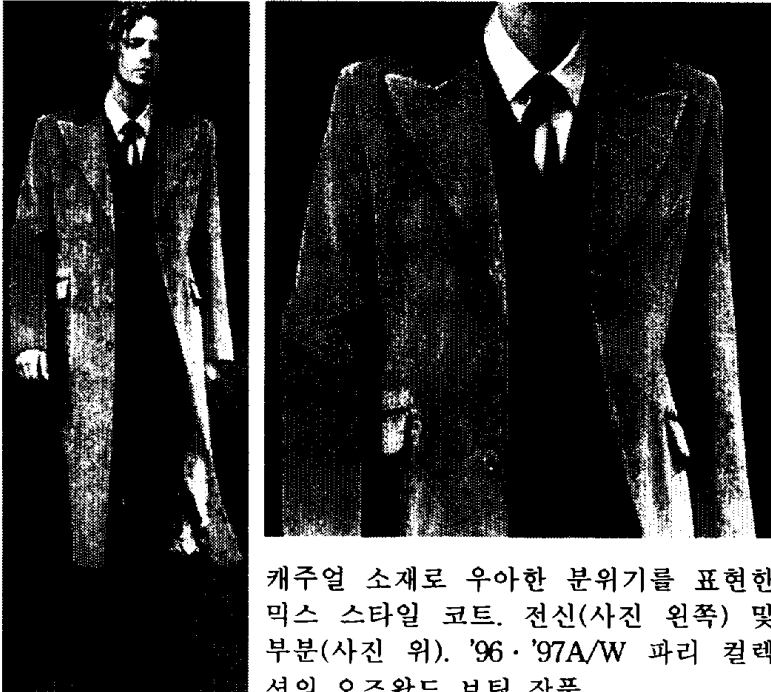
이외에도 '99S/S피렌체 컬렉션에 등장한 댄디즘과 스포츠 마인드의 융합 스타일이라든가, '99·2000A/W 파리 컬렉션에서 도리스 반 노팅이 선보인 믹스 스타일 등도 꼽을 수 있다. 도리스 반 노팅의 작품은 예전의 영국 이미지인 클래식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꾸민 차림새로,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 감각을 혼합시킨 것이다.

<사진 19>



정통 테일러드 재킷의 끝단에 비닐을 붙여, 사이버 펑크 느낌을 가미한 믹스 스타일.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 끝단(사진 위). '96·'97A/W 파리 컬렉션의 존 로샤 작품.

<사진 20>



캐주얼 소재로 우아한 분위기를 표현한 믹스 스타일 코트. 전신(사진 왼쪽) 및 부분(사진 위). '96·'97A/W 파리 컬렉션의 오즈왈드 보팅 작품.

이같은 믹스 스타일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³⁰⁾에 의한 것이다.

포스트모던이 탈 근대화를 의미하는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새로운 세계를 위한 모색의 하나로,³¹⁾ 다원화의 시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19세기의 절충주의보다 더욱 강경하며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적·이론적·사회적 맥락이 있어서 그것들이 융합되고 편성되어진다. 즉 새로운 절충주의에 의한 혼성물이 완성되는 것이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기법 가운데 하나인 콜라주는 이중 혼교성의 특징을 갖는다.³²⁾ 그러므

30) 유태순, 『패션과 여성』, 학지사, 1999, p.50.

31)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유정완·이삼출·민승기 옮김,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1992, p.7.

32) 김경린, 『알기쉬운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주변 이야기』, 문학사상사, 1994, p.104, p.183, p.191.

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절충주의·이종교배(異種交配)의 다원성이 특징으로, 하나의 양식만을 고집하는 모더니즘에서 수정 변환된 사상 체계다.

이와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혼합시키는 특성을 패션에 대입시킨 것이 90년대 패션의 믹스 스타일인 것이다.

'94청자선의 경우, 하나의 수트에서 빅 실루엣과 스몰 실루엣의 혼합이라는 믹스 스타일이 선보였다. 또한 '99청자선에서는 전통미와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혼합한 모던 엘레강스의 믹스 스타일이 잘 반영되었다. 한편, '97청자선에서는 캐주얼 소재와 우아한 실루엣과의 혼합도 시도되어 세계경향을 잘 반영했다.

2)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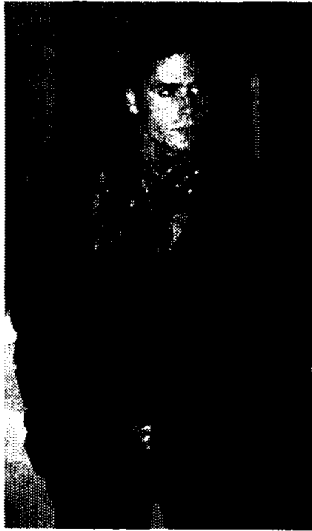
(1) 쓰리피스 수트

재킷·베스트·바지를 갖춰입는 쓰리피스 스타일은 클래식시즘 패션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같은 쓰리피스 수트는 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많이 선보이기 시작하여, 중반 이후까지 계속 강세를 보였다. 특히 '92·'93A/W 및 '93S/S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쓰리피스의 정통파 스타일이 키 아이템으로 제시되기도 했다(사진 21).

'91청자선에서 쓰리피스 스타일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95청자선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정착되었다. 정통 클래식 스타일의 진수를 잘 보여준 것이다.

<사진 21>



클래시시즘의 전형인 쓰리피스 스타일. '92·'93A/W 밀라노 컬렉션의 카날리(Canali) 작품.

(2) 오드 베스트

오드 베스트는 재킷 및 바지와 다른 천으로 만든 베스트를 지칭한다. 오드 베스트(odd vest)의 '오드'는 '우수리의' 또는 '외쪽의' 의미를 갖는다.³³⁾ 주로 화려한 천으로 만든 팬시한 베스트다. 90년대초 강세를 보였으며, 장식성을 높인 스타일(사진 22)과,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스타일(사진 23)이 함께 나타났다.

조화력이 관건인 오드 베스트의 등장은, 90년대 패션에 있어서 코디네이트 감각이 중요해지는 흐름과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91청자선에서 장식성이 강한 오드 베스트가 선보였다. 이후 베스트의 활용이 꾸준히 계속되었으며, '97청자선에서는 평상복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오드 베스트가 주목을 끌었다. 또한 깃을 달아 좀더 독특한 개성을 표현한 디자인도 발표되었다.

33) 成田典子 編, 『新ファッションビジネス基礎用語辞典』, 織部企劃, 1976, p.135.

<사진 22>



장식적인 스타일의 화려한 오드 베스트. 전체(사진 왼쪽) 및 베스트(사진 오른쪽). '90·'91A/W 밀라노 컬렉션의 지안 마르코 벤투리(Gianmarco Venturi) 작품.

<사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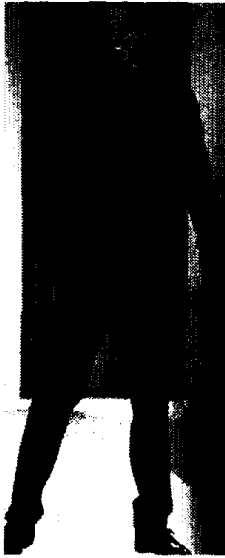


자연스럽게 결들인 수트와 동색 계열의 오드 베스트. 전체(사진 왼쪽) 및 베스트(사진 오른쪽). '90S/S 파리 컬렉션의 피에르 발망 작품.

(3) 쓰리버튼 슬림 수트

싱글 여밈의 날씬한 실루엣이 강세를 보였다. 이같은 슬림 수트의 유행은, V존 및 라펠을 좁아지게 했으며, 투버튼 보다는 쓰리버튼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24).

<사진 24>



쓰리버튼의 슬림한 수트. '97·'98A/W 파리 컬렉션의 S.T.듀퐁(S.T.Dupont) 작품.

수트의 슬림화 현상은 무엇이든 작고 간편하게 만드는 컴팩트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말해 소형주의 문화의 영향인 것이다. 한편, 여성화 경향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슬림화가 진행된 피트 스타일에서 확연히 설명되어질 수 있다.

슬림한 쓰리버튼 수트는 90년대 청자선의 중요한 경향이었다. '93 청자선 때부터 선보였으며, '95청자선에서는 더욱 피트된 스타일을 제시했다. '96청자선에서는 재킷의 길이가 길어져 날씬한 스타일이 한층 강조되었다.

(4) A라인 수트 및 코트

'93 및 '94 시즌의 파리와 밀라노 컬렉션에서 A라인 코트가 많이 선보였는데, 주로 하프 코트가 중심이었다(사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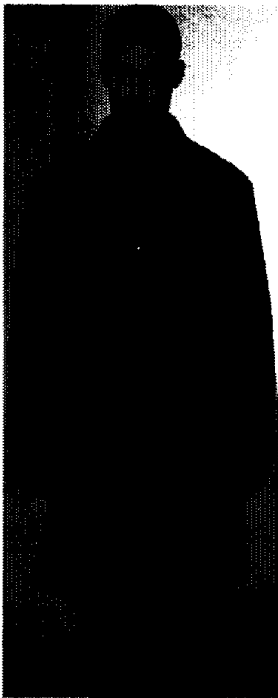
'99·2000A/W 뉴욕 컬렉션에서 니콜 파리(Nicole Farhi)의 하프 코트 역시 눈길을 끌었다(사진 26).

<사진 25>



A라인의 하프 코트. '94·'95A/W 밀라노 컬렉션의 로메오 질리(Romeo Gigli) 작품.

<사진 26>



A라인의 하프 코트. '99·2000A/W 뉴욕 컬렉션의 니콜 파리 작품.

또한 '95·'96A/W 밀라노 컬렉션의 지안마르코 벤투리, 크리치아, 빌리듀에(Bigli due), 및 피렌체 컬렉션의 발렌티노 가라바니

(Valentino Garavani)는 A라인의 수트를 선보였다. 즉 몸에 붙는 재킷과 넉넉한 스타일의 바지 차림으로, 아래쪽이 위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A라인의 삼각형 모양새를 형성한다.

수트 및 롱 코트의 경우,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A라인 실루엣은 우아한 모양새다. 따라서 엘레강스 스타일의 한 아이템이라고 분석된다. 그러나 A라인 하프 코트의 경우는 엘레강스&캐주얼의 믹스 스타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94청자선에서 A라인 하프 코트가 선보였으며, '95청자선에서 피트된 상의에 여유있는 하의를 조화시킨 A라인 수트가 등장했다. 우아한 A라인 수트의 등장은, '97청자선에서 본격적으로 선보일 엘레강스 스타일의 전조현상이었다고 판단된다.

(5) 싱글 여밈의 피크드 라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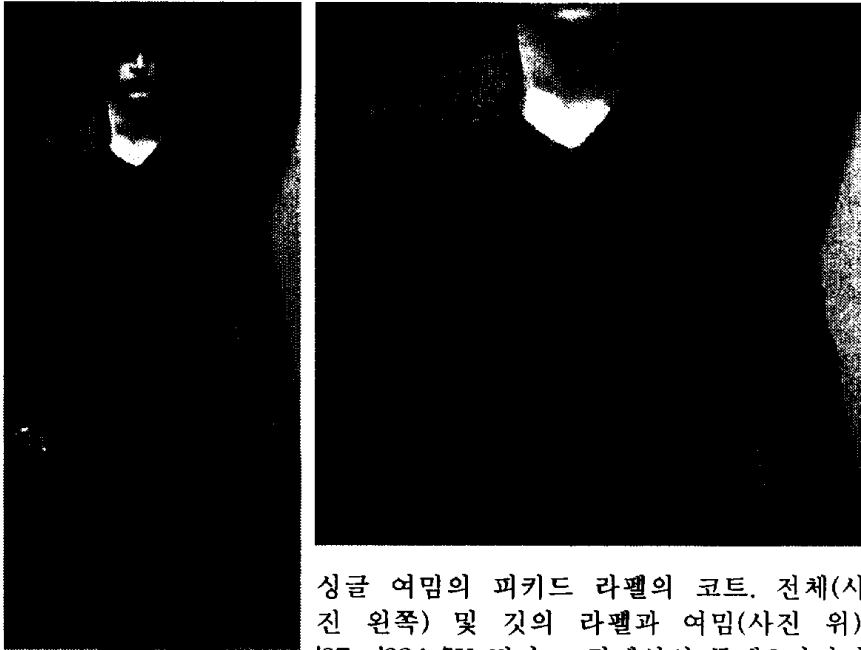
'97·'98A/W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싱글 여밈의 피크드 라펠³⁴⁾이 많이 선보였다(사진 27).

피크드 라펠은 주로 더블 여밈에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싱글 여밈의 피크드 라펠은 원칙을 탈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경향은 패션에서 고정 관념을 타파하려는 90년대 조류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99청자선에서도 싱글 여밈의 피크드 라펠 재킷을 선보여, 세계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34) 피크드(peaked)는 '뽕족한'의 의미다. 따라서 피크드 라펠이란 신사복 상의의 라펠(아래 칼라) 끝이 위를 향해 뽕족하게 예각을 이룬 모양새를 가리킨다.

<사진 27>



싱글 여밈의 피키드 라펠의 코트. 전체(사진 왼쪽) 및 깃의 라펠과 여밈(사진 위). '97·'98A/W 밀라노 컬렉션의 돌체&가바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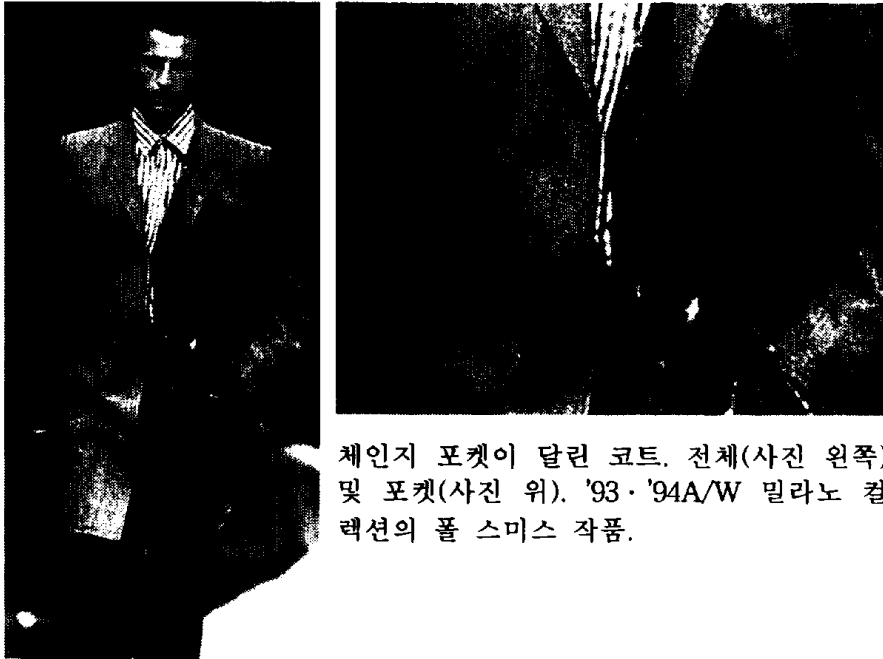
(6) 체인지 포켓

체인지 포켓³⁵⁾은 오른쪽 옆주머니 바로 위에 위치한다. 이 포켓은 모즈 스타일의 특징적인 디테일로,³⁶⁾ 모즈룩이 선풍을 일으킨 '93·'94A/W 밀라노 컬렉션에서 잘 나타났다. 모즈 룩의 선두주자 격이었던 돌체&가바나가 선보인 더블 여밈의 검정 재킷에 곁들여졌다. 또한 폴 스미스의 갈색 미니 코트에 달린 체인지 포켓 역시 눈길을 끌었다(사진 28).

35) 체인지는 거스름돈을 뜻하는 것으로, 잔돈을 넣는 용도로 달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6) 신명진, 「남성 수트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59.

<사진 28>



체인지 포켓이 달린 코트. 전체(사진 왼쪽) 및 포켓(사진 위). '93·'94A/W 밀라노 컬렉션의 폴 스미스 작품.

'96청자선을 기점으로 세련되고 자연스런 매무새의 체인지 포켓이 선보였다. 이때부터는 세퍼레이트 스타일의 재킷에 체인지 포켓이 많이 활용되어 캐주얼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체인지 포켓은 스포티하고 활달한 분위기를 강조한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7) 사이드 벤트

벤트의 사용은 본래 말에 쉽게 타기 위해 재킷에 슬릿을 만든 것이 계기가 되었다. 예전에는 재킷의 길이가 길었기 때문이다.³⁷⁾

센터 벤트가 미국 스타일로 바디 라인을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비해, 사이드 벤트는 전통적인 영국 스타일로 바디 라인을 강조한다.³⁸⁾

37)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제언(둘)', 『월간 복장』, 1990년 6월호, p.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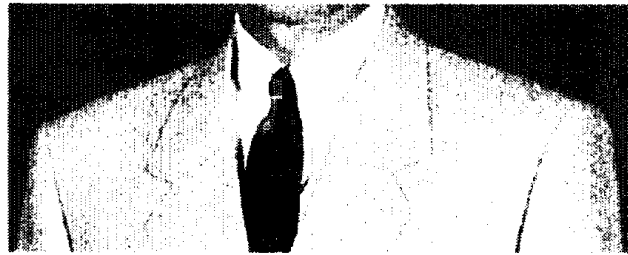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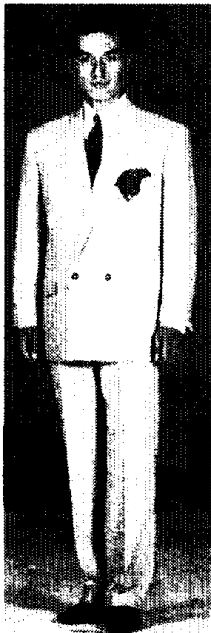
38) 남윤자·이형숙, 『남성복 연구』, 교학연구사, 2000, pp.95~96.

또한 사이드 벤트는 프랑스·이탈리아 등 콘티넨탈룩에서도 많이 활용된다.³⁹⁾ 이같은 사이드 벤트는 전통으로의 회귀라는 테마 속에서 전개된 '95·'96A/W 파리 컬렉션에서 주목을 끌었다.

'93청자선부터 '98청자선까지는 노 벤트를 기본으로 하되, 사이드 벤트도 허용하는 추세였으며, '99청자선때 이르러서는 사이드 벤트로 정하여 명시했다. 이는 청자선에서 영국 스타일을 반영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2. '90 청자 기준선

<사진 29>



전체적으로 자연스런 분위기의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소매산(사진 위). 월간 복장 90년 1월호.

1)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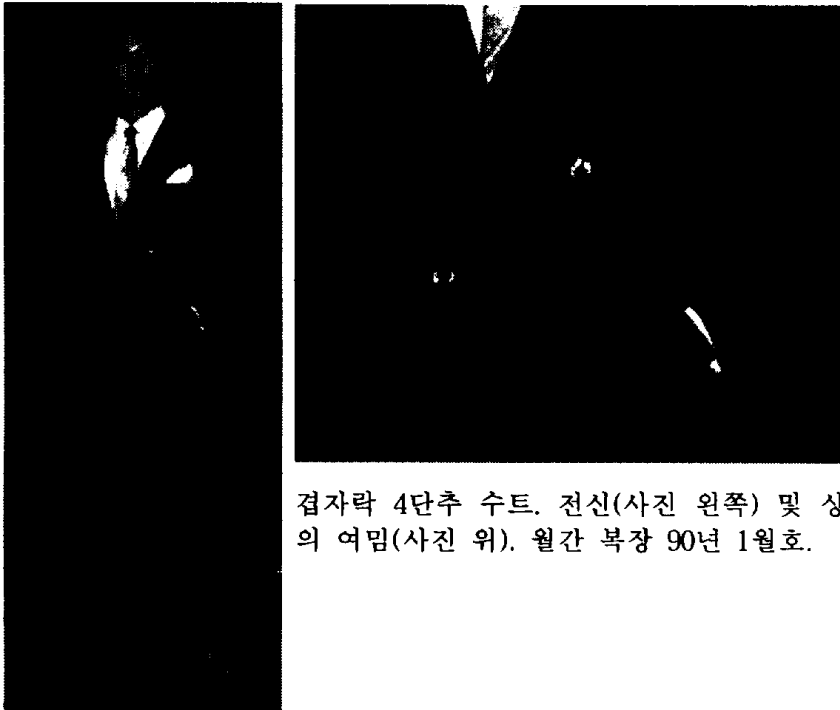
2·4·6·8단추의 겹자락 수트를 많이 선보였는데⁴⁰⁾ 이는 세계적

39) 田中千代, 「新·田中千代服飾事典」, 同文書院, 1991, p.1113.

40) '90청자선 발표회 개최, 「월간 복장」, 1989년 11월호, p.123.

인 신사복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사진 30).

<사진 30>



겹자락 4단추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 여밈(사진 위). 월간 복장 90년 1월호.

'89청자선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인 에콜로지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서서히 90년대 청자선의 특징인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스타일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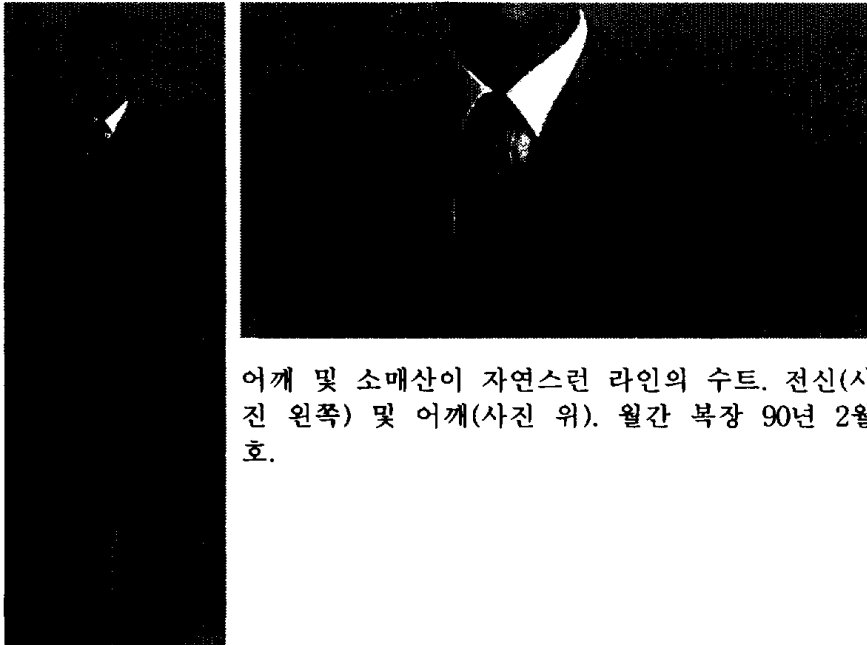
2) 상의

자연스런 어깨 및 각지지 않은 소매산 등 부드럽고 편안한 모양새를 추구했다.⁴¹⁾

자연스럽지만 약간 올린 어깨선이었던 '89청자선과는 약간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사진 31).

41) '90청자선 실루엣 제정', 앞의 잡지, 1989년 4월호, p.121.

<사진 31>



어깨 및 소매산이 자연스런 라인의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어깨(사진 위). 월간 복장 90년 2월호.

허리선의 위치 역시 예년에 비해 내려가게 하므로써 좀더 여유로운 모양새를 형성했다.

길이는 겹자락의 경우, 홑자락보다 길게 했다.

깃너비의 경우, 치수 제정의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는 8.5~9cm로 정하여 예년과 같으나, 경향 언급 기사에서는 넓어지는 추세로 명시했다. 이것은 트레이디셔널룩의 복고 경향을 반영한 것⁴²⁾으로, 앞으로의 흐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깃 처짐선을 다소 처지게 했다.

윗단추의 위치는 허리선에서 2cm 내려오게 함으로써 예년과 동일했다.

가슴주머니의 위치는 예년보다 조금 내렸다. 이같은 경향은 에콜로지 영향에 의한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 연출을 더욱 촉진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가슴 주머니의 너비는 깃너비의 삼분의 일로 하여

42) "90청자선 실루엣 제정", 앞의 잡지, 1989년 4월호, p.121.

예년과 같았다.

옆주머니의 위치는 변화가 없었다.

주머니 뚜껑의 너비는 깃너비의 3분의 2로 했다. 따라서 깃너비가 8.5cm일 경우 주머니 뚜껑의 너비는 5.6cm 정도이며, 깃너비가 9cm일 경우 주머니 뚜껑의 너비는 6cm라는 결과가 나온다.

앞도련선은 자연스럽게 돌렸는데, 이 스타일은 '89청자선부터 등장했다. 이같은 경향은 80년대 중반 이후와 비교할 때, 좀더 유연한 곡선 표현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자연주의의 영향이며, 청자선의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하겠다는 본래의 취지 역시 잘 살렸다고 평가된다.

벤트(트기)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이는 '92청자선까지 이어진다. 노 벤트(no vent)는 80년대 청자선의 영향으로, 당시는 전체적으로 넉넉하고 깔끔한 라인의 이태리풍 수트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트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의의 아래 부분이 넓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의의 아래 부분이 넓지 않은 스타일에서 트기를 하면, 튼 부분이 벌어지는 등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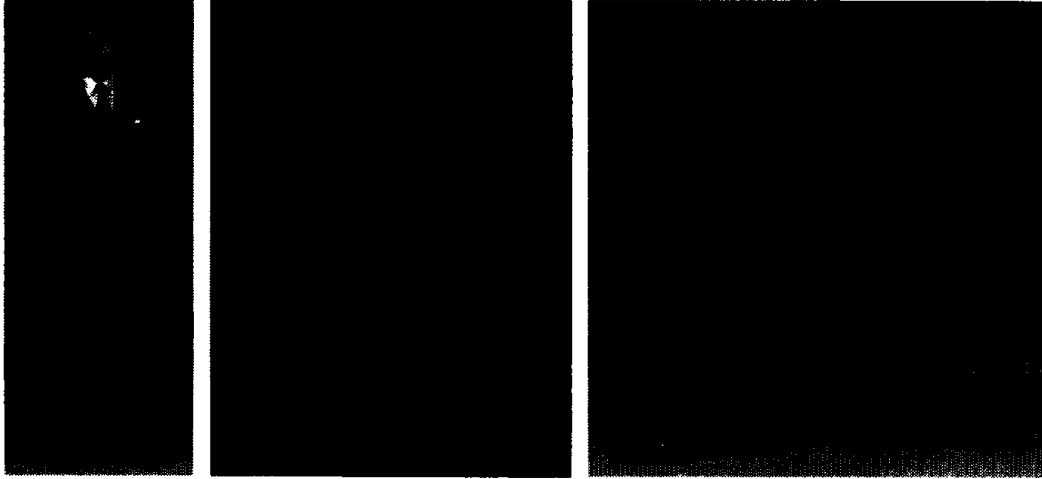
3) 하의

바지의 주름(tuck)과 접단은 필수로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바지 주름은 2개 잡았으며, 접단의 폭은 3.5cm로 했다(사진 32).

바지 주름을 2개 잡는 것은 예년과 동일했다. 일반적으로 바지 주름을 잡을 경우, 바지는 테이퍼드 스타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새다. 이같은 바지 스타일에는 상의가 여유가 있는 편이

잘 어울린다. 그러므로 '90청자선의 경우 밸런스를 잘 맞추었다고 평가된다.

<사진 32>



'90청자선에서 필수가 된 바지 앞주름과 접단. 전신(사진 왼쪽) 및 바지 주름(사진 가운데) 및 바지 접단(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0년 1월호.

접단의 폭은 80년대 후반부터 3.5cm로 좁아져, 90년대 내내 청자선 디테일 규정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접단의 유래는 20세기 초 어느 영국 귀족에 의해 비롯되었다. 그는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갔었는데, 세찬 비가 내리자 바지단을 접어 올린 채 결혼식장에 들어선 것이다.⁴³⁾ 1905년경 바지길이가 짧아진 것⁴⁴⁾ 역시 접단의 사용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같이 접단은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능성 디자인의 하나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스포츠 바지에만 활용되었으나, 영국의 원저공이 신사복에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정통 클래식 스타일로 정착되었다.

43) 落合正勝, 『男の服装術』, はまの出版, 1999, p.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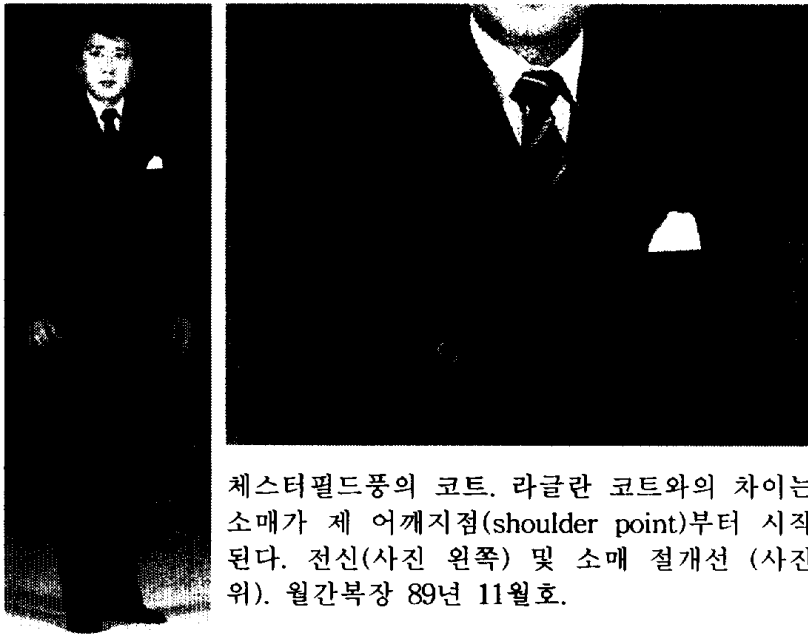
44) 조미나, 「서양 남자바지 변천에 관한 복식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52.

'90청자선에서 바지부리 너비는 22.5cm로 예년보다 0.5cm 좁아졌으며, 90년대 가운데 가장 좁았다.

4) 코트 및 예복

코트의 스타일은 체스터필드⁴⁵⁾(사진 33)와 라글란⁴⁶⁾(사진 34)을 겸했으며, 체스터필드는 클래식하게 라글란은 스포티하게 연출했다.

<사진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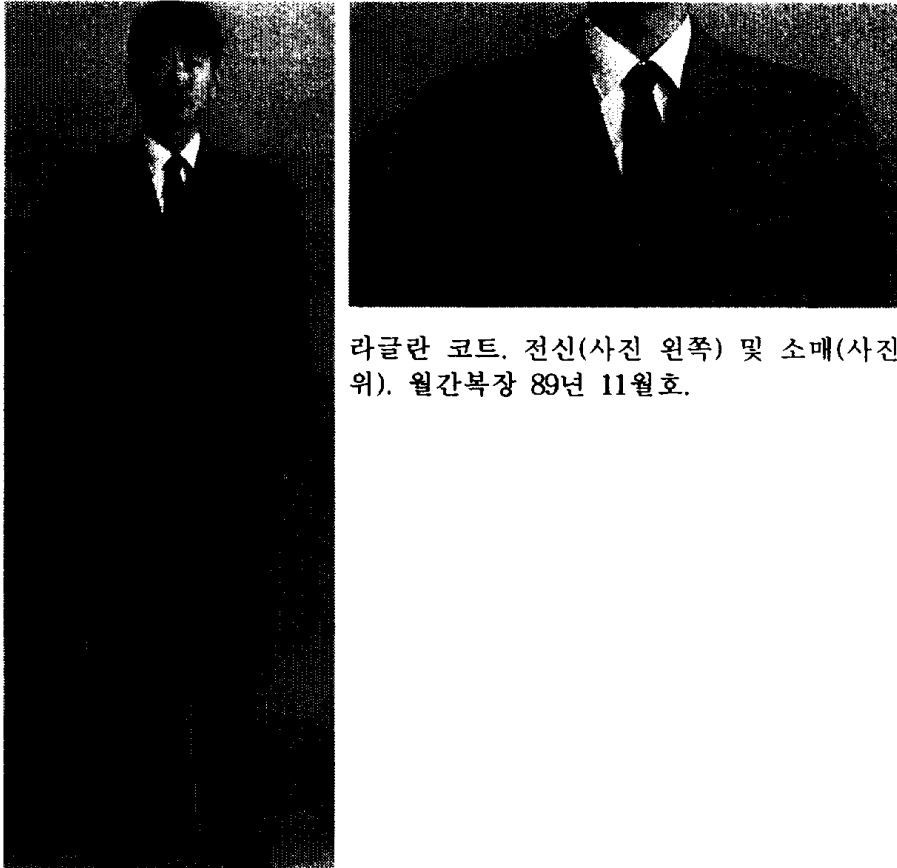


체스터필드풍의 코트. 라글란 코트와의 차이는 소매가 제 어깨지점(shoulder point)부터 시작된다. 전신(사진 왼쪽) 및 소매 절개선 (사진 위). 월간복장 89년 11월호.

45) 체스터필드 코트는, 1830~1840년대의 패션 리더였던 영국 백작 체스터 필드 6세가 최초로 입은 데서 이름이 유래한다. 몸에 맞는 듯하면서도 직선 실루엣의 코트다. 스탠드 칼라를 찢히면 노치드 칼라가 되며 검정 벨벳 칼라를 다는 경우가 많다. 192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유행했다.

46) 라글란 코트는 라글란 소매(넥라인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절개선을 넣은 소매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이 코트는 크림리아 전쟁(1853~1856) 당시 영국군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라글란 경에 의해 만들어진 방한복의 일종이었다.

<사진 34>



라글란 코트. 전신(사진 왼쪽) 및 소매(사진 위). 월간복장 89년 11월호.

코트의 실루엣은 저고리와 동일했다. 이같은 기조는 '93청자선까지 변화가 없었다. 길이의 경우, 체스터필드가 무릎선에서 20cm 아래로 예년에 비해 10cm 길어졌으며, 라글란은 무릎선에서 10cm 아래로 예년에 비해 5cm씩 길어졌다. 코트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복고풍의 조짐이라고 분석된다.

예복도 코트와 마찬가지로, 수트의 기준 실루엣에 맞추었으며 적절한 품위와 감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저고리의 실루엣에 준하는 경향은 90년대 내내 일관된 흐름이었다.

<표 1> '89청자선 기준 실루엣과 '90청자선 기준 실루엣의 디테일
부분비교

연도별 부분별	'89청자선	'90청자선
저고리길이	1/2원길이(겹자락:1/2원길이+1cm)	1/2원길이(겹자락:1/2원길이+1cm)
어깨선	자연스럽게 올림	자연스럽게
허리선	1/4원길이+5cm	1/4원길이+6cm
깃너비	8.5cm ~ 9cm	8.5cm ~ 9cm
윗단추	허리선에서 2cm처짐	허리선에서 2cm처짐
가슴주머니	1/3저고리 앞길	1/3저고리 앞길+0.5cm
옆주머니	1/3저고리 앞길	1/3저고리 앞길
주머니뚜껑너비	2/3깃너비	2/3깃너비
앞도련	자연스럽게 돌림	자연스럽게 돌림
트기	트지않음	트지않음
바지주름	앞주름 2개 넣음	앞주름 2개 넣음
바지부리너비	23cm	22.5cm
접단	폭 3.5cm	폭 3.5cm
코트	길이 - 체스터필드: 무릎선 10cm아래 라글란: 무릎선 5cm아래	길이 - 체스터필드: 무릎선 20cm아래 라글란: 무릎선 10cm아래
에폭	기준 치수 없음	기준 치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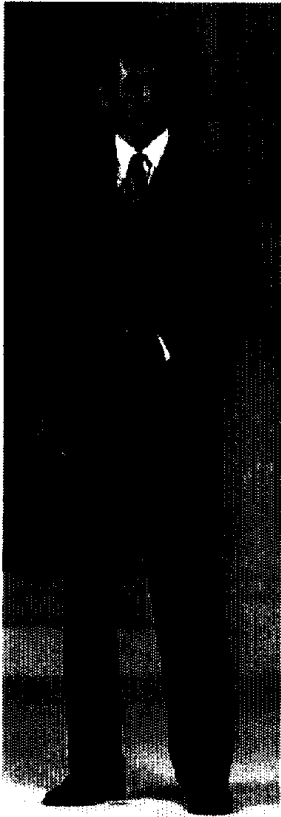
< 기준치수 >

원길이 150cm
어깨너비 46cm
가슴둘레 96cm
배둘레 83cm
소매길이 58cm
바지길이 105cm

※ 저고리 앞길은 네크 포인트에서
앞끝단까지의 길이. 이 길이는 개인의
체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일적으로
명시할 수 없음.

3. '91 청자 기준선

<사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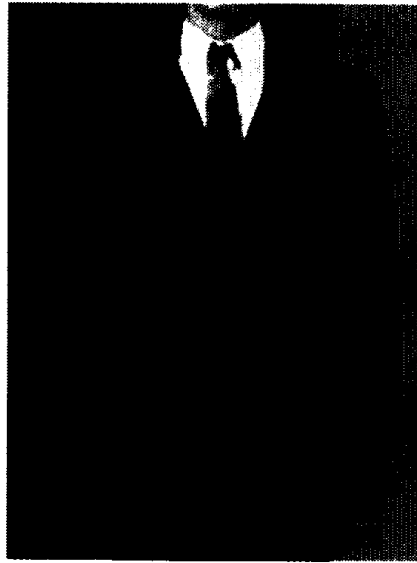
여유를 준 동시에 앞으로의 슬림 수트로 가기 전 단계의 스타일. 월간 복장 90년 11월호.

1) 경향

저고리·베스트·바지의 3갓춤 스타일이 증가되었으며(사진 36), 특히 베스트는 화려한 오드 베스트도 눈에 띄었다. 이같은 경향은 90년대 들어서면서 대담해지는 세계 남성복의 추세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된다(사진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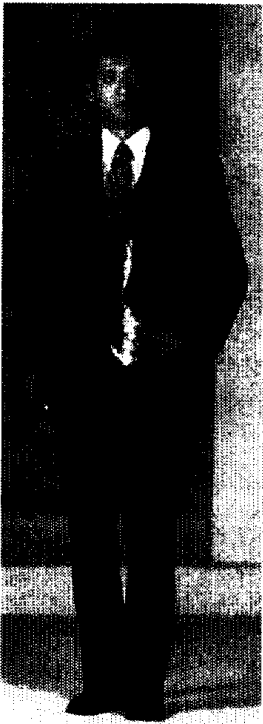
자연주의의 영향으로 여유있고 편안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허리선을 강조한다든가, 윗 단추의 위치가 올라가는 등 여러가지 디테일에서 활동미를 표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나타날 가벼운 분위기의 슬림 스타일을 준비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사진 36>



저고리·베스트·바지의 3갓춤 스타일. 전신(사진 왼쪽) 및 부분(사진 위). 월간 복장 91년 1월호.

<사진 37>



광택 소재의 오드 베스트. 전신(사진 왼쪽) 및 베스트(사진 위). 월간 복장 91년 1월호.

2) 상의

어깨선은 예년과 같이 자연스럽게 처리하여 여전히 부드러움을 강조했다.

허리선은 예년보다 1cm 올려 조이는 듯 강조하는 모양새이지만, 저고리 품에는 여유를 주었다⁴⁷⁾(사진 38).

<사진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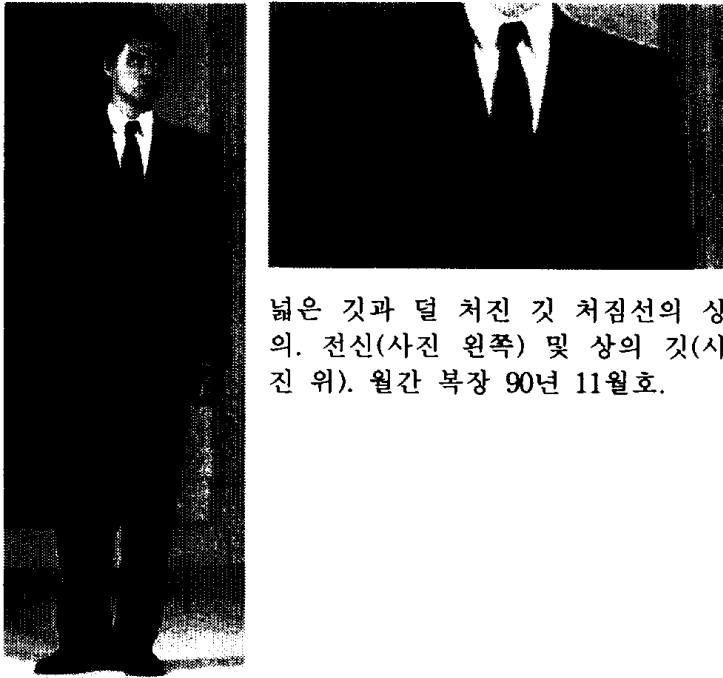
허리선이 살짝 강조된 스타일.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 허리선(사진 위). 월간 복장 90년 11월호.

저고리 길이는 홀·겹자락 모두 예년과 동일했다.

깃너비는 9cm로 정하여, 예년의 8cm에서 9cm 사이로 정했던 것보다 넓어지는 추세였다. 깃 처짐선은 덜 처지게하여 전형적인 클래식 스타일을 시도했다(사진 39). 이같은 스타일은,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1998년 북경에서 중국의 주용기 수상과 만날 때 입기도 했다.

47) '91유행스타일 제정', 앞의 잡지, 1990년 5월호, p.34.

<사진 39>



넓은 깃과 덜 치진 깃 처짐선의 상의.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 깃(사진 위). 월간 복장 90년 11월호.

한편, 윗단추의 위치도 예년보다 올라갔는데, 이것은 저고리의 V존이 얇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활동적이며 캐주얼한 컨셉으로, 90년대 패션의 캐주얼화 경향을 반영했다고 분석된다.

가슴주머니의 위치는 예년과 변화가 없었다.

옆주머니의 위치도 예년보다 2.5cm 올라갔는데 이것은 허리선이 올라간 것과 상관 관계가 있다.

주머니의 뚜껑 너비는 5cm로 하여 예년에 비해 1cm 정도 좁아졌다.

앞도련선 및 트기는 예년과 변화가 없었다.

3) 하의

주름(tuck)은 예년과 같이 2개를 넣어 슬림한 모양새지만, 허벅지와 무릎부분에는 여유를 많이 주었다(사진 40).

<사진 40>



허벅지와 무릎에 여유를 많이 준 바지. 전신(사진 왼쪽) 및 바지(사진 위). 월간 복장 91년 1월호.

바지 부리 너비는 예년과 동일했다.

바지를 최초로 착용한 것은 기마 민족이었던 스키타이인의 그림⁴⁸⁾에서 처음 입증되었다. 이로써 바지는 흑해부근 남러시아의 스키타이 문화에서 서양으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서양에 존재하던 기존의 권의(卷衣, drapery)형태의 복식과 대립되고 융합하면서 발전되었으며,⁴⁹⁾ 프랑스 혁명 이후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바지로 변천했다.⁵⁰⁾

48) 김현식, 『세계의 불가사의』, 동아출판사, 1992, p.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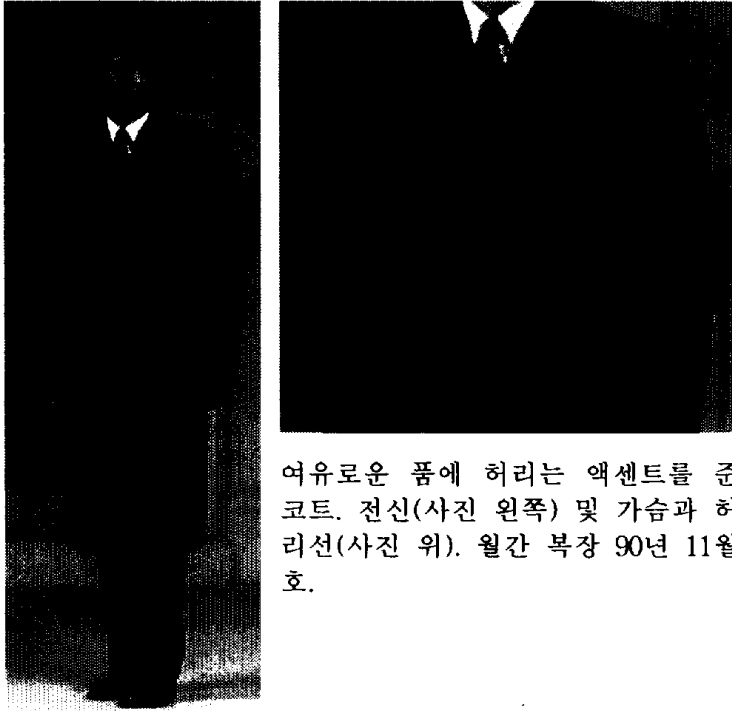
49) 조규화, 「바지의 기원 및 그 교류」, 국민대 논문집, 제16집, 1979, p.197.

50) 조미나, 「서양 남자바지 변천에 관한 복식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p.9.

4) 코트 및 예복

코트는 저고리 실루엣에 준하여 여유있게 하면서도 허리에 액센트를 주었다(사진 41).

<사진 41>



여유로운 품에 허리는 액센트를 준 코트. 전신(사진 왼쪽) 및 가슴과 허리선(사진 위). 월간 복장 90년 11월호.

코트 길이의 경우, 체스터필드는 예년과 동일하며, 라글란 코트는 지면에서 27.5cm 올라온 위치이므로 무릎에서 대략 10cm 정도 아래로 추정된다. 따라서 라글란 역시 예년과 변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같은 두가지 스타일의 코트 길이는 모두 '92청자선까지 이어졌다. 이와같이 수치상으로는 예년과 변화가 없지만, 길어지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명시했다.⁵¹⁾ 이는 '90청자선 때부터 코트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한 영향이라고 분석된다.

예복에서도 저고리 실루엣에 준하여, 조금 넉넉하지만 허리에 약간 액센트를 준 스모킹 재킷 등을 선보였다(사진 42).

51) "91청자선 실루엣 제정", 앞의 잡지, 1990년 4월호, p.134.

<사진 42>



품격있는 소재의 스모킹 재킷.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사진 위). 월간 복장 90년 12월호.

4. '92 청자 기준선

<사진 43>



절제된 복고풍 스타일. 월간 복장
91년 10월호.

1) 경향

복고풍의 중시로 겹자락이 더욱 확산되었고, 재킷의 여밈은 10cm로 다소 넓은 더블이었다.

또한 어깨·깃너비·바지부리 너비·바지 접단 등이 넓어졌다.

넓은 어깨의 겹자락 수트는 1940년대 복고풍 스타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예전의 복고 스타일과 같은 과장됨은 사라졌다.

이같은 경향은 신고전주의의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래 신고전주의(新古典主義)란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미술 사조로, 그리스·로마시대의 예술 양식을 자신들의 미술 규범에 응용시킨 것이다. 이같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18세기 전반의 로마시대 폼페이 및 헬르클라네움 유적의 발견이다. 당시 사람들은 고대 미술의 간소하고 장대한 형태미에 매료되었다.⁵²⁾ 또한 고대 그리스 시대 영웅들

52) 高階秀爾 監修, 『西洋美術史』, 美術出版社, 1990, p.122.

의 균형 잡힌 나체상이 남성미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도 했다. 이 시기에 신사복 수트 차림 역시 완성되었다(1780~1820).⁵³⁾ 따라서 신사복의 모양새가 그리스·로마시대의 간결하고 강인한 남성의 라인을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므로 신사복 수트의 원형을 ‘신고전형’이라고 부르기도 한 것이다.

이같은 신고전주의식 스타일 즉 네오 클래식 스타일이 1987년에 다시 나타나 1990년대 세계 남성복 패션을 지배하게 되었다.⁵⁴⁾ 90년대 네오 클래식 수트의 흐름은, 탄력있고 남성적인 어깨선·높은 암홀(소매산이 높아 꼭맞음)·세이프트 웨스트(많이 들어가게 한 허리선)·가늘고 길어 보이는 실루엣 등을 특징으로 한다.⁵⁵⁾

이와같이 신고전주의 본래의 정신인 남성다움과 심플함은 90년대에 잘 반영되었으며, 특히 '92청자선에서 과장됨이 없는 절제된 복고풍으로 나타났다.

2) 상의

어깨를 약간 넓게 하고 올려주는 빌드 업 스타일을 제시했다.

허리선은 다시 내려가 '90청자선 때와 동일하지만, 액센트를 준 점이 달랐다.

저고리의 길이는 1~2cm 길게 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는 추세였다.

깃너비가 넓어졌으며, 홀·겹자락의 깃 너비를 다르게 했다. 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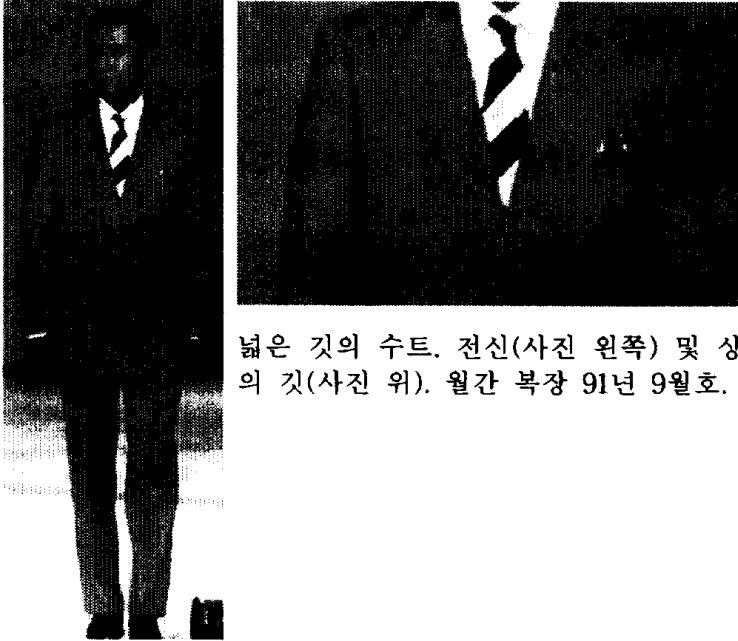
53) Anne Hollander, 中野香織 譯, 「性とスーツ」, 白水社, 1997, p11.

54) 권혜옥, 「한국 현대 남성복 유행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35.

55) '네오 클래식 수트에의 조류', 앞의 잡지, 1992년 7월호, pp.78~79.

락의 경우 홀자락보다 넓으며, 무려 10cm나 되어 90년대 가운데 가장 넓은 깃 너비를 보였다(사진 44).

<사진 44>



넓은 깃의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 깃(사진 위). 월간 복장 91년 9월호.

윗 단추의 위치는 예년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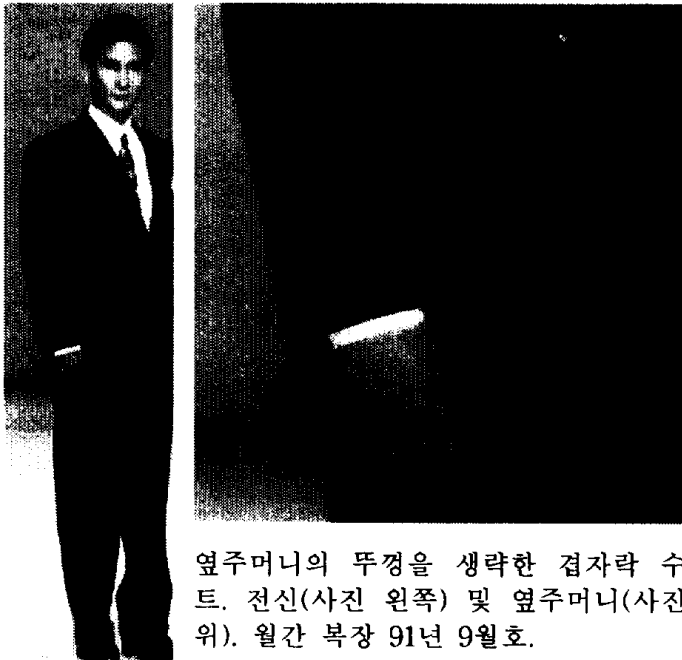
가슴 주머니의 위치가 예년에 비해 올라가므로써 강한 느낌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는 넓은 어깨 및 깃 너비와 균형을 맞추었다고 판단된다. 이 위치는 '99청자선까지 변화가 없었다.

옆주머니의 위치는 예년과 같았다.

주머니 뚜껑 너비는, 홀자락의 경우 예년과 동일했다. 그러나 겹자락의 경우는 주머니 뚜껑을 생략한다고 명시했다. 주머니 뚜껑(플랩)은 비 방지용으로 고안되었다는 설이 있듯이,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입는 예복에는 달지 않는다.⁵⁶⁾ 그러므로 주머니 뚜껑을 생략한 것은 포멀함과 심플함을 연출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사진 45).

56) '수트 디테일 디자인', 앞의 잡지, 1993년 4월호,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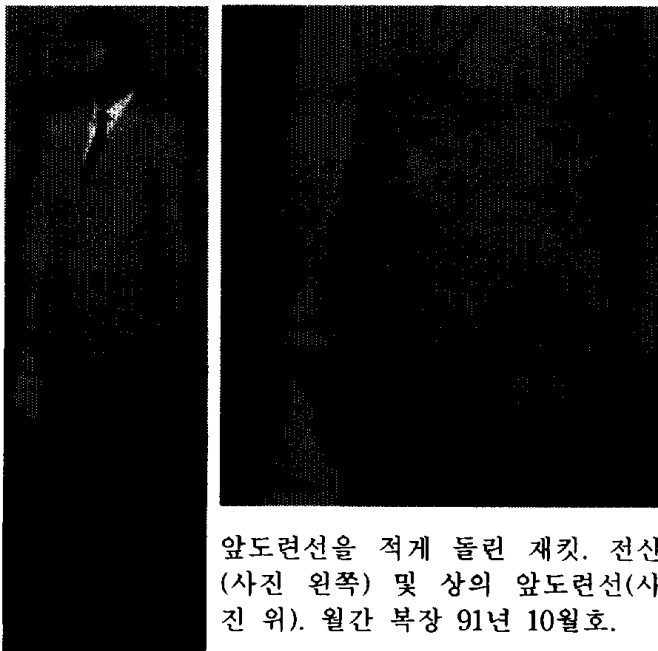
<사진 45>



옆주머니의 뚜껑을 생략한 겹차락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옆주머니(사진 위). 월간 복장 91년 9월호.

앞도련선은, 이 시기부터 약간 적게 돌렸으며, 이후 '99청자선까지 이어졌다. 이것 역시 심플한 절제주의를 잘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사진 46).

<사진 46>



앞도련선을 적게 돌린 재킷.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 앞도련선(사진 위). 월간 복장 91년 10월호.

3) 하의

바지 주름은 예년과 같이 2개로 정했다. 이 흐름은 '93청자선까지 변화가 없었다.

바지부리 너비는 23cm로 예년보다 다소 넓어졌으며, '94청자선까지 계속되었다.

바지 접단 역시 3.5cm에서 4cm까지 허용하여 예년보다 넓은 접단도 병행시켰다. 일반적으로 접단은 넓은 바지에 어울린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바지 부리가 넓어지면서 넓은 바지 접단을 허용한 점은 발란스를 잘 맞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93 청자 기준선

<사진 47>



몸에 맞는 슬림 스타일.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사진 위). 월간복장 93년 2월호.

1) 경향

'93청자선에서는 이후 90년대 내내 청자선의 중심기조가 된, 스마트한 슬림 스타일의 전형을 제시했다. 이것은 세계 패션의 큰 흐름이었던 클래식시즘의 영향이라고 분석된다.

몸에 맞는 슬림한 스타일이 부각되면서, 3단추 홀자락 수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⁵⁷⁾ 이같은 날씬한 3단추 수트는 영국의 클래식 스타일인 트레이디셔널룩으로 해석할 수 있다. 90년대 청자선은 계속해서 영국풍이 강세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슬림 스타일의 원형은, 현대 남성복이 시작되는 시점인 1910년대 영국의 신사복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의 기본 차림새가 싱글 3단추의 몸에 붙는 슬림 라인⁵⁸⁾이기 때문이다.

2) 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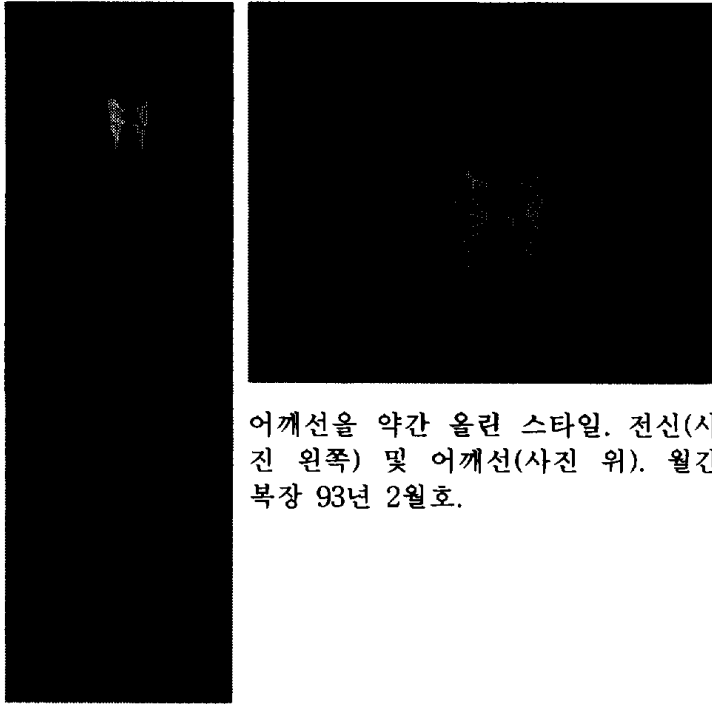
어깨선은 예년과 같이 약간 올린 점으로 볼 때, 어깨를 강조하는 복고풍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경향은 '95청자선까지 이어졌다(사진 48).

허리선의 위치는 예년보다 1cm 다시 내려가 '91청자선 때와 같아졌다. 따라서 허리선은 '90청자선 때부터 '93청자선까지 번갈아 오르락 내리락을 거듭했다. 여전히 계속되는 허리선의 액센트는, 몸에 맞는 스타일 덕분에 예년보다 더욱 살아났다고 평가된다(사진 49).

57) '93청자선 실루엣 제정', 앞의 잡지, 1992년 4월호, p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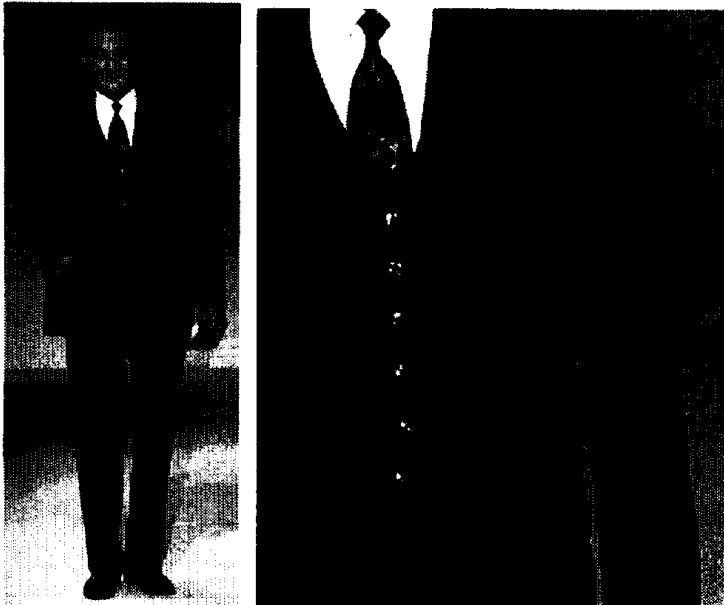
58) 出石尙三・洋一 監修, 『THE BUSINESS WEAR』, MEN'S CLUB BOOKS・22, 婦人畫報社, 1989, p.96.

<사진 48>



어깨선을 약간 올린 스타일. 전신(사진 왼쪽) 및 어깨선(사진 위). 월간 복장 93년 2월호.

<사진 49>



허리선이 더욱 살아난 스타일. 전신(사진 왼쪽) 및 허리선(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3년 1월호.

저고리 길이는 예년보다 짧아져 활동적이고 캐주얼한 경향을 반영했다.

깃 너비는 셋단추의 경우 8.5cm, 둘단추의 경우 9cm로 하여 예년

보다 좋아졌다. 이처럼 깃 너비가 좁아진 것은 슬림 스타일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추의 위치는 셋단추 가운데 두번째 단추를 허리선에 오도록 했다. 이로 인해 첫번째 단추가 예년과 비교하여 최소한 1cm 이상 올라갔다.

옆주머니의 위치는, 예년에 비해 1cm 올라갔다. 허리선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옆주머니의 위치가 올라간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콘티넨탈룩의 경우, 허리선이 들어가면서 옆주머니의 위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92청자선의 작품에서 나타났던 콘티넨탈룩의 영향이라고 분석된다.

주머니 뚜껑은 홀자락 역시 생략한다고 명시하여, 포멀&심플 스타일이 예년에 이어 더욱 강화되었다.

트기는 디테일 부분에서 종전과 같이 트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틀 경우도 허용한 점이 새로운 변화다. 80년대의 '노 벤트'시대에서 90년대의 '벤트 시대'로 들어 선 것이다.

90년대의 트기를 함께 공존시키는 흐름은 '98청자선까지 지속되었다. 여기서의 트기는 사이드 벤트다. 트기의 길이는 18cm로 중간 정도의 길이이다. 왜냐하면 사이드 벤트의 길이는 10~30cm 범위내에서 정하기 때문이다.

3) 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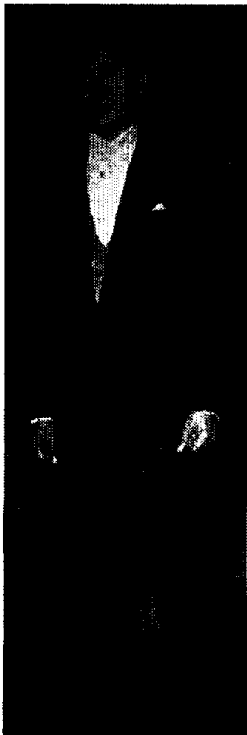
작품에서 여유를 많이 준 스타일과 슬림한 스타일이 함께 선보였다. 이같은 경향은 신사복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날씬한 스타일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분석된다.

4) 코트 및 예복

코트의 길이는 체스터필드 스타일의 경우, 무릎선에서 20cm 아래로 예년과 동일했다. 라글란의 경우는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규정 틀에 매이지 말고 작품을 자유스럽게 만들도록 하라는 의미다.

예복은 수트의 기준 실루엣에 준하여 날씬하고 깔끔한 스타일이 선보였다(사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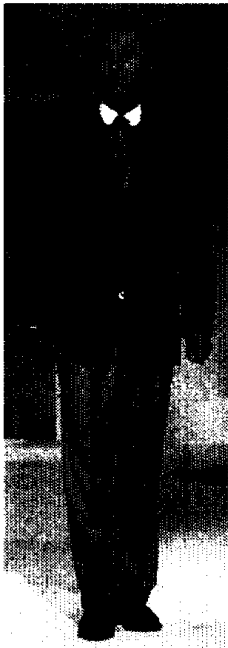
<사진 50>



수트의 기준 실루엣에 준해 만든 슬림한 디렉터즈 수트. 월간 복장 92년 12월호.

6. '94 청자 기준선

<사진 51>



슬림하면서도 볼드룩의 이미지를 풍기는 스타일. 월간 복장 94년 2월호.

1) 경향

'94청자선은 세가지 스타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스타일은 지난해와 비슷한 모양새로, 베이직하며 몸에 맞는 슬림 스타일의 3단추 수트다(사진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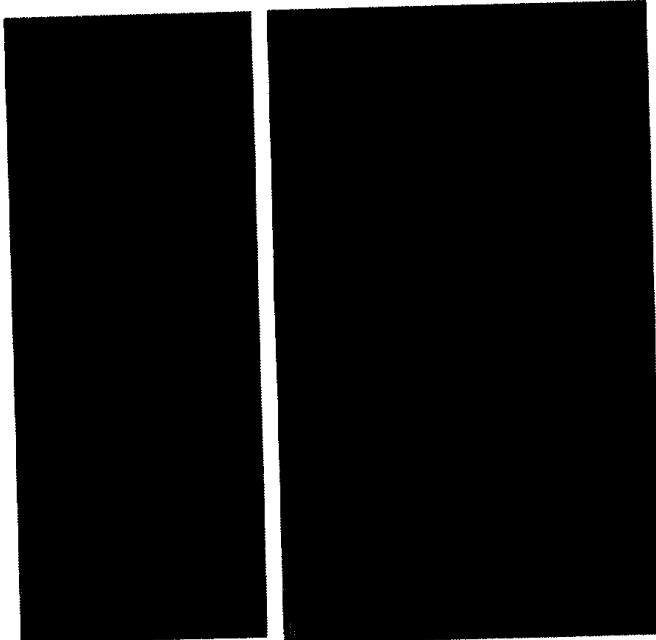
두 번째 스타일은 허리선을 살려 40·50년대 브리티시풍을 연상케 하는 실루엣이다.⁵⁹⁾ 영국에서는 1940년부터 1947년경에 걸쳐 볼드룩이 유행했다.⁶⁰⁾ 이것은 남성의 선을 강조한 스타일로, 어깨와 깃 너비가 넓고 허리를 강조했으며, 바지도 넉넉한 드레이프를 주어 상의와 조화시켰다. 미국에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개되어 1950년

59) '93·'94스타일 한국 청자선 실루엣 제정', 앞의 잡지, 1993년 5월호, p.114.

60) 青木英夫, 앞의 책, p.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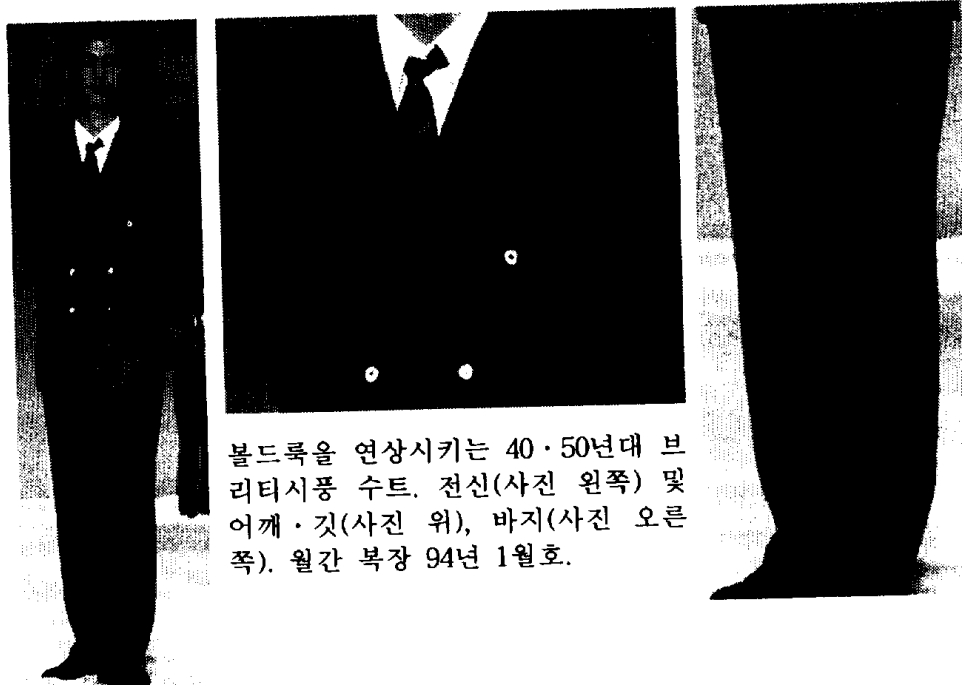
대 초 대유행을 했다.⁶¹⁾ 이같은 볼드룩은 1930년대 남성의 터프한 매력을 강조한 패션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사진 53).

<사진 52>



몸에 맞는 날씬한 3단추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옆선과 단추(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4년 3월호.

<사진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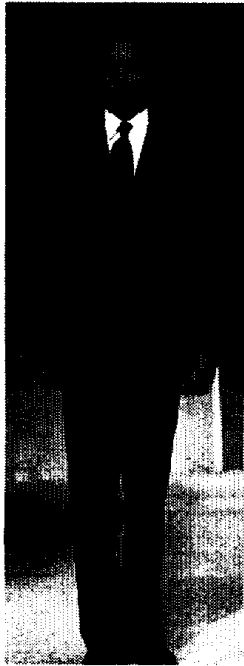


볼드룩을 연상시키는 40·50년대 브리티시풍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어깨·깃(사진 위), 바지(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4년 1월호.

61) 堀洋一 監修, 『男の服飾事典』, 婦人書報社, 1991, p.41.

세번째 스타일은 역삼각형 실루엣이다. 즉, 상의는 빅 실루엣이지만, 하의는 슬림한 스몰 실루엣이다. 즉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역삼각형 실루엣을 표현했다. 이같은 역삼각형 실루엣은 남성적인 스타일로 강한 남성상 추구의 일면을 볼 수 있다(사진 54).

<사진 54>



상의는 빅 실루엣에, 하의는 슬림한 역삼각형 실루엣. 월간 복장 94년 1월호.

T·P·O 개념의 구축 또한 키 포인트 중의 하나였다. 80년대 말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90년대 초 국내에서는 패션 감각의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⁶²⁾ 이같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복장문화의 인식에 눈뜨게 했으며, T·P·O에 맞는 의생활을 시작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류가 청자선에도 확산된 것이다.

2) 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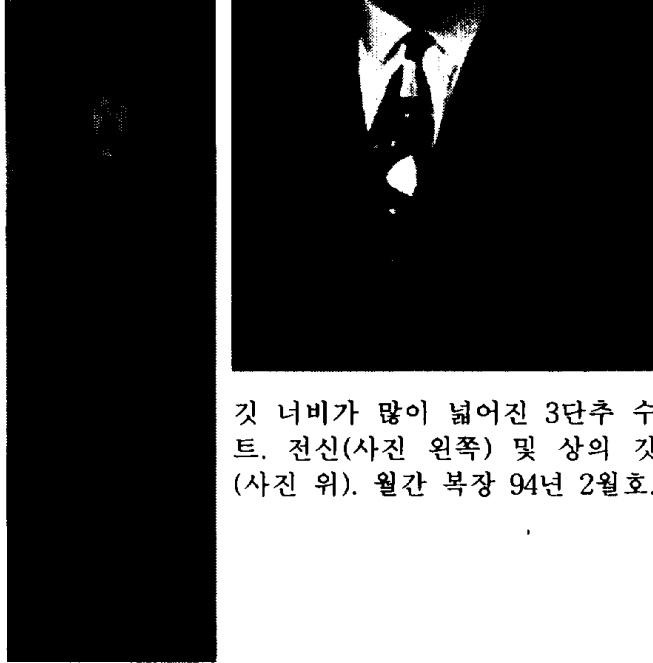
허리선의 위치는 예년과 동일하며, 허리선을 강조하여 40·50년대 풍 볼드룩의 특징을 살리려 했다.

62) 금기숙 외, 『현대 패션 100년』, 교문사, 2002, p.277.

저고리 길이는 예년과 변화가 없었다.

깃너비는 9.5cm로 정하여, 예년의 3단추 수트의 경우보다 꽤 많이 넓어졌다. 이와같은 깃 너비는 '99청자선까지 이어졌다(사진 55).

<사진 55>



깃 너비가 많이 넓어진 3단추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 깃(사진 위). 월간 복장 94년 2월호.

윗단추 즉 첫 번째 단추의 위치는 저고리 앞길(넥 포인트에서 앞도련선까지의 길이)의 가운데 지점에서 6cm 내려온 위치다. 이것은 둘 단추 저고리의 경우이므로, 예년의 셋단추 저고리 기준의 단추 위치와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옆 주머니의 위치는 예년과 동일하며, 이 경향은 '95청자선까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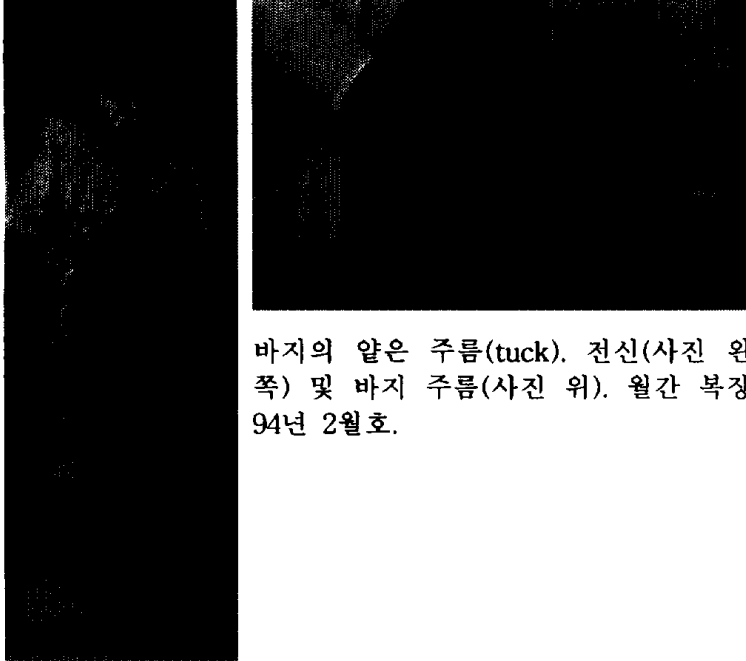
주머니 뚜껑에 대해서는 이때부터 '99청자선까지 명시하지 않았다.

3) 하의

바지 주름(tuck) 2개를 얹게 넣는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단지 바지 주름을 2개 넣는다고만 명시했던 예년까지보다 세밀해진 변화다. 주

름을 얇게 넣음으로써 슬림 스타일에 균형을 맞추었다.⁶³⁾ 이 흐름은 '98청자선까지 동일했다(사진 56).

<사진 56>



바지의 얇은 주름(tuck). 전신(사진 왼쪽) 및 바지 주름(사진 위). 월간 복장 94년 2월호.

4) 코트 및 예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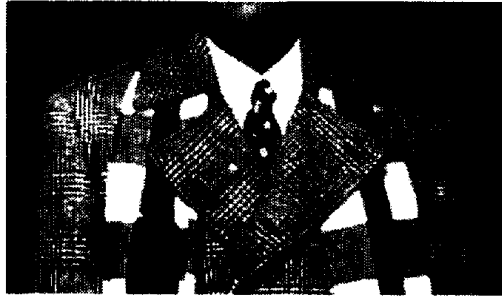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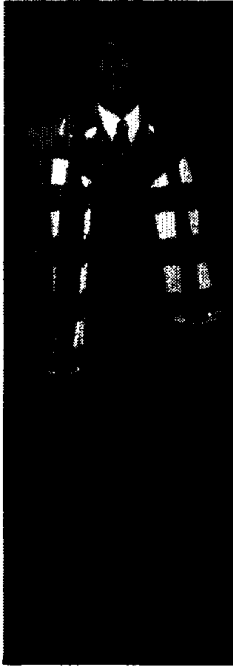
코트의 경우, 이때부터 '98청자선까지 청자 기준선 제정 내용에서 명시하지 않았다. 작품에서는 수트와 마찬가지로 볼드 룩의 영향을 받아 어깨와 깃 너비가 넓은 스타일이 선보였다(사진 57).

또한 A라인 하프 코트가 부상되기도 했다.

예복 역시 이때부터 90년대 내내 청자 기준선을 명시하지 않았다. 작품에서는 수트의 슬림 스타일 추세에 따라 좀 더 피트된 작품이 선보였다(사진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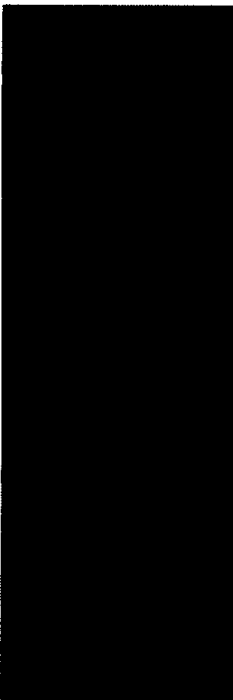
63) '93·'94 스타일 한국 청자선 실루엣 제정', 앞의 잡지, 1993년 5월호, p.114.

<사진 57>



볼드룩 영향의 어깨 및 깃이 넓은 코트. 전신(사진 왼쪽) 및 어깨 및 깃너비(사진 위). 월간 복장 94년 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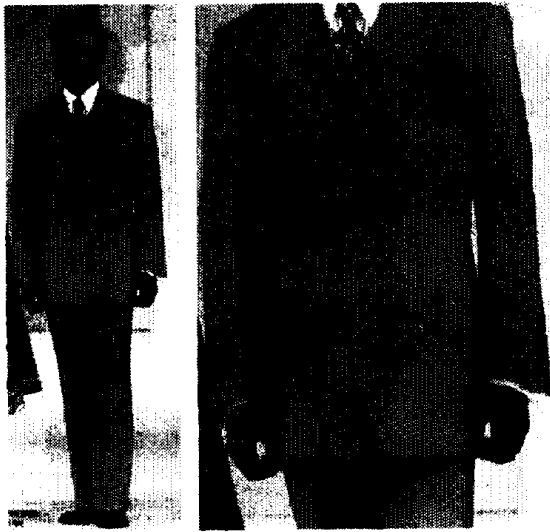
<사진 58>



좀 더 피트된 예복.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 허리선(사진 위). 월간 복장 93년 12월호.

7. '95 청자 기준선

<사진 59>



피트되면서도 재킷 길이가 길어지는 등 우아한 느낌을 강조한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의 허리선 및 길이(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5년 1월호.

1) 경향

3단추 홑자락과 함께 6단추 겹자락의 증가를 보였는가 하면(사진 60), 세빌로(영국풍)의 영향으로 몸에 많이 피트된 스타일이 제안되었다⁶⁴⁾(사진 61).

<사진 60>



6단추 겹자락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의 여밈(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5년 1월호.

64) "95청자선 기준실루엣 제정", 앞의 잡지, 1994년 4월호, p.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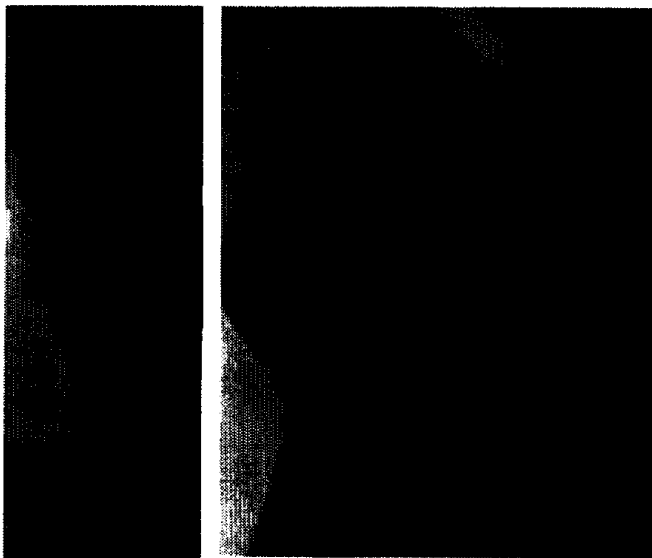
<사진 61>



더욱 피트된 3단추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의 허리선(사진 위). 월간 복장 95년 2월호.

90년대 초 세계적으로 유행한 베스트 패션의 영향으로, 청자선에서도 조끼를 갖춰 입는 3갓춤 스타일이 정착되어 갔다. 신사복 차림에 베스트를 반드시 곁들이는 스타일은 정통 클래식 스타일의 부활을 의미한다(사진 62).

<사진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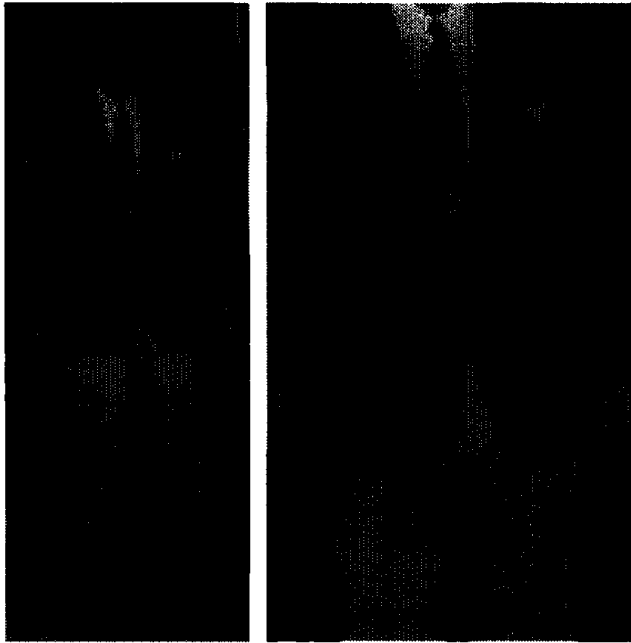


베스트를 갖춰 입는 3갓춤 스타일. 전신(사진 왼쪽) 및 부분(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5년 1월호.

남성들의 3갓춤 차림새의 등장은 17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부터 재킷(당시는 쥐스토코르로 불리움)·베스트·쿨롯(무릎길이의 반바지)을 함께 갖춰 입기 시작한 것이다.⁶⁵⁾

한편, '95청자선에서는 저고리와 바지가 다른 천으로 조화된 세퍼레이트 류(속칭 콤비 스타일)가 많이 선보였다(사진 63).

<사진 63>



세퍼레이트 스타일. 전신(사진 왼쪽) 및 부분(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5년 2월호.

이같은 세퍼레이트 스타일이 나타난 1차적인 원인은 90년대 세계 경기의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단품 구입에 집중된 점⁶⁶⁾이다.

그러나 또 한가지 중요한 원인은, 90년대부터 캐주얼화 바람에 의한 토탈 코디네이션화⁶⁷⁾로, 남성들의 차림새가 개성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데 있다. 다시말해 공감 형성(official life)에서 개성

65) 深井 子, 『ファッション・キーワード』, 文化出版局, 1993, p.113.

66) '95청자선 기준 실루엣 제정', 앞의 잡지, 1994년 4월호, p.70.

67) '93·'94 추동 남성복 패션 경향', 앞의 잡지, 1993년 3월호, p.14.

추구(private life)로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기에 ‘우모족’이라는 신생어가 생겨났다⁶⁸⁾는 점 역시 남성의 개성적인 멋 부림이 정착되어 갔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우모(uomo)는 이탈리아어로 ‘남성’이란 의미를 갖는다. 우모족은 미시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행과 멋을 찾는 30대의 결혼한 남성 그룹이다. 그들은 스포츠와 여행을 즐기며 패션을 통해 자유롭게 개성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극대화시켰다. 한마디로 90년대판 댄디인 것이다.⁶⁹⁾

이같은 국내의 사회 문화적인 기조가 뒷받침되어 청자선의 패션화가 더욱 성숙되어갔다고 평가된다.

2) 상의

허리선은 예년보다 1.5cm 차이가 나며, 90년대 청자선 가운데 가장 내려갔다.

저고리 길이가 길어졌으며, '99청자선까지 변화가 없었다. 이같은 경향은, 90년대 후반 청자선의 큰 흐름인 우아한 스타일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윗단추 및 옆주머니의 위치 역시 예년과 차이가 없었다.

트기는 스타일 부분에서도 몸의 곡선을 강조하는 사이드 벤트를 명시했다.⁷⁰⁾ 이같은 흐름은 '98청자선까지 계속되었다. 사이드 벤트는 전통적인 브리티시 스타일의 상징으로,⁷¹⁾ 90년대 청자선에서의

68) 조양래, 「신문매체에 나타난 남성복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46.

69) 손정미, '30대 기혼 개성과 남자 우모족', 『조선일보』, 1995.4.11.

70) '95청자선 기준 실루엣 제정', 앞의 잡지, 1994년 4월호, p.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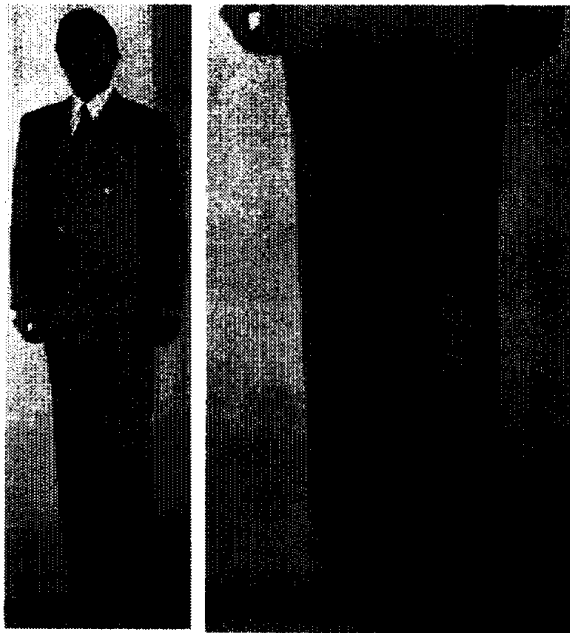
71) 남윤자·이형숙, 앞의 책, p.96.

영국풍 강세를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하의

바지 부리가 24cm로 예년보다 넓어져, 일자 바지 모양새에 근접했다(사진 64).

<사진 64>



넓어진 바지 부리. 전신(사진 왼쪽) 및 바지 부리(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5년 1월호.

일반적으로 바지 주름(tuck)이 없는 경우, 스트레이트 스타일로 바지가 일자형태를 이룬다. 이같은 이치에서 볼 때, '95청자선에서 바지 주름의 분량을 적게 잡은 것과 바지 부리를 넓혀 일자 모양새에 가깝게 한 것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로 판단된다.

저고리가 피트된 것에 비해 바지는 여유있는 스타일을 제시했다. 이것은 '94청자선 때의 빅 실루엣 상의에 슬림한 하의의 조화와 정반대의 모양새다. 이처럼 아래쪽이 상대적으로 넓어지는 경향은 예년의 A라인 하프 코트 스타일의 연장선이라고 판단된다.

8. '96 청자 기준선

<사진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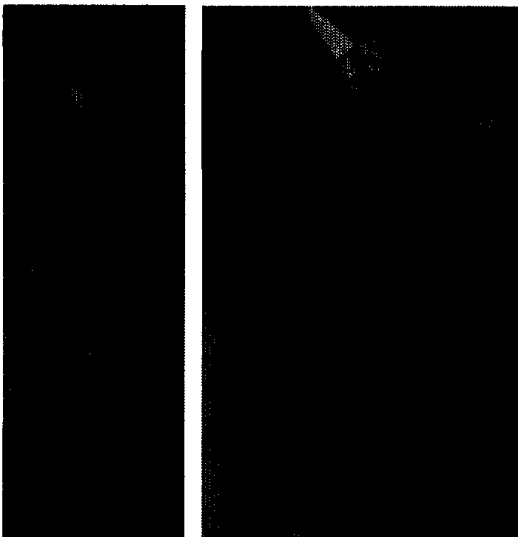


얇은 V존 및 재킷의 길이가 긴 롱&슬립 스타일.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6년 5월호.

1) 경향

예년에 이어서, 세퍼레이트류가 더욱 증가되었다(사진 66). 이것은 세계패션에 나타난 캐주얼화의 반영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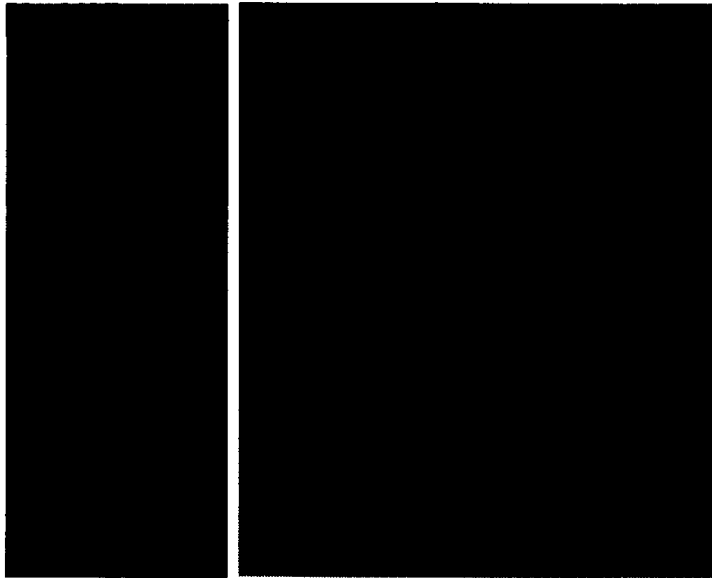
<사진 66>



더욱 증가된 세퍼레이트 스타일. 전신(사진 왼쪽) 및 부분(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6년 3월호.

3단추 홀자락뿐만이 아니라, 4단추 홀자락이 제시된 것도 '96청자선의 특징이다(사진 67). 단추 수의 증가는 V존이 알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같은 경향은 젊은 감각의 도입을 뜻한다. 또한 6단추 겹자락 역시 예년에 이어 계속 제시되었다.

<사진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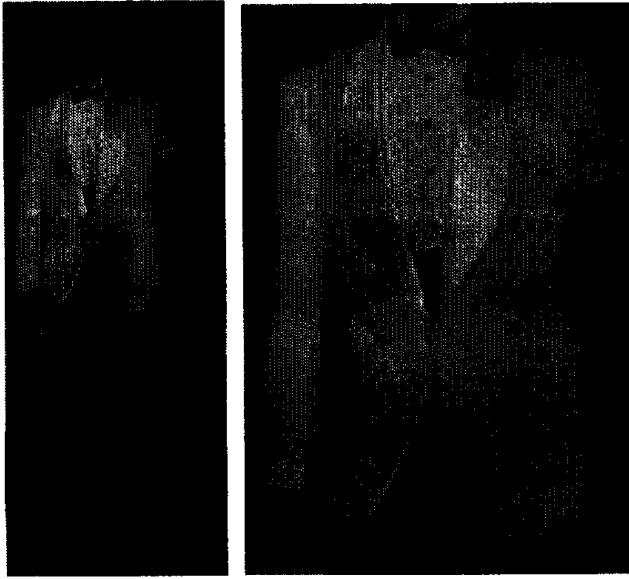
4단추 홀자락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 단추(사진 오른쪽). 월간복장 96년 3월호.

'96청자선은 수치상으로는 허리선 및 옆주머니가 약간 올라간 것이외에는 예년과 동일한 흐름을 나타냈다. 그러나 '95청자선의 피트감에 부드러움을 가미하고 있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 하겠다. 즉, 청자선의 유연한 곡선미를 날렵한 피트감으로 더욱 살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사진 68).

디테일한 디자인에 있어서는 체인지 포켓을 달은 저고리가 많이 선보였다. 종전의 체인지 포켓이 달린 매무새 보다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고 평가된다(사진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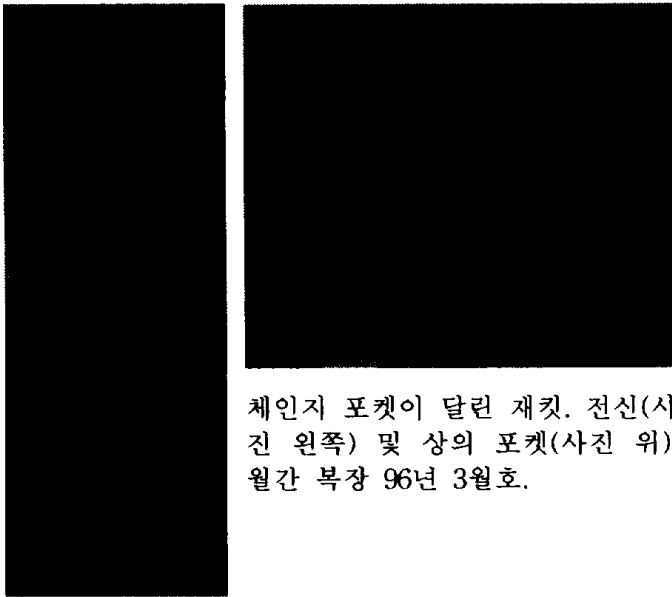
체인지 포켓이 달린 재킷은 좀더 활달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패션의 캐주얼화 현상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진 68>



칭자선의 유연한 곡선미와 날렵한 피트감이 조화된 상의.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 옆선(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5년 12월호.

<사진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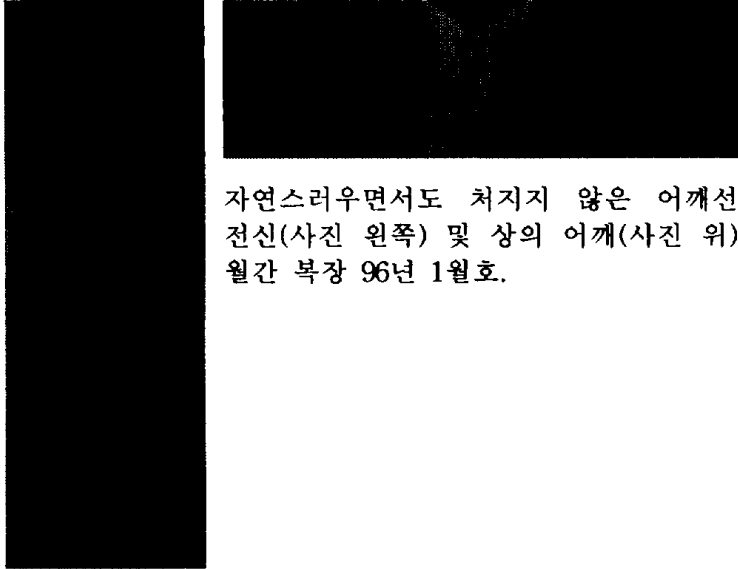
체인지 포켓이 달린 재킷.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 포켓(사진 위). 월간 복장 96년 3월호.

2) 상의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변화했다. 이것은 자연주의 성향을 띤 베이직 스타일이 여전히 세계 패션을 주도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어깨 끝 부분은 처지지 않게 하여 신사복의 단정한 남성미

를 표현했다. 이같은 어깨선의 모양새는 '99청자선까지 유지됐다(사진 70).

<사진 70>



자연스러우면서도 처지지 않은 어깨선.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 어깨(사진 위).
월간 복장 96년 1월호.

허리선은 예년보다 0.5cm 올라갔다.

저고리 길이의 경우, 디테일 부분의 수치상으로는 예년과 변화가 없지만, 스타일 부분에서는 길어지는 것으로 명시했다.⁷²⁾ 이것은 앞으로의 룡&슬림 스타일의 세계적인 경향을 예고한 것이다.

윗단추의 위치는 명시하지 않았으며, '97청자선까지 계속되었다.

옆주머니의 경우, 예년보다 0.5cm 올라갔다. 이것은 허리선이 0.5cm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 이같은 옆주머니의 위치는 '99청자선까지 계속 이어졌다.

3) 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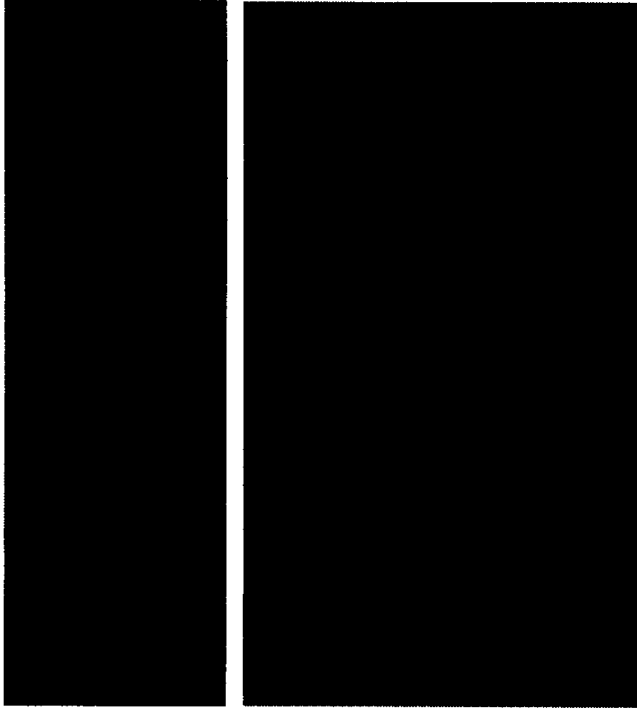
바지 주름은 앞게 2개, 바지부리 너비는 24cm로 하여, 예년과 변화가 없었다. 이같은 흐름은 '97청자선까지 계속되었다.

72) "96청자선 기준 실루엣 제정", 앞의 잡지, 1995년 4월호, p.85.

4) 예복

예복에서도 편안한 자연주의의 분위기를 뚜렷하게 선보였다(사진 71).

<사진 71>



내추럴풍의 연미복. 전신
(사진 왼쪽) 및 상의(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6년 4
월호.

9. '97 청자 기준선

<사진 72>



엘레강스한 차림새. 전신(사진 왼쪽) 및 부분(사진 위). 월간 복장 97년 1월호.

1) 경향

신체의 곡선을 살리는 슬림한 실루엣이 계속 유지되면서, 홑자락 3단추이외에 4단추 및 5단추까지 대두하게 된다(사진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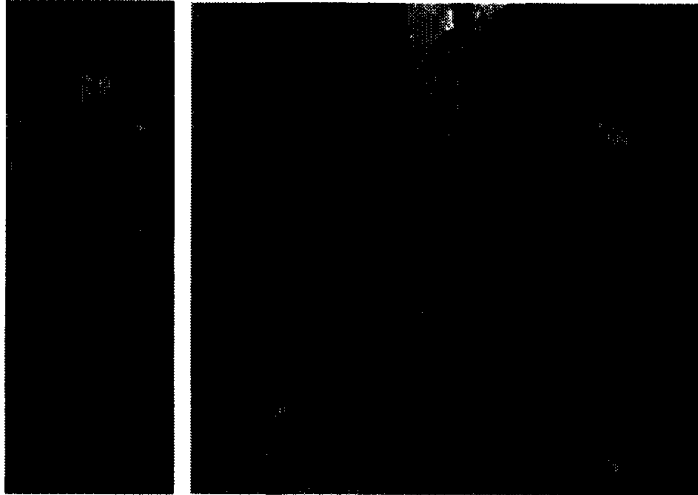
<사진 73>



5단추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의 단추(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7년 2월호.

'97청자선에서는 베스트의 활용도 꾸준히 선보였다. 특히 깃 달린 베스트가 눈에 띄었다. 깃 달린 베스트는 19세기풍 스타일이다(사진 74).

<사진 74>



깃 달린 베스트 차림.
전신(사진 왼쪽) 및 베
스트의 깃(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6년 11월호.

이 시기부터 엘레강스 스타일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세계 패션 경향이 95년 겨울을 전환점으로 하여, 우아하고 고급스런 스타일로 변화⁷³⁾한 것과 연관성이 있다. 엘레건트의 원래 의미는 '주의 깊게 골라내는'이다. 손님은 만드는 이를 신중하게 고르고, 만드는 이는 손님을 주의 깊게 고른다. 다시말해 숨씨 좋은 장인과 손님의 아이디어가 결합함으로써 엘레강스는 탄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엘레강스란, 특정한 개개인의 자기다움이다.⁷⁴⁾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엘레건트한 요소는 맞춤 양복의 핵심이며, 우아함을 기조로 한 '97청자선이 맞춤복의 본질에 더욱 접근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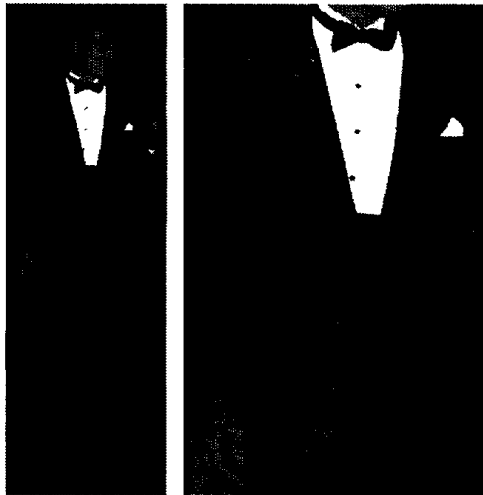
'97청자선의 엘레강스 스타일은, 90년대 초부터 지속되었던 자연주

73) '엘레강스로 회귀하는 96년 남성복 경향', 앞의 잡지, 1995년 5월호, p.70.

74) 오치아이 마사카츠, 이유정 옮김, 『옷 잘 입는 남자에게 숨겨진 5가지 키워드』, 나무와 숲, 2002, p.83.

의의 부드러운 실루엣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청자선의 유연한 곡선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했다고 판단된다. '96청자선과 비교한다면 피트감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양새로 청자선의 우아함을 표현하고 있다(사진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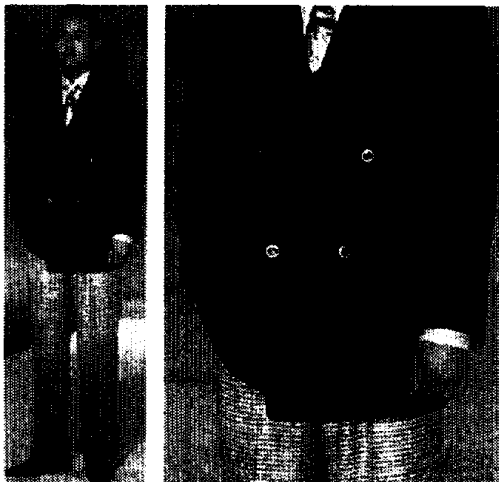
<사진 75>



피트감보다 자연스런 우아함으로 청자 라인을 표현한 차림.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6년 12월호.

한편, 우아한 연출을 하면서도 캐주얼한 소재를 사용하는 등 정장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개성 추구의 시도가 선보이고 있다.⁷⁵⁾ 이것은 일종의 믹스 스타일이라고 분석된다(사진 76).

<사진 76>



트위드 소재 상의 및 체크 바지의 캐주얼한 이미지와 더블 여밈 및 포켓 치프 등 우아한 스타일이 조화된 차림, 전신(사진 왼쪽) 및 부분(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6년 11월호.

75) "97청자선 기준 실루엣 제정", 앞의 잡지, 1996년 5월호, p.45.

요컨대 '97청자선의 특징은 1950년대 엘레강스를 기본으로한 현대화된 엘레강스룩을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상의

어깨선과 허리선의 위치는 예년과 변화가 없었다.

저고리 길이의 경우, 디테일 부분의 수치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예년에 이어 스타일 부분에서는 길게 명시했다.⁷⁶⁾

이같은 슬림&롱스타일은 에드워드연룩의 반영이라고 분석된다. 에드워드연 룩은 맨디로 불리는 영국왕 에드워드 7세(재위 1901~1910)가 입었던 남성복 스타일을 가리킨다. 즉 앞단추의 위치가 매우 높고 가느다란 실루엣의 신사복이다.

에드워드 7세는 프록 코트(Frock Coat)⁷⁷⁾도 유행시켰다. 또한 에드워드 7세는 요즘의 모닝 코트와 줄무늬 바지 차림의 예복을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즉 검정색 캐시미어 소재의 홑자락 4단추 저고리와 줄무늬 바지 차림을 입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품위있는 스타일을 입을 줄 알았던 에드워드 7세의 패션은, 현대에도 우아함을 제시하는 키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다.

3) 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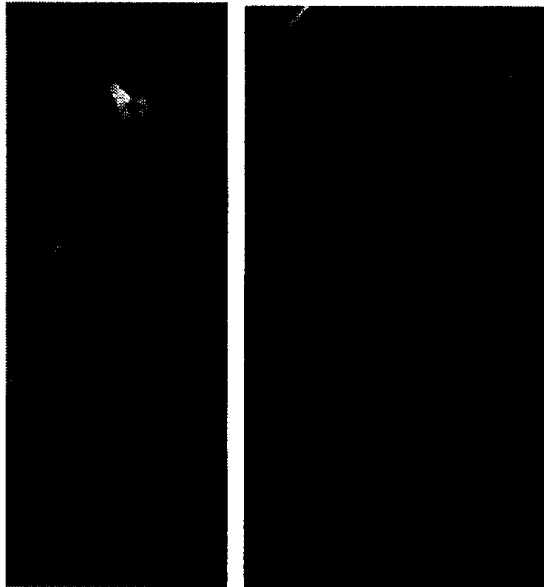
바지 부리 너비는 디테일 부분의 수치상으로는 24cm로 명시하여 예년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스타일 부분에서는 전체 바지통을 아래로 갈수록 1~1.5cm 정도 좁아지게 명시했다. 이것은 세계 패션이

76) '97청자선 기준 실루엣 제정', 앞의 잡지, 1996년 5월호, p.45.

77) 잘룩한 허리선과 무릎길이를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19세기부터 20세기초에 걸쳐 남성들이 낮에 입었던 예복이었다.

슬림 스타일의 경향을 띄었던 것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된다. 바지 길이도 스타일 부분에서 다소 짧게 제시하고 있다⁷⁸⁾(사진 77). 이같은 흐름은 캐주얼한 요소의 가미를 뜻한다. 왜냐하면 활동적인 스타일이 특징인 아이비 룩에서 바지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이다.

<사진 77>



다소 짧은 바지 길이. 전신(사진 왼쪽) 및 바지(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6년 1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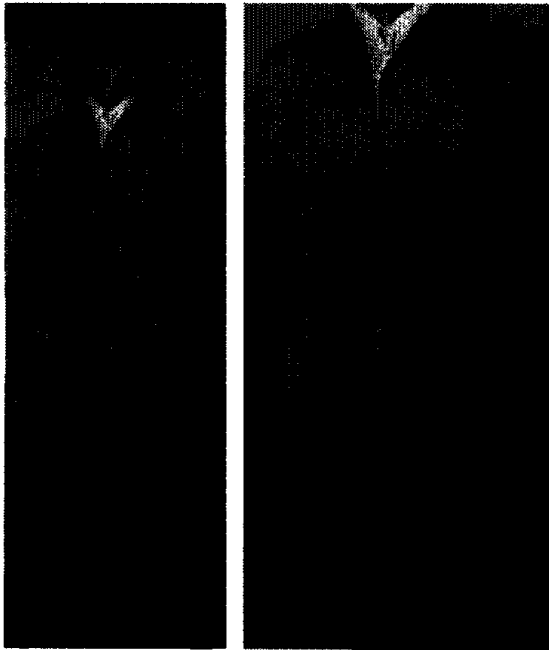
4) 코트 및 예복

코트는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 우아한 모양새를 표현하고 있다(사진 78).

예복에서는 에드워드 7세의 예복 차림을 연상시키는 모닝코트 차림도 선보였다(사진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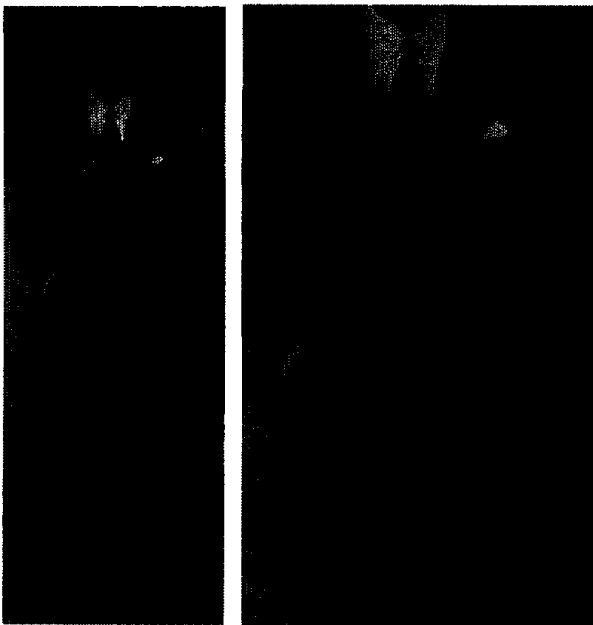
78) “97청자선 기준 실루엣 제정”, 앞의 잡지, 1996년 5월호, p.45.

<사진 78>



부드럽고 우아한 라인의 라글란 코트. 전신(사진 왼쪽) 및 부분(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7년 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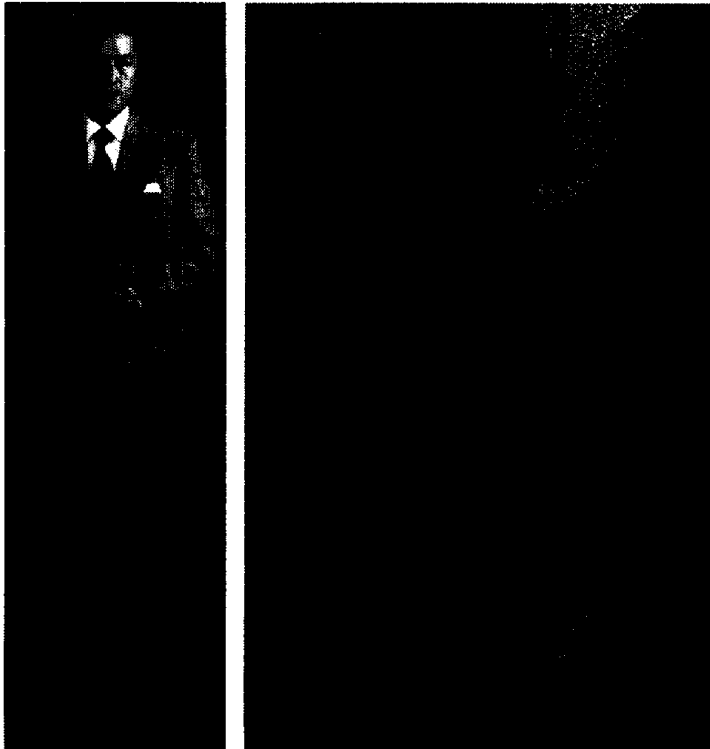
<사진 79>



에드워드 7세풍의 모닝 코트 차림.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7년 4월호.

10. '98 청자 기준선

<사진 80>



좁은 바지 부리 너비 등 여성적인 라인에 댄디한 감각의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바지 부리(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7년 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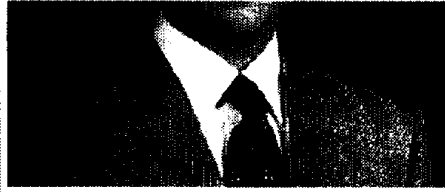
1) 경향

'98청자선의 중요한 특징은 좁은 어깨 및 좁은 바지 부리 너비 등, 모즈룩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남성복의 여성화 바람과 맥을 같이한다고 분석된다(사진 81).

길고 슬림한 실루엣(사진 82)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으며, 댄디한 패션 스타일을 근간으로, 한층 세련된 엘레강스룩이 계속되었다.⁷⁹⁾

79) "98청자선 기준 실루엣 제정", 앞의 잡지, 1997년 4월호, p.32.

<사진 81>



좁은 어깨 및 좁은 바지 부리 너비 등 여성화 경향의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 어깨(사진 위) 및 바지 부리(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7년 10월호.



<사진 82>



길고 슬림한 실루엣의 코트. 월간 복장 97년 10월호.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남성복이 자리잡게 된 것은 200여년 전으로,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18세기 중반~19세기 초반)이 계기가 된

다.⁸⁰⁾ 이 시기는 댄디(Dandy)의 탄생 시기와의 거의 일치한다. 18세기 말, 영국 국왕 조지 4세(재위 1820~1830)는 아버지 조지 3세의 정신 이상 증세 때문에, 황태자의 신분으로 섭정을 하게 됐다. 바로 이 시기에 댄디즘이 런던에서 발생했다. 댄디즘은 이후 프랑스의 루이 필립 왕 시대(재위 1830~1848) 때 파리에서 꽃피웠으며, 19세기 말 다시 런던에서 부활했다.

댄디들은 ‘복장’이라고 하는 외면성에 정신성을 담으려고 시도했다. 즉 하나의 신체를 장식하여 전혀 다른 별개의 예술적 작품을 만들어내려 한 것이다.

초창기의 댄디는 19세기 초 가치관이 격동하는 시대에 낭만주의를 구현한 사람들로, 화려한 의상을 잘 입었던 조지 4세를 비롯하여, 조지 브라이언 브란멜, 시인 바이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통칭 ‘보 브란멜’(멋쟁이 브란멜)로 불려진 조지 브라이언 브란멜(1778~1840)은, 조지 4세의 의상까지 조언해주는 등 탁월한 패션 감각을 가졌다. 특히 그가 입었던 검정 상의와 흰색 베스트 및 넥타이 차림은 심플함으로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현대 예복의 원조’가 되었다.⁸¹⁾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19세기 댄디의 차림새는 현대 신사복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98청자선에서는 이같은 신사복의 정수인 댄디한 세련미와 함께, ‘청자선의 신비’라는 테마를 더욱 부각시켰다. 청자선 제정의 본래 취지가 옷의 정신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댄디즘과 하모니를 잘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80) 신영일, 『신사복 이야기』, 주식회사 서광, 1993,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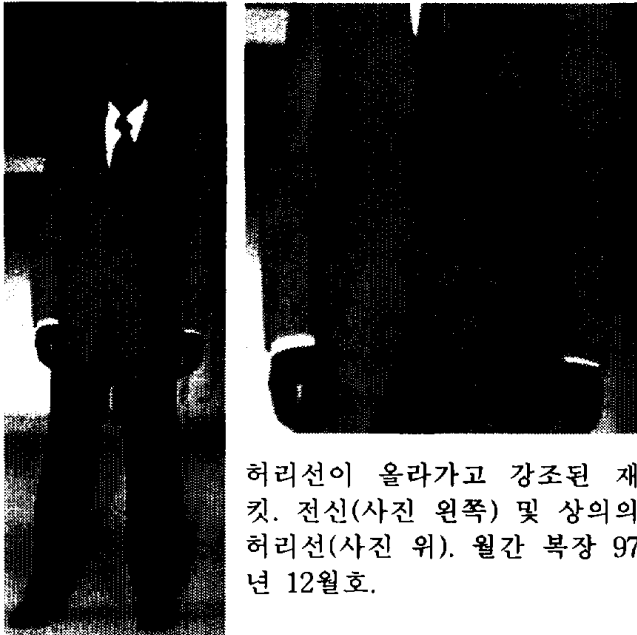
81) 山田 勝, 『ダンディズム』, NHKブックス, 1989, p.12. p.21. p.24. p.42.

2) 상의

어깨선과 저고리 길이는 예년과 동일했다.

허리선은 예년보다 1cm 올라갔으며, 여전히 허리선을 강조하여 전체 차림새의 액센트를 허리에 두고 있다(사진 83).

<사진 83>



허리선이 올라가고 강조된 재킷.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의 허리선(사진 위). 월간 복장 97년 12월호.

깃 처짐선이 올라갔으며, V존이 짧아졌다. 이같은 경향은 '99청자선까지 계속되었다.

윗단추의 위치는 두 번째 단추 위치가 허리선과 일치하게 함으로써 '93청자선 때와 동일해졌다.

옆주머니의 위치는 예년과 변동이 없으나, 허리선과 깃 처짐선 등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려간 셈이 된다. 옆주머니의 위치가 내려가는 것은 아이비 룩에서 보여지는 모양새다. 이같은 아이비 룩의 느낌이 가미된 것은, 90년대 말 세계 패션에서 나타났던 내추럴리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아이비 룩은 몸에 피트되지 않는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편안하고

활동적인 스타일⁸²⁾이란 점에서, 내추럴리즘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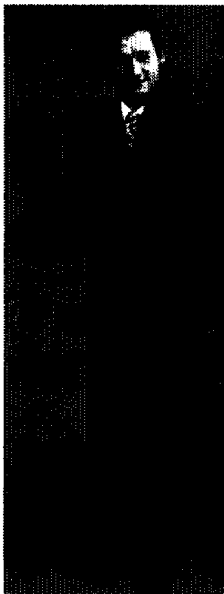
3) 하의

바지부리너비는 23cm로, 예년보다 좁아졌다. 타이트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으로 여성복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⁸³⁾ 바지 부리가 좁아진 것은 상의의 아이비 풍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이비 룩의 바지는 통이 좁은 것을 특징⁸⁴⁾으로 하기 때문이다.

4) 코트 및 예복

코트의 경우, 유연하고 자연스런 청자선의 곡선미와 함께 댄디한 분위기를 연출한 작품도 선보였다(사진 84).

<사진 84>



자연스러운 라인의 댄디한 분위기의 코트. 월간 복장 97년 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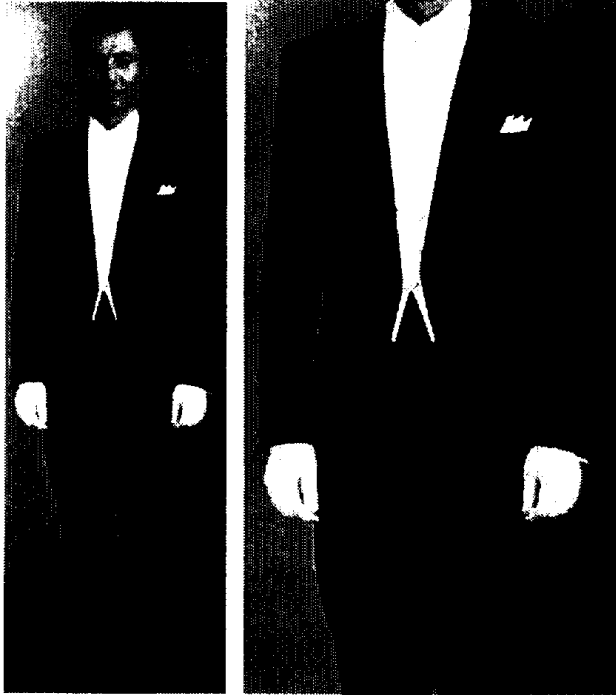
82) 田中千代, 앞의 책, p.3.

83) "98청자선 기준 실루엣", 앞의 잡지, 1997년 4월호, p.32.

84) 田中千代, 앞의 책, p.3.

예복에서 검정과 흰색으로 조화한 연미복은 댄디의 원조인 브란멜의 차림새를 연상시켰다(사진 85).

<사진 85>



댄디의 원조 브란멜을 연상시키는 연미복.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7년 11월호.

11. '99 청자 기준선

<사진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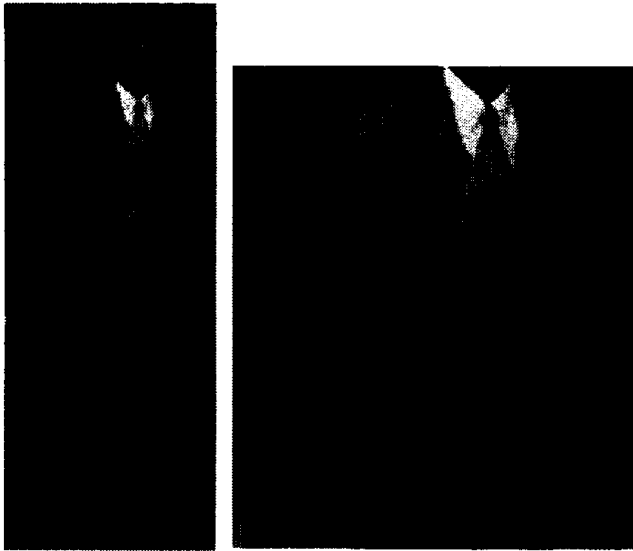


현대적인 세련미가 풍기는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상
의의 실루엣(사진 위). 월간
복장 99년 3월호.

1) 경향

90년대 말 세계 패션의 큰 흐름은, 전통미에 현대적인 세련미를 합친 '모던 엘레강스' 룩이다. 즉, 이질적인 요소를 조화시키는 믹스 스타일인 것이다. 이것은 90년대 패션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은 청자선 본래의 취지와도 일치되는 것으로, '99 청자선에서도 이같은 모던 엘레강스 스타일의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사진 87).

<사진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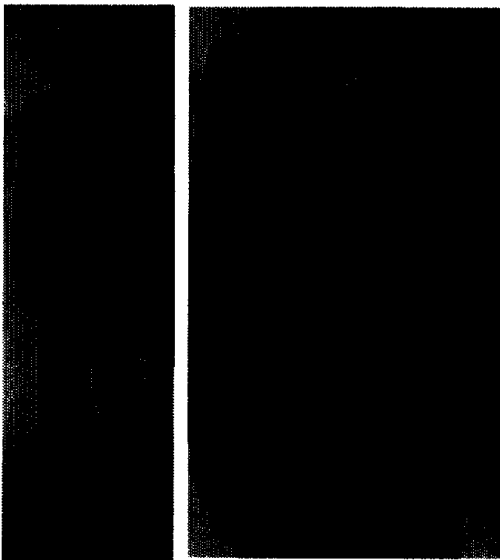


고전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를 조화시킨 모던 엘레강스룩. 전신(사진 왼쪽) 및 부분(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9년 2월호.

2) 상의

피트한 실루엣을 강조하는 세계 패션 경향⁸⁵⁾을 바탕으로, 3단추 홀자락 스타일을 기본으로 했다⁸⁶⁾(사진 88).

<사진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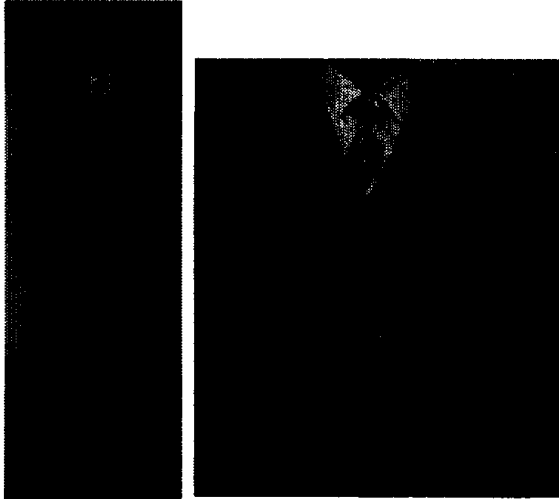
피트한 실루엣의 3단추 홀자락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의 허리선과 단추(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9년 3월호.

85) "99청자선 기준 실루엣 제정", 앞의 잡지, 1998년 5월호, p.46.

86) "99청자선 기준 실루엣 제정", 앞의 잡지, 1998년 5월호, p.101.

홀자락의 경우, 대개 테일러드 칼라를 달지만, 겹자락에 주로 사용되는 피크드 칼라를 단 작품도 선보였다(사진 89). 다양한 디자인의 시도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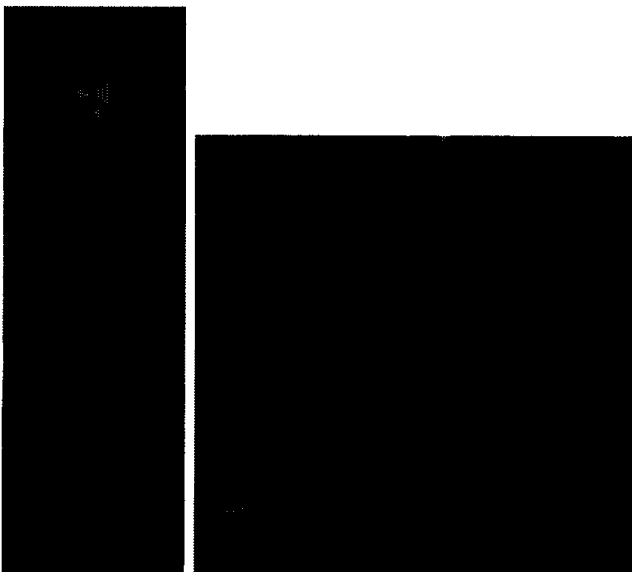
<사진 89>



피크드 칼라의 홀자락 수트.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의 깃과 여밈(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9년 2월호.

허리선의 위치가 예년과 동일했으며, 여전히 옷의 액센트를 허리에 두었다(사진 90). 이같은 흐름은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에 더욱 힘입어 계속 유지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진 90>



허리에 액센트를 준 상의. 전신(사진 왼쪽) 및 상의의 허리선(사진 오른쪽). 월간 복장 99년 3월호.

윗단추의 위치 역시, 두 번째 단추가 허리선과 일치함으로써 예년과 변화가 없었다.

상의의 트기는 디테일 부분에서도 사이드 벤트로 분명히 명시하기 시작했으며, 길이는 18cm로 정했다. 이같은 사이드 벤트는 청자선 제정에서 허리선을 강조하는 실루엣과 조화를 이룬다. 한편, 사이드 벤트는 걸어갈 때 매력적인 실루엣을 연출한다⁸⁷⁾는 점에서 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청자선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3) 하의

바지주름(tuck) 2개를 많이 접어 넣었다. 바지 주름을 '94청자선부터 '98청자선까지 앞게 2개 잡은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경향이다. 바지 주름을 많이 접을 경우, 바지의 미들 힙부터 힙까지의 부분에 여유분이 생긴다. 그러므로 바지 부리로 갈수록 슬림하고 좁아지는 모양새를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바지 주름을 많이 접어 넣은 것은, '97청자선 때부터 바지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98청자선 때는 바지부리너비가 좁아지기까지하는 경향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즉 테이퍼드 팬츠(tapered pants) 형태의 완성을 '99 청자선에서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테이퍼드는 차차 가늘어진다는 뜻으로, 허리 부분은 넉넉한 여유를 주고 바지 부리 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실루엣⁸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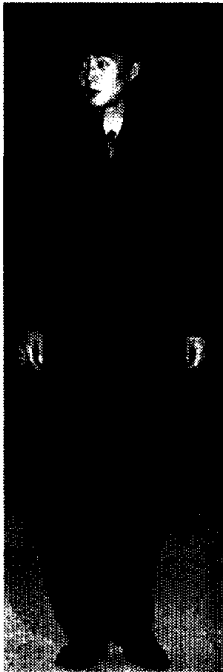
87) 남윤자·이형숙, 앞의 책, p.96.

88) 成田典子, 「新ファッションビジネス基礎用語辞典」, 織部企劃, 1976, p.211.

4) 코트

'94청자선 때부터 기준 실루엣 제정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99 청자선때 체스타필드 스타일의 길이만을 명시했다. 명시된 내용을 계산해보면, 지면에서 32.5cm 올라온 지점이다. 따라서 이 지점은 무릎에서 5cm정도 아래로 유추되어진다. 즉 '93청자선 때보다 15cm 정도 짧아진 것이다(사진 91). 이는 90년대 초반의 복고풍에서 벗어나 활동적 스타일의 지향을 의미한다.

<사진 91>



길이가 짧아진 코트. 월간 복장 98
년 11월호.

<표 2> '90청자선부터 '99청자선까지의 기준실루엣 디테일 비교

인도형 부분별	'90스타일한국청자선	'91스타일한국청자선	'92스타일한국청자선	'93스타일한국청자선	'94스타일한국청자선	'95스타일한국청자선	'96스타일한국청자선	'97스타일한국청자선	'98스타일한국청자선	'99스타일한국청자선
저고리 길이	1/2원길 (실차폭+1/2원길이+1cm)	1/2원길 (1~2cm)	1/2원길이	1/2원길이+2cm	1/2원길이+2cm	1/2원길이+2cm	1/2원길이+2cm	1/2원길이+2cm	1/2원길이+2cm	1/2원길이+2cm
어깨선	자연스럽게 하고, 소매산은 각이 지지않게 처리함	자연스럽게 처리함	약간 넓게하고 올림	약간 올림	약간 올림	자연스럽게 하고, 팔부분을 차가지 않게 함	자연스럽게 하고, 팔부분을 차가지 않게 함	자연스럽게 하고, 팔부분을 차가지 않게 함	자연스럽게 하고, 팔부분을 차가지 않게 함	자연스럽게 하고, 팔부분을 차가지 않게 함
허리선	1/2원길이+6cm로 하고, 옆선선은 조이는 두 겹으로 재고리부분은 여유있게 함	1/2원길이+5cm로 하고, 옆선선은 조이는 두 겹으로 재고리부분은 여유있게 함	1/2원길이+6cm로 하고, 허리선에 웨스트를 줄	1/2원길이+5cm로 하고, 허리선에 웨스트를 줄	1/2원길이+5cm로 하고, 허리선을 강조함	1/2원길이+6cm로 하고, 허리선을 강조함	1/2원길이+6cm로 하고, 허리선을 강조함	1/2원길이+6cm로 하고, 허리선을 강조함	1/2원길이+5cm로 하고, 허리선을 강조함. 옷의 옆선 또는 허리에 있음	1/2원길이+5cm로 하고, 허리선을 강조함. 옷의 옆선 또는 허리에 있음
깃너비	8.5cm~9cm로 하고, 깃차림은 다소 치저보이게 함	홀차: 8.5cm 깃차림: 10cm	생년후 줄 중간단추는 허리선 위치로 함	9.5cm	9.5cm	9.5cm	9.5cm	9.5cm	9.5cm	9.5cm
뒷단추	허리선에서 2cm치정	허리선에서 1cm치정	1/2재고리앞길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위로부터)
가슴 주머니	위치: 1/2재고리앞길+0.5cm 너비: 1/2깃너비	위치: 1/2재고리앞길+0.5cm (위로부터)	위치: 1/2재고리앞길 (위로부터)	위치: 1/2재고리앞길 (위로부터)	위치: 1/2재고리앞길 (위로부터)	위치: 1/2재고리앞길 (위로부터)	위치: 1/2재고리앞길 (위로부터)	위치: 1/2재고리앞길 (위로부터)	위치: 1/2재고리앞길 (위로부터)	위치: 1/2재고리앞길 (위로부터)
옆주머니	위치: 1/2재고리앞길+2.5cm (아래도면에서부터)	위치: 1/2재고리앞길+2.5cm (아래도면에서부터)	1/2재고리앞길 +1.5cm 지정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1.5cm 지정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1.5cm 지정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1.5cm 지정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1.5cm 지정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1.5cm 지정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1.5cm 지정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1.5cm 지정 (위로부터)
주머니 뚜껑	너비: 1/2깃너비 (깃너비8.5cm이면 9.5cm 깃너비면 10cm)	너비: 5cm를 기본으로 함	주머니 뚜껑을 올려받이나 깃차림 모두 하지 않음	1/2재고리앞길 +1.5cm 지정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1.5cm 지정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1.5cm 지정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1.5cm 지정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1.5cm 지정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1.5cm 지정 (위로부터)	1/2재고리앞길 +1.5cm 지정 (위로부터)
앞도련	자연스럽게 돌림	자연스럽게 돌림	약간 직계 돌림	약간 직계 돌림	약간 직계 돌림	약간 직계 돌림	약간 직계 돌림	약간 직계 돌림	약간 직계 돌림	약간 직계 돌림
뚜기 (Vent)	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ventless)	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올 경우 18cm길이로 함	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올 경우 18cm길이로 함	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올 경우 18cm길이로 함	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올 경우 18cm길이로 함	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올 경우 18cm길이로 함	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올 경우 18cm길이로 함	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올 경우 18cm길이로 함	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올 경우 18cm길이로 함
바지 입주름 (Tuck)	2개 넣음	2개 넣음	2개 넣음	2개 넣음	2개 넣음	2개 넣음	2개 넣음	2개 넣음	2개 넣음	2개 넣음
바지부리 너비	22.5cm	22cm	23cm	23cm	23cm	24cm	24cm	23cm	23cm	23cm
바지절단	폭 3.5cm	폭 3.5cm	폭 3.5cm	폭 3.5cm	폭 3.5cm	폭 3.5cm	폭 3.5cm	폭 3.5cm	폭 3.5cm	폭 3.5cm
코트	길이: 제스타일드-부풀린에서 20cm이하 라플란-부풀린에서 10cm이하 길도	길이: 제스타일드-부풀린에서 20cm이하 라플란-부풀린에서 10cm이하 길도	길이: 제스타일드-부풀린에서 20cm이하 라플란-부풀린에서 10cm이하 길도	길이: 제스타일드-부풀린에서 20cm이하 라플란-부풀린에서 10cm이하 길도	길이: 제스타일드-부풀린에서 20cm이하 라플란-부풀린에서 10cm이하 길도	길이: 제스타일드-부풀린에서 20cm이하 라플란-부풀린에서 10cm이하 길도	길이: 제스타일드-부풀린에서 20cm이하 라플란-부풀린에서 10cm이하 길도	길이: 제스타일드-부풀린에서 20cm이하 라플란-부풀린에서 10cm이하 길도	길이: 제스타일드-부풀린에서 20cm이하 라플란-부풀린에서 10cm이하 길도	길이: 제스타일드-부풀린에서 20cm이하 라플란-부풀린에서 10cm이하 길도
예복	기준치수 없음	기준치수 없음	기준치수 없음	기준치수 없음	기준치수 없음	기준치수 없음	기준치수 없음	기준치수 없음	기준치수 없음	기준치수 없음

<표 3> 기준치수

연도별 부분별	'90~'93청자선	'94~'97청자선	'98청자선	'99청자선
원길이	150cm	150cm	150cm	150cm
어깨너비	46cm	48cm	48cm	47cm
가슴둘레	96cm	99cm	99cm	99cm
배둘레	83cm	85.5cm	85.5cm	85.5cm
허리둘레	명시안함	명시안함	89cm	89cm
소매길이	58cm	58.5cm	58.5cm	59.5cm
불기둘레	99cm	100cm	101.5cm	101.5cm
바지길이	105cm	105cm	105cm	105cm

<표 4> 청자선과 세계패션 경향 비교

연도별	청자선 경향	세계 패션 경향
'90	내추럴리즘. 접자락 수트 증가. 깃너비 넓어지는 추세(트래디셔널룩의 복고경향 반영).	내추럴리즘. 40~50년대 클래식라인(셰이프 시킨 수트 등) 영국 트래디셔널룩 경향. 캐주얼화 경향 보이기 시작. 오드베스트 유행.
'91	장식성 강조한 오드베스트 등장. 쓰리피스 스타일 증가. 전형적인 클래식 스타일 재킷 시도.	소프트&내추럴. 정통과 클래식 비즈니스 라인 등장. 캐주얼화 계속.
'92	절제된 복고풍. 바지 부리 너비 넓어지기 시작.	복고풍(50년대 풍의 아메리칸 스타일 강세). 쓰리피스.
'93	영국풍에 의한 슬림 스타일 강세.	몸에 붙는 모즈룩. 쓰리버튼 재킷. 쓰리피스. 슬림한 일자바지. A라인 하프 코트 등장. 롱코트 감소.
'94	40~50년대 볼드룩. 역삼각형 실루엣 수트. A라인 하프 코트.	에스닉 모드(아시안 감각 가미). 좁은 어깨의 재킷. 재킷 길이 다소 길어짐. 4단추 싱글 유행. 넓은 스타일 바지. 베스트 계속 유행. 페미니즘화 두드러짐.
'95	몸에 많이 피트된 스타일 등장. 엘레강스 스타일 조짐 보이기 시작. 캐주얼화에 의한 세퍼레이트류 많이 선보임. 쓰리피스 스타일 정착. A라인 수트 스타일 제시. 엘레강스에 의한 재킷길이 길어짐. 6단추 더블 증가.	엘레гант한 남성성 추구. 스마트하고 슬림한 수트 부상(007제임스본드 이미지). A라인 스타일 등장(재킷:슬림, 바지:넓음). 전통으로의 회귀. 6단추 더블 증가. V존 좁고 피트된 스타일. 사이드 밴트.
'96	어깨선 자연스러우면서도 끝부분 차지 않음. 4단추 싱글 제시 등 V존이 알아지는 경향(짧은 감각화).	허리가 들어간 셰이프트 수트 주류. 3단추 트로트형 - 좁은라펠, 어깨가 넓지 않지만 각진라인. 엘레гант&클래식 스타일. 미래파 사이버 핑크와 비스포크테일러드의 믹스 스타일 등장.
'97	슬림 스타일 계속 유지. 엘레강스 스타일. (에드워드언룩의 영향).	과장된 콘케이브 라인 등장. 어깨 약간 올라간 스타일. 하이웨스트의 2단추 주류. 싱글의 피크드 라펠 많이 선보임. 스트레이트 바지 주류. 코트길이 무릎 또는 무릎 위가 주류.
'98	여성화 경향. 댄디즘과 청자선 정신과의 조화.	내추럴&소프트 주류. 우아하고 자연스런 수트. 슬랜더한 코트. 여성성 추구한 쉬크한 스타일. 캐주얼화 계속 유지.
'99	모던 엘레강스룩의 믹스 스타일. 3단추 싱글이 기본.	남성의 해방 추구 - 편안함 추구. 가볍고 부드러운 유지. 댄디즘과 스포츠 감각을 융합한 믹스 스타일. 영국 전통 스타일과 현대적 감각의 믹스 스타일.

IV. 청자선의 역할 및 제한점

1. 청자선의 역할

청자선은 한국 남성 맞춤 양복의 표준지침으로 우리나라 양복업계의 지역간 차이를 좁히는데 기여했다. 즉 청자선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 전국이 고르게 상향 평준화된 것이다. 한편 한국인의 체형과 세계적인 보편성을 존중하면서, 한국의 개성적인 권역 실루엣을 만들어 정착시키려 했다.

청자선의 제정은 옷이 지니는 정신성을 강조했다. 청자선 제정을 계기로 이제까지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면만 고려해왔던 우리 양복계에 문화로서의 의상 개념의 도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의상이란 실용적인 기능성과 창의적인 작품성이 조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식과 사상의 완전한 합일을 주장하는 청자선은, 우리나라 신사복을 패션문화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역할을 했다.

2. 제한점

맞춤양복은 디자인·소재·빛깔이 제각기 다른 세상에서 한 벌 밖에 없는 옷으로, 진정한 의미의 개성화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맞춤양복에 있어서 다양성은 필요 불가결의 조건이다. 그러나 한국 맞춤

양복계를 이끌어가는 청자선의 제정 내용과 패션쇼를 살펴보면 다양성이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다양성의 부족을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첫째, '청자선 기준실루엣 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스타일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치수 위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진식도 "표준선이라면 그 치수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그 선과 실루엣의 성격을 규정 짓는 것도 중요한 전제가 된다. 그렇지 않고는 개념을 드러낼 수 없을뿐더러..."⁸⁹⁾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청자선은 스타일 내지 경향을 확실히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제정 내용을 읽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는 창작의 영감을 주며, 일반인에게는 옷을 맞춰 입고 싶어지게 만드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제시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독특한 권역 실루엣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복과 코트의 경우, '94청자선부터는 거의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 역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제약을 주지 말자는 것인데, 명시하는 편이 청자선 제정이 표준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품 개발 측면에 있어서 볼 때도, 코트나 예복에 관해서 명시해주는 편이 디자인 영감 유발의 구체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다.

둘째, 제정 내용을 토대로 만든 작품에 있어서 매년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 발표된다. 따라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매스컴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디자인의 개발만이 이같은 문제점을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89) 김진식, '청자선과 맞춤양복', 『월간복장』, 1993년 1월호, p.57.

이같은 견해는 “패션은 돌고 돌지만 늘 새롭게 바뀌는 것이다”⁹⁰⁾ 및 “한국 맞춤 양복의 패션화를 위해 디자인을 충전하자”⁹¹⁾고 언급한 김청 칼럼의 논조와도 일치한다. 물론 남성복의 정장은 테일러드 수트라는 한 패턴만이 늘상 활용되기 때문에, 디자인의 다양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포멀과 캐주얼한 이미지의 혼합과 같은 고정관념을 파괴한 수트라든가, 깃이나 포켓의 독특한 모양 등 디테일의 구사, 변형된 텍시도나 코트, 또는 세련된 소재 및 빛깔의 과감한 시도 등 얼마든지 창작 도전을 시도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되기 위해서는 신사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즉, 이제까지 신사복과 패션을 분리하여 생각했던 사고의 수정이 필요하다. 서양 모드사를 보더라도 남성복이 어떤 의미에서 여성복 못지않게 시대적인 패션성을 추구해온 경우도 있다. 기술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기술에 보태어 창의적인 패션성을 가미해야하는 시대적인 요청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하므로써 젊은 P세대(패러다임 세대)의 코드에도 맞출 수 있으며, 중장년 소비자들의 지지 기반 역시 더욱 단단히 굳어지리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패션은 나이, 세대의 경계를 뛰어넘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논할 것은, 청자선이란 이름의 한계성이다. 청자선은 한국의 개성적인 권역(圈域) 실루엣을 형성하는데 운신의 폭을 좁힌 것으로 판단된다. 청자선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청자

90) 김청, '아티스트와 아티션', 앞의 잡지, 1993년 11월호, p.63.

91) 김청, '서울컬렉션 세계로 가는 길', 앞의 잡지, 1997년 8월호, p.42.

라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국 신사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상징성도 고려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좀더 포괄적인 이름 하에 청자선을 비롯한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므로써, 통일된 하나의 권역 실루엣을 이루어 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93청자선 때부터 패션쇼의 이름을 한국맞춤양복 패션쇼로 바꾼 것과 같이, 눈앞의 현실적인 경제성만을 위한 이름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이상적인 꿈을 담는 동시에, 맞춤형복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자선의 1990년대 10년간의 변천 추이를 세계패션과 연관지어 분석했으며, 앞으로 청자선이 한국 남성복의 독창적인 권역 실루엣을 이룩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했다.

우선 1990년대 청자선 변천추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0년대 청자선의 큰 흐름은 우선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90년대 초반에 나타난 에콜로지 영향에 의한 내추럴리즘이다. 이같은 스타일은 특히 어깨선과 소매선 부분의 부드럽고 자연스런 라인에서 잘 나타났다. 청자선의 유연한 곡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분석된다. 둘째, 90년대 중반 직전에 나타난 슬림 스타일이다. 이는 영국풍 강세에 의한 것으로, 날씬한 3단추 홀자락 수트로 잘 표현되었다. 이 스타일은 심플하고 절제된 라인에 의해 그 효과를 증대시켰다. 이같은 압축미는 고려청자의 매끄럽게 표현된 단아한 곡선과 연결된다고 분석된다. 즉, 고려청자선에서 느낄 수 있는 흐르는 듯한 간결한 리듬의 아름다움과 연결되는 것이다. 셋째, 90년대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엘레강스 스타일이다. 이것은 댄디 스타일과의 매치로 절묘한 발란스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코트 등에 표현된 흐르는 듯한 우아한 라인은 청자선의 곡선미와 일치한다.

90년대 청자선은 이와같이 중심이 되는 큰 경향이외에도, 복고풍이

라든가 캐주얼화 및 여성화 경향의 색채도 다소 띄게 되었다. 또한 90년대 복합성의 표현인 믹스 스타일도 제시했다. 청자선에서의 믹스 스타일로는 빅 실루엣과 스몰 실루엣간의 혼합이라든가, 전통미와 현대감각의 혼합, 즉 모던 엘레강스 룩을 꼽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인 빅 실루엣과 스몰 실루엣간의 혼합은 역삼각형 실루엣으로 표현되어, 강한 남성상을 추구했다. 후자의 경우인 모던 엘레강스 룩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란 점에서 청자선의 정신과도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자선이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자선이 그 시대 패션 코드의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정보파악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패션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그러나 세련된 감각의 스타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에 의한 최소한의 유행의 수용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유행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적절히 활용하자는 것이다. 유행은 그 시대의 감각이며 패션은 그 시대의 상징 기호로, 유행과 패션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남성패션의 오프쿠튀르 세계를 전개해 갈 수 있는 맞춤형 양복계의 디자이너 배출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국 맞춤형 양복의 패션력 강화는 물론이며, 패션 히로인을 통해 청자선을 좀더 효과적으로 국내 및 외국에까지도 널리 알리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같은 디자이너 배출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기술 위주의 학원 교육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패션 문화의 일부분으로서 남성 신사복을 인식하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전문대 이상 대

학에서의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노력을 통해, 청자선의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완성시켜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므로써, 세계패션과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가운데 청자선이라는 한국의 독창적인 권역 실루엣을 완성, 21세기 지구촌 패션으로서의 새 면모도 갖추어나갈 수 있으리라 전망되는 것이다.

2. 제언

1999년 언론은 21세기 세계적인 패션 산업의 출현을 예고하는 “지구촌 패션”이란 용어를 만들어냈다.⁹²⁾ 이같은 글로벌 시대 속에서 청자선이 한국 남성복의 확실한 권역 실루엣을 갖고, 세계패션에 동참하기 위한 지향책을 논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프레타포르테를 병행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이같은 시도를 우리만의 개성적인 실루엣 형성에 활용해본다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그 방법의 하나는, 제대로 된 맞춤 양복 디자이너가 기성 양복 브랜드를 직접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맞춤양복업계와 기성양복업계의 긴밀한 ‘디자인 제휴’ 등을 꼽을 수도 있다.

둘째, 매스컴 특히 TV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텔레비전은 표현 매체라기보다는 전달매체⁹³⁾라는 논리에서 본다면, TV는 청자선의 취지 및 우리의 신사복 실루엣을 알리는 데 적절한 도구라고 할 수

92) 벨러리 멘데스·에이미 드 라 헤이, 김정은 옮김, 『20세기 패션』, 시공사, 2003, p.11.

93) 笈沼圭司, 『媒體と言語』, 放送研究 17호, NHK 刊, 1968, pp.6~9.

있다. 매스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매스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해야만 한다. 종전의 맞춤 양복 홍보용 비디오 제작 및 배포라든가, 옷 바르게 입기 가두 캠페인 등에서 벗어나 좀더 화려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라야 할 것이다. 분명한 이미지가말로 미디어가 형성한 하나의 메시지이며,⁹⁴⁾ 독창적인 패션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맞춤 양복의 유리한 점인 다양한 원단을 통한 시각적 기획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버 패션 기획이라든가, 액세서리·구두 등을 갖춘 토탈 맞춤 양복점의 제시도 매스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가 될 것이다.

21세기는 더욱 업그레이드 된 상상력의 시대다. 홍보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94) 김규, 「방송미디어」, 나남출판사, 1996, p.119.

용 어 해 설

- * 저고리 : 재킷(jacket). 상의의 총칭. 주로 힙 정도 길이의 겹옷으로, 앞여밈으로 되어 있다. 원래는 남성전용 의상이었던 것이 19세기 후반부터 여성도 입게 되었다.
- * 홑자락 : 싱글 브레스티드(single breasted). 코트나 베스트, 재킷 등의 앞 중앙에 일렬로만 단추를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옷을 말한다. 즉 여밈에 있어서 단추를 끼울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분만을 갖는 옷이다.
- * 겹자락 : 더블 브레스트(double breasted). 단추가 2줄로 달려서 여미는 스타일이다. 2줄 중에서 한쪽은 장식적으로만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한줄로 단추가 달린 싱글 브레스티드와 상반되는 명칭이다.
- * 홑자락 3단추 : 싱글 쓰리버튼(single three button). 앞 중앙에 일렬로 3개의 단추를 일렬로 끼우도록 한 스타일이다.
- * 겹자락 4단추 : 더블 투버튼(double two button). 단추가 2줄로 4개 달리는 스타일이다.
- * 3갓춤 : 쓰리피스(three piece). 재킷 · 베스트 · 바지의 한 세트로 된 수트를 지칭한다.
- * 앞도련 : 프론트 컷(front cut). 재킷의 앞단에서 중심선에 가까운 부분을 지칭한다. 이 부분을 둥글게 굴린 스타일과 직선으로 컷팅한 스타일이 있다.
- * 트기 : 벤트(vent). 재킷이나 코트 등의 끝단에서 세로로 뜯은 것을 지

칭한다. 뒤 중심을 튼 것을 센터 벤트, 뒤쪽의 양 절개선을 튼 것을 사이드 벤트라고 부른다.

- * 바지 앞주름 : 프론트 턱(front tuck). 바지 앞부분 허리선에 일정한 폭을 접어 만든 주름을 지칭한다. 허리 아래 부분에 여유분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주름 1개를 원 턱(one tuck), 주름 2개를 투 턱(two tuck)이라고 부른다.
- * 접단 : 턴업(turn-up). 바지 단을 되접어 위쪽으로 꺾어 올린 부분을 지칭한다.
- * 원길이 : 총장. 뒷목 중심 부분(와이셔츠 깃과 몸판 경계선의 뒤쪽 가운데 지점)에서부터 발뒤꿈치 선(구두 몸체와 굽의 경계선)까지.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단행본>

고유섭, 진홍섭 편역, 『고려청자』, 삼성문화재단, 1977.

금기숙 외, 『현대 패션 100년』, 교문사, 2002.

김경린, 『알기 쉬운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주변 이야기』, 문학사상사, 1994.

김규, 『방송미디어』, 나남출판사, 1996.

김진식, 『한국양복 100년사』, 미리내, 1990.

김현식, 『세계의 불가사의』, 동아출판사, 1992.

남윤자·이형숙, 『남성복 연구』, 교학연구사, 2000.

벨러리 멘데스·에이미 드라 헤이, 김정은 옮김, 『20세기 패션』, 시공사, 2003.

오치아이 마사카츠, 이유정 옮김, 『옷 잘 입는 남자에게 숨겨진 5가지 키워드』, 나무와 숲, 2002.

유태순, 『패션과 여성』, 학지사, 1999.

이인자 외, 『현대사회와 패션』, 건국대학교출판부, 2002.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유정완 이삼출 민승기 옮김,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1992.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81.

조규화, 『복식 미학』, 수학사, 1982.

조규화·구인숙·금기숙, 『복식사전』, 경춘사, 1995.

토마스 칼라일, 박시인 옮김, 『의상철학』, 을유문화사, 1963.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패션큰사전』, 교문사, 1999.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우리 옷 이천년』, 미술문화, 2001.

E. L. 우드워드, 홍치모·임희완 옮김, 『영국사개론』, 예문출판사, 1988.

<논문>

권혜옥, 「한국 현대 남성복 유행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모현선, 「1990년대 남성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박순양, 「한국 남성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박영철, 「한국의 양복변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신명진, 「남성수트(Suit)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유정하, 「남성복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이숙희, 「20세기 남성패션의 변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제19권, 제3호, 1995.

정연자, 「모즈룩(Mods Look)에 관한 연구」, 복식 제33호, 한국복식학회, 1996.

조규화, 「바지의 기원 및 그 교류」, 국민대 논문집, 제16집, 1979.

조미나, 「서양 남자바지 변천에 관한 복식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조양래, 「신문매체에 나타난 남성복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정기간행물>

「동아연감」, 동아일보사, 1988.

「복장 월보」, 대한복장기술협회, 1973. 7.

「복장 월보」, 대한복장기술협회, 1975. 6.

「월간 복장」, 한국맞춤양복기술협회, 1989. 4.

「월간 복장」, 한국맞춤양복기술협회, 1989. 11.

「월간 복장」, 한국맞춤양복기술협회, 1990. 1~1999. 12.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1995. 4. 11.

「MEN'S COLLECTIONS」, GAP JAPAN, '90S/S 파리. '90·'91A/W 파리. '90·'91A/W 밀라노. '92·'93A/W 밀라노. '93S/S 밀라노 '93·'94A/W 밀라노 '94S/S 파리. '94·'95A/W 밀라노. '95·'96A/W 파리. '95·'96A/W 밀라노. '96S/S 밀라노. '96·'97A/W 파리. '97S/S 밀라노. '97·'98A/W 파리. '97·'98A/W 밀라노. '99S/S 밀라노. '99·2000A/W 뉴욕.

「UOMO COLLEZIONI」, Zanfi, '95·'96A/W 밀라노.

- 외국 문헌 -

青木英夫, 『西洋男子服流行史』, 原流史, 1994.

出石尚三・堀洋一 監修, 『THE BUSINESS WEAR』, 婦人畫報社, 1989.

落合正勝, 『男の服装術』, しまの出版, 1999.

落合正勝, 『ファッションは政治である』, しまの出版, 1999.

成田典子 編, 『新ファッションビジネス基礎用語辞典』, 織部企劃, 1976.

箋沼圭司, 『媒體と言語』, 放送研究 17号, NHK 刊, 1968.

高階秀爾 監修, 『西洋美術史』, 美術出版社, 1990.

田中千代, 『新・田中千代服飾事典』, 同文書院, 1991.

中野香織, 『スーツの神話』, 文春新書, 2000.

ハーディ・エイミス, 森秀樹 譯, 『ハーディ・エイミスのイギリスの紳士服』, 大修館書店, 1997.

深井晃子, 『ファッションキーワード』, 文化出版局, 1993.

『服飾辞典』, 文化出版局, 1979.

堀洋一 監修, 『男の服飾事典』, 婦人畫報社, 1991.

山田 勝, 『ダンディズム』, NHKブックス, 1989.

Anne Hollander 著, 中野香織 譯, 『性とスーツ』, 白水社, 1989.

ABSTRACT

A Study on Changes of Men's Wear 'Celadon Line' described in <Monthly Costume>

- From 1990 until 1999 -

Kim, Eun Kyung

Major in Fashion Journalism

Dept., of Fashion Art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British thinker and historian Thomas Carlyle emphasized the spirit of costume in his article <Costume Philosophy> published in the 19th century. "Costume covers the outside of a soul." His statement implies that the body is a container of spirit and that the costume covering the body containing the spirit expresses the spirit or its thinking.

Based on such a fashion culture mentality, this study reviewed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celadon line, assuming that with the celadon line, our custom tailors community which had insisted on functional and technical aspects of the tailored

costume began to refer to a concept of costume as a culture. In other words, the celadon line has helped our custom tailors community to apply the smooth line of Koryo celadon and thereby, enhanced men's suits to the level of a costume culture.

The celadon line may be defined as the standard guideline for Korean custom-tailored suits in reference to the smooth line of unique Koryo celadon.

This study adopted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Thus, <Monthly Costume> published by the Korea Costume Tailors Association was reviewed to analyze the changes of the celadon line during the 1990's. Based on such an analysis, the researcher explored the ways to establish a unique silhouette for Korean men's custom-tailored suits.

The 1990's was a period when our custom tailored suits were pressed to change in competition with the ready-made ones. Moreover, during this period, Korean men's wear was individualized and rationalized owing to diversification of world fashion and the development of coordination knowhow.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During the 1990's, the development of the celadon line can be reviewed in three aspects. In the early 1990's, the natural style affected by ecology was in vogue, and just before the mid-1990's

the slim style emerged only to be established as the main celadon line during the 1990's. After the mid-1990's, the elegance style began to emerge. This elegance style was harmonized with a dandy element to highlight the simple rhythmical aesthetics of the celadon line.

Beside such main streams, retro style, casual style, feminism and mixed style were witnessed. In particular, the mixed style expressed a complexity, one of the characteristics during the 1990's. The mixed style celadon line showed a mix of big and small silhouettes, a mix of traditional aesthetics and modern sense or a modern elegance look. The mix of big and small silhouettes was expressed as an inverse triangle to suggest a strong image of man, while the modern elegance look emphasized a cross-encounter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which is deemed to conform to the spirit of the celadon line.

Based on such an analysis of the celadon line in the 1990's, it is essential to, first, collect information precisely and then, foster men's custom-tailor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world of fashion with our clear silhouette for men's wear, it is necessary to promote exchange between custom-tailors and ready-made communities effectively in terms of information and designs first,

and then, make use of mass communications, particularly TV.

It is concluded that through such efforts, it is urgent to complete specific and attractive celadon lines.

Then, it is conceived that we will be able to maintain a sense of balance between our fashion using the celadon lines and world fashion and thereby, create unique regional silhouettes and i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fashion industry.